

〈제 128 호〉

문학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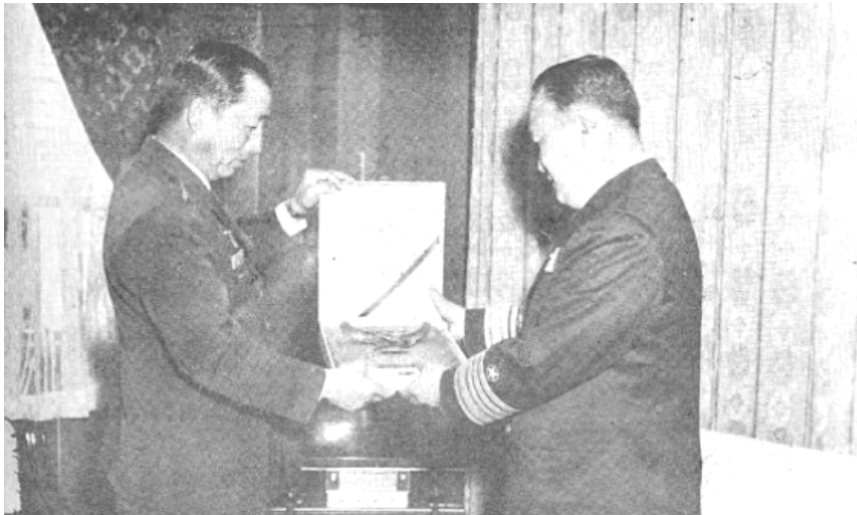




신임 김 규섭 해군참모총장,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 예방

신임 해군참모총장 김 규섭 중장이 4월 4일, 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김 규섭 해군참모총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4월 14일, 신규임 UN군사령부 작전부장이 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옥 참모총장은 이임하는 UN군사령부 작전부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4월 21일, 미공군 국원국장이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축진급

상 :4월 1일부로 준장으로 진급한 영예의 장성진급자 ○명에게 옥 만호 참모총장이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임무완수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12명의 영관급 전역장교들이 4월 29일, 주 영북 참모차장에게 합동 전역신고를 했다.



공군 제 128호 (192년 2호) 차례

권 두 언	정훈감 신 찬 2
자주국방태세확립과 군의 정예화	전우신문 논설위원 이창록 4
우리 군의 당면과제와 사명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진복 12

명사들의 1000자 수필

● 젊은이여 불평이 있는가?	서울대 문리대 교수 장병림 21
● 평생의 일감같이	서울대 교수 장리욱 22
● 인생은 배움의 길	한양대 사범대학장 이해남 23
● 생활은 작곡과 같다	철학박사 오천석 24
● 또 하나의 매듭	대한일보 주필 강영수 25
● 참된 행복	서라벌예대 교수 김동리 26
● 여유	여석기 27

한국의 재발견

지정학적으로 본 한국	신아일보 논설위원 정운중 30
고질화된 전근대적 사고	중앙일보 문화부 정규용 36
사적으로 본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새로운 민족정신	이상현 41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전우신문편집실장 서정옥 47

특집좌담

제 2전력이란 무엇인가?	52
유기원 대령	김준택 중령
김근전 대령	사회: 김원기 중령
현병민 대령	

<수필> 계급장 시비 김윤호 64

표지화 · 차례화	진광선
정신의 이완에서 오는 군 범죄와 그 대책	정해원66
자주국방을 위한 PPBS	국방부 특별검열단PPBS연구위원회 제공 75
여가 선용을 위한 Recreation	한공렬 83
<정비사의 하루> 별과 함께 산다	문종진 99

공군을 지켜보는 눈

사명감을 지닌 창의적인 공군이	수도여사대 학장 주영하 94
보다 넓은 속뜻의 상징	이대 시청각교육원장 김은우 96
연마하고 전진하는 공군	대한일보 전무 한갑수 98
미완성 공군	동양방송 논평위원 봉두완 100
달라진 옛 친구	해군 중위 한상욱 102
스핑크스	한대 신문학과 황경렬 104
푸른 「유니폼」의 매력	부산 남여자중학교 차민희 106

<항공 군사 과학>

화성 혹은 외계 어느 곳에 생물이 있을까	구본술(편역) 109
미군용 「헬리콥터」	조운기(역) 127
무기체제 연구개발의 방향과 전개에 대한 의견	조옥찬 136
천 축 항 법	홍준표(역) 146
하늘의 승리	문무길 155

<서한문> 용기와 열정을 가진 군인이 되기를	최홍길 165
<오페라에의 초대> 토스카 전3막	169

<군종코너>

군인의 인격과 생활	군목 김두식 176
군인과 종교	군목 김국진 182
빛진자	군목 최신상 188
불교와 호국사상	법사 홍상길 190

<단 편> 열 외 자 최인호 92

공군

〈제 128 호 · 1972년 제 2 호〉

<비매품:무단전재금>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 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홍순옥
편집실: TEL. 406-220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와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권두언>

「랑카스터」기의 교훈

「랑카스터」라 불리우는 항공기가 있었다. 제 2차대전시 영국 공군이 사용하던 폭격기다. 순항속도가 미국 공군의 B-17보다 훨씬 떨어지며, 상승고도는 독일군 고사포를 억지로 피할까 말까할 정도였다. 그래서 주간에는 못쓰고 야간폭격에만 출격했다. 하지만 이 「랑카스터」의 총 출격 횟수는 영국 폭격대의 전체 횟수의 절반가량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독일을 굴복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조종석은 두 개인데 왼쪽에 기장이 앉고, 오른쪽에는 정비사가 탔다. 부조종사란 없고 기장이 쓰러지면 정비사가 몰고 돌아왔다. 승무원들은 왕복 9시간 내의를 줄곧 방한복에 구멍대를 차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거동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차분하고 용기에 차있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사무실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알프스」를 넘어 폭격목표로 날아갔으며, 고사포의 탄막을 뚫고 돌아와서는 야근을 끝마친 기술공처럼 조용하게 조반을 들었다. 일상생활과 전쟁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영국인의 훌륭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

그들에게는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다. 약 47,000명의 승무원이 전사했으며 3,349대의 「랑카스터」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 전사자 수는 영국 공군의 전체 전사자의 2/3이며, 「랑카스터」기 전 생산대수의 46%를 손실한 것이다. 그랬지만 독일은 끝끝내 이들에게 굴복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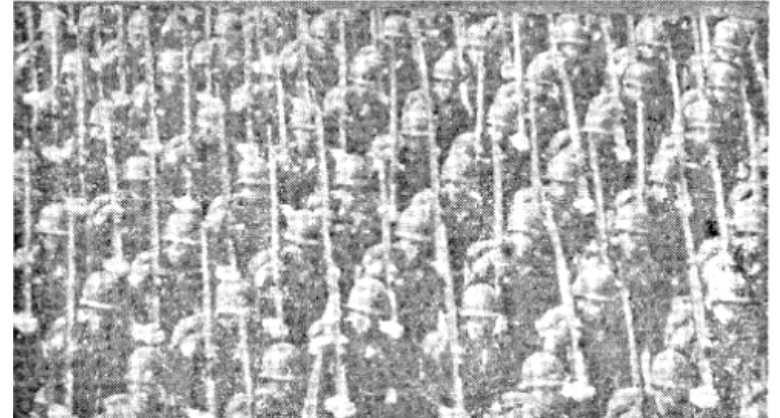
≡자주국방 태세 확립과 군의 정예화≡ <상>

이창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1943년 11월, 「루우루」지방을 폭격 하려 던 「랑카스터」폭격 편대가 「화란」해 안 상공에서 독일의 야간전투기의 요격을 받았다. 그 중 한 대는 적기의 공격으로 전열장치가 파괴돼서 영하 40도의 냉기가 기체 내로 밀어닥쳤다. 총좌도 얼어붙었다. 거기에 기내의 통신선도 끊어졌다. 계속되는 공격으로 조종석의 유리창이 깨졌으며, 나침반도 부서졌다. 기장은 머리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출혈 끝에 혼수상태에 빠졌다. 기체는 요동하기 시작했으며, 산 소 「파이프」가 찢려져서 휴대용산소통으로 대체했다. 항법사는 죽고 무전사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랑카스터」기는 목표상공까지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는 북극성과 달로 방향을 잡아 귀로에 올랐다. 정비사와 폭격수가 교대로 조종간을 잡았으며, 영국 본토가 보이자 기장의 의식을 되살려서 간신히 불시착했다. 그것도 짙은 안개 속을 헤치면서.

어떠한 전쟁도 편안하게 치른 예는 한 번도 없다. 적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적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의 차분한 생활 태도가 전투에 임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져서 각자의 소임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용기있는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예상외의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도 즉각 적응, 타개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든 정신적 요소와 자세는 오로지 사명감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군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정예화 과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머리말...주먹 센 놈이 판치는 세계

일간신문의 일단기사에 불과한 짤막한 뉴스였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골(毛骨)이 송연해지는 한 시사평론가의 견해를 읽어 본 일이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련은 「닉슨」을 테스트하기 위해 「유고」와 한국에 대하여 불장난을 시도할 지도 모르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인다. 「호루시초프」가 「케네디」를 테스트하기 위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설치했던 것과 같이 「브레즈

네프는 그가 원한다면 「유고」에 대하여 「체크」식으로 내정간섭을 시도하거나 한국에 대하여 1950년의 한국전쟁과 비슷한 국지 분쟁을 불붙여 「닉슨」을 테스트할지도 모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견해이면서도 우리의 조국이 왜 이와 같이 국제 불안의 불씨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불안에 앞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조국은 알보이고 있는가?

왜 우리 민족은 위기설(危機說)의 구설수에 오르내려야만 하는가?

자유중국이 1948년 이래 「유엔」을 위해 헌신해 왔던 깊은 공로의 보람도 없이 중공 때문에 「유엔」의석을 물러나게 된 것을 보면, 민주우방이니 자유진영이니 하여 공산세력에 맞서 던 어제의 우방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교훈을 배웠던 우리인자라, 오늘의 약삭빠른 세계조류에 섞여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력이 커져야 하고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사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국제관계가 되어가는 꼴을 보면 흡사 명동의 깡패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 그저 주먹이 센 놈이 의젓하게 판치는 세계가 되었다.

1950년 「유엔」은 만장일치로 「중공」을 침략자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그 21년이 지난 1971년에는 박수갈채로 「유엔」전당으로 환영했다. 왜 무슨 까닭으로? — 중공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7억 인구니 광대한 영토니 하는 것은 체면치레의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그저 핵무기에 별별 떨어 박수를 친 것이다. 침략자라고 낙인찍을 때에는 그만한 인구와 영토가 없었던 말인가.

일본만 해도 매한가지. 「이카나믹·어니멀」이니 군국주의의 유명이니 하며 욕을 퍼부으면서도 세계 제3위의 경제국으로 커지니까 1945년 이전에 짓밟혔던 동남아 각국이 상전 모시듯 존대(尊待)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자위대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해마다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자 세계를 통틀어 오극구조시대(五極構造時代)라고 하여 일본을 국제관계의 상좌로 모시기 시작했다.

아무리 국제신의(國際信義)가 타락되고 실리추구(實利追求)에 만 급급하게

되었다지만 이 조석변의 국제조류는 구역질이 솟아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 없어진다는 주먹세계의 불문율(不文律)만은 외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한민족도 강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강대국은 아니지만 맵고 다부지다는 형을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자주국방을 외치며, 곳곳하게 일어서려는 것이다. 김일성이라는 놈이 무서워하고, 모택동이나 「브레즈네프」같은 깡패두목들도 두려워하는 주먹을 다듬어야 한다. 물 건너 「게다」신은 섬사람이 함부로 굴지 못할 만큼 우리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주먹이 세져야 하겠다. 1591년의 임진년에 앞서 이 율곡선생의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에만 귀를 기울였던들 전후 7년간의 전화(戰禍)를 면할 수 있었던 역사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자주국방의 시급한 과제를 풀어가야만 한다.

(2) 모순된 정세조류……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고 주먹으로는 스파링하는 세계

여기서 잠만 우리 주변의 군사정세를 바라보고 본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군사정세 라고 못 박고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정세조류는 모순에 가득 차 있다. 입으로는 평화공존이니 협상대화니 떠들어 대면서도 주먹으로는 <사운드박스>를 두들기며 스파링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알아보자 하는 식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 중공 육부터 나오게 되지만, 1955년의 「반둥」회의 이래 평화 5원칙이니, 평화 10원칙이니 하여 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 등 꼴같은 평화구호를 가장 떠벌인 것이 중공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택동은 과학진을 총동원하여 핵개발에 광분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양면상(兩面相)인가. 핵력으로 어깨를 재보자는 속셈이다. 그 결과 중공은 현재 20기(基)의 MRBM(준중거리탄도 미사일)과 여러 기(基)의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중반기까지는 MRBM과 IRBM(중거리탄도 미사일)의

혼용핵력을 갖게 될 것이고 1975년까지에는 3백 내지 5백기(基)의 IR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가공사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한반도는 MRBM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간다.

중공이 이처럼 핵미사일을 갖추게 되는 것은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에서 불안요소가 된다. 마치 미친놈에게 예리한 면도날을 쥐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중공지도자들에게서 이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7억이 넘는 폭발적인 인구를 배경삼아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 사용을 서슴지 않을 광신자들이다.

테이블에서 해결될 문제에도 걸핏하면 핵무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북괴놈들을 몰아세운다면 미국이나 「유엔」이 무슨 수로 다독거릴 것인가. 거기엔 전쟁 밖에 풀길이 없어진다. 다음으로는 일본을 바라보기로 한다. 한 마디로 해서 1945년 이전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제국주의의 옛 꿈을 잊지 못하고 있는 전쟁전문가라고 말하게 된다. 그들의 국가사정이 숙명적으로 영토 확장을 강요하고 있다. 제한된 섬나라 안에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배출구가 없으면 자폭할지도 모르는 이상비대증(異狀肥大症)의 경제성장, 쓰레기로 쌓이게 될 생산과잉 등 국외로의 분출현상이 불가피해진다.

1945년의 패전 직후, 그네들은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고는 일단 맹세했다. 그 제 9조를 보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國權)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옛 제국주의의 영화에 대한 향수는 그 국민성 밑뿌리를 축축이 적시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며 백주에 배를 갈라 자살한 미시마유기오(三島由起夫)라는 국수주의(國粹主義) 인기작가의 죽음에 대하여 합당한 전반적인 반응이라든지, 「괘」도(鳥)에서 28년만에 귀국한 구 일본군 패잔병(收殘兵)을 환호하며, 군인정신의 산 표본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그네들은 분명 호전적인 인종이다.

여기예다가 자위대의 증강계획을 보태면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은 머지않아 군사대국으로 변모하여 물 건너 바로 대안(對岸)에 출현하게 된다.

일본 자위대의 증강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해군 및 공군력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된 제 4차 방위력증강 5개년 계획의 총 예산은 무려 165억달러이며, 제 1차년도인 1972년도만 8천 20억원이니 전년도에 비해 19.6% 증가며 우리로서는 부러울 정도의 국방예산규모라고 하겠다. 헌법 제9조에서는 영구히 전쟁을 버리겠다고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이같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일까. 구 일본군이 남긴 군수공업의 기지예다가 전후의 기술개발 및 경제력을 보태 어 모든 현대 장비를 자국생산으로 장만하고 있다. 국토방위의 수준을 초과하여 공격능력의 고도성장까지 노리는 그 군비확장의 의도는 분명 대외정치의 배경에 군사력의 우위를 다짐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서 무방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내 여론 때문에 핵력까지는 갖추지 않고 있으나 원한다면 1년 내에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장만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3) 북괴의 전쟁 준비 …… 4대 군사노선(軍事路線)에 입각한 군사교육의 특징

북괴집단의 전쟁도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안다. 북괴가 전쟁을 걸어 올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인 제약 때문에 걸어오지 못할 것인가 하는 루의 가능성 타진은 이미 70년대 이전에 거친 과정이었고, 이제는 북괴의 전쟁도발이 기정사실로 간주되며, 그 시기만이 남아 있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김일성의 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방아쇠만 당기면 제2의 6·25가 터지게 되는 것이다.

북괴는 그만큼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오죽했으면 북괴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일본의 「미노베」라는 좌경정치인마저도 평양방문 인상에서 전시 일색(戰時一色)을 꼬집었을까—구 일본 제국주의의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니 민주태평「무드」에 도취되어 있는 전후파 20대 내지 30대층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요는 기어이 전쟁을 걸어 사생결단을 내지는 배짱이다.

김일성이 정면으로 전쟁준비를 공언한 것은 1966년 10월의 북괴 노동당 대표자 회의부터였다. 이 자리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 전 북한 지역의 요새화, 전 인민군대의 간부화, 장비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지시했다. 그 특징을 간략히 들어보면, 전 인민의 무장화는 1백 40만의 노농 적위대를 현역 수준으로 중무장하고 중·고교생의 70만 청소년을 근위대로 편성 훈련 하고 있다. 전 지역의 요새화는 주요군사시설 및 공장시설을 지하로 몰아넣고, 평양·청천강·원산을 연하는 제 2방위선과 평북 및 함북의 강계 일대에 제 3방위선을 구축해 놓았다. 전 인민군대의 간부화는 가혹할 정도의 군사훈련으로 전투기술 및 사상적 교양사업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비현대화는 1965년 5월과 1967년에 체결된 소련과의 군사원조협정에 기초를 두고 공군정예화 및 중장비 도입에 치중해 왔다.

이에 관하여 국토통일원 발행 「국토통일」지(1971. 4월호)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P 87).

-1967년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인민군 종합군사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육·해·공군 각 종목별 기동연습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북괴군의 전투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일방, 전투능력을 점검하였다 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회 이후부터는 북괴군으로 하여 금 서울·원주·강봉선 등 아군 야전군 지역을 공격하는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괴군은 지난날의 방어로부터 점차 공격위주의 훈련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최근 북괴군의 군사전략 및 전술과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중 주목해야 할 사실로써 1969년 1월 개최된 북괴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과 70년 11월 북괴 노동당 제 5차 전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25전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지형 조건하에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전술 교리 개발과 적의 중심에서 싸울 수 있는 경비병 부대의 창설을 강력 히 지시 한 바 있는데 이것은 현존 군사력의 전투능력을 계속적으로 노동당이 무장력으로 강화시킨 다음에 전면적인

남침전에 대비하는 일방, 경비병부대의 편성과 무장의 경량화 및 산악전의 중시 등으로 정규전은 물론 비정규전의 양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북괴군의 군사교육 정책의 변천과정은 방어훈련으로부터 공격훈련으로 단위부대 훈련에서 점차 대부대훈련으로,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훈련으로부터 합동연합훈련으로 그 차원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정규·비정규 양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북괴군의 편제개편 등 체제정비는 물론 더욱 더 맹렬한 교육훈련에 치중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괴군의 전쟁준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군사교육의 특징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참고 인용이 좀 길어졌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선 북괴군의 군사교육이 공격위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북괴군의 전략이 공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앞으로 북괴군의 전략을 분석 평가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면관계로 휴전 이후의 연도별 교육중점을 소상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종합평가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즉,

—북괴군은 1953년 ~ 1960년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전후 군 복구를 위한 재편단계를 삼아 전투기본훈련과 각개 및 소부대단위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1961년~1968년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투준비단계로서 신장비 도입과 아울러 교육훈련경향 역시 방어 및 공격과 특수훈련, 대규모 합동훈련 등 정규전수행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1969년 이후부터는 정규전 수행능력이 완비된 조건하에서 독자적 적화 혁명 전쟁수행능력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훈련에 주 목표를 두었다고 평가될 수가 있다.—

(4) 북괴군의 전략전환… 단기간의 속전속결을 호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괴 집단은 자주노선이 라는 용어를 자주 등장 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생기는 일은 그들이 떠벌이는 말대로 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의 국 내문제이니 여러 나라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통일문 제는 남북간의 1대 1로 해결지을 것이니, 다른 나라들은 두고만 보라는 배짱 이다. 알짜로 날도독놈이 아니면 가질 수도 없는 뱃심이다.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국가 정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 화통일의 야욕을 채워보자니 이런 식으로 어거지도 나오겠지만 실은 이 자 주노선이라는 구호 뒤에 숨은 군사전략이 전쟁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아주 단기간 내에 우리의 수도권을 군사적으로 강점 하여 기정사실화하 려는 기본전략을 꾸미고 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범위가 다시 커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북괴의 속전속결 전략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문제에 까지 논급되어야 할 것 같다.

제 2차대전 종식 후 60년대 중반기까지는 미국과 소련을 두 극(極)으로 하는 동서진영의 색도가 명확했다. 미국이 영도하는 민주진영과 소련이 주름잡는 공산진영으로 이분(二分)되어 있었던 관계로 국지분쟁을 즉각 집단적인 개입 으로 처리될 수가 있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이 그 가장 좋은 예가 된다. 민주 진영에 속하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공산침략의 위협을 받으면 민주진영 전체 에 대한 침략위협으로 간주되어 집단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다. 「유엔」의 표동향(票動向)에도 이 집체적인 공동의사가 어김없이 반영되었다.

결국 1971년의 「유엔」총회에서 중공가입이 가결되고 또 금년 2월 중순「닉슨」 미국 대통령의 북경방문이 있게 되자 세계는 3극 구조(三極構造)로 변질되었 고 견해에 따라서는 5극 구조(五極構造)로 국제관계 가 변모하게 되었다. 이 국제관계의 변질에 따라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 「유엔」의 표동 향이다. 민주진영에 속하는 군소국가나 중립노선을 걷는 군소국가의 표가 미 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게 되었다. 중공의 「유엔」가입가결도 이 표들의 모 반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진영의 강대국 간의 보조도 때로는 맞지 않게 되 었다. (다음 호에 이음)

우리군의

당면과제와 사명

김진복
〈서울신문 논설위원〉

우리의 대 북괴 대응태세 역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자주국방태세를 확고부동하게 구축 함으로써 북괴의 무력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의 어떤 간접 침략에도 이를 분 쇠할 만큼의 국민 총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최근 수년 동안 국제 정세는 급「템포」로 변화해 왔다. 2차대전 이후 세계정 치를 좌우하던 미·소 냉전체제는 60년대 후반기를 전후하여 서서히 무너지고 국제정치는 이른바 다원화 과정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간에 어떤 변화 를 가져왔는가. 서방진영에서는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공산권 내에서는 중·소 이념대립으로 소련의 종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유럽에서는 패전 국이었던 독일(서부독일)이 전후 복구를 이룩함으로써 국력을 과시하게 되었 고, 극동 아시아에서도 역시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공산권 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구라파제국은 여전히 소련의 종주권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중공의 세력이 팽창됨으로써 소련은 일대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중·소간의 이념대립으로 시작된 중·소간의 대결의식은 이념대립과정을 넘어서 무투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공의 「유엔」가입은 국제정치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약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중공은 「유엔」에서 침략자의 낙인을 받고 국제무대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으나 지금은 당당히 「유엔」의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이사회의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소련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정치 전반에 걸쳐 발언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 하여 국제정치는 미·소양극체제에서 중공을 포함한 3극체제로 이행되었다. 여기에는 일본과 구라파권을 굳이 포함하면 국제정치는 4극 내지 5극체제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전후의 유일한 국제질서였던 「알타」체제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붕괴과정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알타」체제의 붕괴는 곧 국제정치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은 두엇보다도 국가 이익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며, 세계 각국은 탈「이데올로기」의 정치기류 속에서 상호간의 집단안보 보다는 개별적인 국가 이익 추구라는 새로운 국가 철학을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탈「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세계관은 평화지향적인 해빙「무드」를 촉진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닉슨」미국 대통령의 「평화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닉슨」은 70년 그의 대통령 취임 초에 세계는 대결에서 협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초하에서 그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했었고 또 최근에는 20여년간 단절되었던 중공과의 평화협상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중공행을 실천했던 것이다. 「닉슨」의 중공행차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이 공산권과의 대결의식을 벌이고 직접적인 협상 수단으로 세계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중대시되는 것이다.

세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전쟁수단을 지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에는 반대할 바 못되나 문제는 국토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 직접 봉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이른바 분단국가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잘 알다시피 현재 지구상에서 국토가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과 월남 및 자유중국 등이다.

분단국 중 여타 만나라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우리네 경우 남북통일의 문제를 여하히 다루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분단국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여타 분단국에 비해 특수한 조건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북괴집단은 세계공산집단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며,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1950년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자행했던 전범자들이다. 그 당시는 「유엔」군의 군사개입으로 결국 북괴는 패전을 면치 못했으나 한국 휴전이 성립된 이후 그들은 재차 남침할 것을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왔다. 결국 그들은 70년을 기하여 적화통일에 필요한 모든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괴 김 일성은 70년 11월에 있었던 5차 전당대회 석상에서 북한인민들은 모두 총을 쏠 수 있게 되었고 또 전체인민은 모두 어깨에 총을 걸머지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한 마디로 북괴는 남침을 위해 모든 전쟁준비를 완료했다는 폭탄적 선언임에 틀림이 없다. 북괴는 소위 4대군사 노선(전국요새화, 전인민 무장화, 장비 현대화, 군의 간부화 등)에 입각하여 모든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남침전쟁의 결정적 시기포착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괴 집단을 상대로 평화이고 협상이고 간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3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우리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국토통일이 평화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한 마디로 환상에 불과하다. 가령 한국에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북괴가 적화무력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즉각 온갖 무력 도발과 간접침략을 중지하는 길 밖에 없다. 또한 북괴의 무력 도발과 무력 남침기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일련의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북괴와의 여하한 평화협상도 진행할 수가 없다.

북괴는 작년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 응한 직후에도 수 없이 간첩을 남파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서 무력충돌을 자행한 자들이다. 설사 북괴가 여하한 평화통일 방안을 제안해 오더라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침략전쟁체제를 해체하고 또 그것이 확인된 연후가 아니면 도저히 그들과는 안심하고 협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는 한 마디로 묘하게 얽혀 있다. 본시 한국의 남북분단은 강대국간의 냉전의 소산이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삼아 38 도선을 경계선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었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했던 것이다.

만약 그 당시 미·소양국이 서로 냉전을 피지만 않았던들 한반도의 통일 정부수립은 가능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결의에 입각한 유일 합법정부로 세계가 신임하고 있으나 북쪽의 김 일성집단은 불법집단인 동시에 침략집단으로 낙인을 받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세력각축은 미·소 양국 군대의 한국진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반도의 강대국 세력균형을 설명함에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고찰과 좀 더 자세한 정세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다만 북방의 3각관계와 남방의 3각관계로 도식하면 쉽게 알수있을것 같다. 즉 남한에는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축으로 미·일 방위조약을 방계로 한·미·일 3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북괴를 중심으로 북괴·중공간의 군사협정 및 북괴·소련 군사동맹 체제 등 북방 3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한반도를 에워싸고 미·일·소·중공 등 4대강국의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당초 미·소 양극체제하에 있던 국제세력균형이 미·일·소·중공 등 4극체제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특히 중공의 「유엔」가입과 미·중공간의 접근축진으로 한반도의 세력균형은 보다 새로운 사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세력균형의 재편성과정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중공은 미국세력과 대항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치를 보여주었으나 미국과 중공이 급속도로 접근함에 따라 그의 양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중공과

소련은 서로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련은 아시아영역에 있어 중공편을 떠나 일본에 접근할 기회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련은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대만의 자유중국과도 제휴할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미국과 중공의 접근 「무드」가 진행됨에 따라 북괴는 소련쪽으로 더욱 밀착하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련은 미·중공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만 해도 북괴와 월맹 등 종전에 중공과 밀착해 있던 지역을 두루 순방하여, 중공과의 이간을 꾀하고 소련과 보다 밀착할 것을 공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소련은 과거 미국이 실시했던 대중공 포위망을 방불케 할 때 중공봉쇄 「루트」를 구축하고자 일본·북괴·월맹·인도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히 정치공작을 진행해 왔다. 소련의 이같은 대중공 포위망 구축 공작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본 흔적도 없지 않다. 인도와는 군사 및 경제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으며 월맹과는 군사 협정체결까지는 몰랐어도 대량의 군사원조를 하기로 결말을 보았다. 또 소련은 일본을 희유하기 위해 얼마전에 일본·소련 외상회담을 재현시킨 바 있었다. 또 소련은 북괴 외상을 불러들여 소련·북괴 외상회담을 가진 바도 있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본의 위치설정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패전국이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대일 지원책으로 하여 지금은 세계 제 3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다. 일본은 장차 경제대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이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자 소련과 중공은 모두 대일접근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당초 정경분리원칙에서 지금은 정경불가분정책으로 점차 탈바꿈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 하여 일본은 대미일변도의 외교노선에서 크게 선회하여 지금은 다변외교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대소외교를 비롯하여 대중공외교를 진행하는 동시에 심지어 대북괴 접근책마저 쓰고 있다. 아직은 북괴와의 관계는 일본좌익세력이 주동하여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차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관계있는 4대강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피하고 현상동결을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역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실현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구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국토분단 상태가 굳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은 확고부동하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8·15선언과 저번의 대북외교 기본시책에서 명백히 제시된 바 있었다. 문제는 북괴가 적화무력 통일 노선을 버리고 현재의 남침을 위한 소위 인민해방 전쟁 체제를 모두 해체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성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북괴는 1차적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찾기 운동에서 비정치적인 교류단계로 접어들고, 이것이 원만히 진행됨으로써 끝내는 통일문제를 다룰 정치협상단계로 돌입함이 순서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남북협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한국의 평화통일은 상상할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북괴는 우리측의 평화통일 방안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 와서는 당치도 않는 평화협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평화통일 방안이란 전혀 허위날조된 위장공세에 불과한 것이며 비현실적인 조건만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 평화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측의 책임인양 허위선전을 확충하고 있다. 북괴의 통일자세가 정녕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괴 대응태세 역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자주국방태세를 확고부동하게 구축함으로써 북괴의 무력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의 어떤 간접침략에도 이를 분쇄할 만큼의 국민총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북괴는 이미 남침에 필요한 전쟁준비를 모두 끝낸바 있거니와 그들은 만약 정규전이 불가능할 때엔 비정규전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여기에 인민정권을 수립할 계 획으로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인민봉기를 책동하는 동시에 북괴의 군사력을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함이 그들의 2차적 무력통일 수법인 것이다. 북괴 김 일성 도당은 제작년 제 5차 전당대회에서 소위 인민 민주주의 폭동계획과 또 새로운 대남군사전략을 채택한 바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방식이란 남한에다 혁명요인과 혁명기지를 확보하여 반국가적 반정부의 붉은 혁명을 유발케 하는

동시에 대남 무장공비와 합세하여 정부를 파괴 음모한다는 방식이며, 새로운 대남군사전략이란 군사적인 면에서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혹은 야간적인 산악전이든 어떤 전쟁형태 이든간에 결정적 시기만 도래하면 남한을 무력침략 하겠다는 전략전술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가 이 같은 대남침략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대결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북괴는 이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또는 한·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한 전면전이 불가능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북괴의 후견인격인 중공이 미국과 접근함으로써 모종의 잠정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상하에 정규전의 전면전쟁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면 북괴는 과연 어떤 수단으로 무력 침략을 도발하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것은 북괴의 속전속결의 단기전쟁방식을 들 수 있다. 북괴의 20일전쟁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온말 이다. 또 하나 국지전의 가능성은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지전의 가능성은 작년의 「인도·파키스탄」전쟁에서 일대 충격을 받은 바 있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은 결코 타산지식이 될 수 없었다. 미국과 중공의 비호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인도군에 의해 불과 14일만에 전면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인·파전쟁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파 전쟁은 현대 「핵」전략과는 아랑곳없는 국지전의 표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과 이해대립 속에서 희생된 제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여간에 다음에 올 국지전의 가능지역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긴 하지만 현대전은 「핵」전략을 주축으로 총력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전면정규전의 경우 공군의 역할은 결전을 가능할 막중한 기능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제공권의 제패야말로 전쟁을 결판지우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피아간에 공군력 대비를 숫자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우리 측 공군력이 북괴에 비해 다소간 열세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어찌서 우리측이 공군력에 있어 북괴측에 비해 열세에 있느냐 또는 왜 그토록 되었느냐 등에 관해서는 여기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안다.

미국측의 대한 공군 전략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우리 측 공군력이 북괴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는 사실만큼은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나 혹은 정부측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긴 하나 굳이 여기서 몇 마디 부연하면 첫째는 공군력강화를 위해 국방당국은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본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 공군력증강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에 의해 지상전투에는 가급적 개입을 피하고 공군지원에 주력한다 했지만 적 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력 도발을 자행하게 될지 모를 위급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타력에 의한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한다는 것은 아무리 모르는 소견 일지라도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장비 정도까지는 우리측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 공군 장병의 사명감의 고양이다. 군인치고 국방의식과 국토방위에 임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박약할 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겠으나 공군의 역할이 현대전에서 막중함을 가일층 자각하고 이에 맞먹는 사명감의 고취 선양이 바람직하다. 약간의 장비 부족과 시설미비를 구실삼아 추후의 열등 의식이나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록 장비부족과 시설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신력으로 상당부분 「카버」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은 군의 기강을 쇠신하고 정병 주의로 임함이 필요할 줄로 안다. 그렇다고 크게 결점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몇 가지 불미로운 사례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반성하여 군기의 엄정과 사기양양 대책에 보다 주력함이 요청된다.

원칙을 말하면 군인은 이미 나라와 민족에 목숨을 바친 몸이다. 군인의 몸가짐이 일반국민에 앞서 귀감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없다. 먼저 군인은 올바른 세계관과 국가관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세계관과 국가관은 군인의 신조이며 생명이다. 국가의지를 터득하지 못한 군인은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수행의 능력도 박약할 뿐 아니라 애국애족하는 정신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어려운 고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국가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와 결의를 항상 지녀야 하는 법이다.

국민 역시 군의 발전을 위해 군을 돕고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군과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면 그 군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당면과제는 자주국방이다. 국민은 자주국방을 위해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방위산업을 일으켜 우리 손으로 무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군인에 대해서도 후고의 여념없이 힘껏 군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국방태세가 공고하게 다져졌을 때 북괴는 감히 무력남침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괴가 남침의 기회와 구실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김 일성 집단은 내무로부터 모순과 분열에 직면하여 이것을 헤쳐나갈 힘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을 겁먹은 북괴 김 일성 일당은 그 같은 모순과 내부붕괴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침의 기회를 포착하려 들 것이다. 북괴는 앞으로 당면한 비정규전을 유발할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정규전에서 실패를 거듭하면 최후의 발악으로 무모하게도 전면전쟁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군은 가일층 단결하여 맑은 바 사명과 직책완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는다.

◇ 유모어 산책 ◇

요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광고문을 내걸었다. 「이 고장은 공기가 맑고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주민 가운데 10년 동안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습니다.」 과연 예상한대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때마침 그 고장에서는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10년간 사람이라고는 죽은 적이 없다더니 저 장례식은 어떻게 된 거요?」 관광객 중의 하나가 핏대를 내어 물었다. 그러나 관광객 안내소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 「저것은 바로 장례사 주인의 장례식이랍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바람에 영업이 되지 않아 굶어 죽게 된 것이지요.」

▣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 ▣

1. 젊은이여 불평이 있는가?
2. 평생의 일감같이
3. 인생은 배움의 길
4. 생활은 작곡과 같다
5. 또 하나의 매듭
6. 참된 행복
7. 여유

명사들의 1000자 수필

젊은이여 불평이 있는가?



장 병 립
〈서울대 문리대 교수〉

젊은 사람들의 앞날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제 삼자가 보아도 예측할 수가 없으며 또 본인 자신도 그저 막연할 뿐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심리는 내마음 나도 모르게 그저 막연하게 불안할 뿐이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어디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집안이 가난하여 뜻하는 학교에도 마음대로 진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과 같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면서 자라난 젊은이의 마음은 그저 부모들을 원망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위축되고 우울해지며 비관한 나머지 염세주의에 사로잡혀 죽어버렸으면 하는 심리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이들은 영원히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서럽게 자라났는데 내가 또 자식을 낳으면

이들이 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심정에서이다.

이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을 일찍이 설정하고 이를 향하여 착실하게 꾸준히 노력하고 돌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가 4,50세 경이 되면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철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든가 또는 종처럼 일하고 상전같이 지낸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먹을 것도 어느 만큼 생겨서 살만도 하며 또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나 이미 이때에 자신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보니 역시 젊었을 때에는 좀 서러운 점은 몇몇 있었으나 역시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보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매일을 기쁜 마음으로 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산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행복의 서광이 비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민족을 위해서도 유익한 결과를 자아내고야 말 것이다.

평생의 일감같이



장리욱
〈서울대교수〉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물자를 생산하는 일터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 또 봉사가 주요임무로 되어 있는 신분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 이들은 다 귀한 일꾼들이다.

이제 이런 일꾼들이 실제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갖고 그 일과 임무에 임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를 일소시키는 것 못지않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야겠다. 가령 어느 한 일꾼이 종일 그 직장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 하나를 똑똑하게 만들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 커다란 테이블을 대하고 종일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사건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일꾼들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사회로서 입는 그 불행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일꾼 가운데는 첫째로 지금 자기 가 하고 있는 그 일감 자체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뺨이 없어

그러지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냐]하는 따위의 태도를 갖고 하루 종일 망망한 심정을 먹고 지낸다. 그 한다는 일이 차분하게 손에 잡혀 리가 없다.

다음으로는 보다 더 좋은 일감을 찾거나 혹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선하는 동안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의 발판으로 여기면서 일하는 시늉만을 하고 있는 일꾼이 있다.

일마당에 있어서 적재적소의 이상이 언제 어디서고 늘 이루어진다면 에서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인간사회의 일이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짚은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더 높고, 혹 좋은 일감을 고르고 택하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떳떳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갖고 있는 그 일감을 천시하거나 혹은 발판으로만 여기면서 그 일에 성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감이 비록 임시의 것이고 또 우리 각자의 취미, 기능, 혹 신분에 꼭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있어서만은 이것이 곧 우리가 평생동안 할 일인양 가진바 모든 능력과 정열을 여기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매일같이 일터에 임하고 보면 의외에도 보다 좋은 일감이 맡겨지고 또 보다 더 책임있는 자리로 옮겨 앉게 되기도 하는 것을 믿자.



인생은 배움의 길

이해남

<한양대 사범대학장·문학>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으로 훌륭한 「하숙생」의 질문이다. 인생은 만년의 과제! 잠깐, 잠깐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서투른 배우들!

그러나 이 중요한 질문을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던진 것처럼 「하숙생」의 대답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였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 본성을 무시한 목적같은 대답이다.

문제는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던져진 것이라는 점을 왜역지로 회피하려는가에 있다. 그것은 웃어 넘길 수도, 울어 넘길 수도, 노래 한가락으로 불러 넘길 수도 없는, 바로 살아 있는 내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각기 제 나름대로 찾지 않고서는, 한 시각의 삶도 보람을 느낄 수 없는 허비된 인생 속에 우리는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참으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남의 일처럼 흘러 듣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로써 심각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적어도 「나는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만은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본들 내 머리 속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라. 결국은 공자의 판단이 가장 타당한 것이니, 「나 일찌기 종일 먹지 않고 밤새자지 않고 생각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건, 인생은 낮 쬐는 일에서 밥먹는 일까지 일평생 안 배우고 는 못 사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 나그네 길인 동시에 배움의 길이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좋은 것 나쁜 것 안 배우고는 못사는 인생이라면, 분발하고 결심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최상의 것만 배우려는 것이 짧은 인생에 주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특히 그 과업 수행 중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칠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공자의 말은, 배움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후할 바를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생활은 작곡과 같다

오천석

<철학박사>

서양 음악은 「도」에서 「시」까지. 일곱 음으로 구성된다. 겨우 일곱 음이다. 이 음들을 오선지 위에 혹은 위에, 혹은 아래에, 혹은 길게, 혹은 짧게 배치함으로써 곡을 만든다. 이 배치 여하에 따라 슈베르트의 「보리수」같은 명곡이 나오는가 하면 항간에서 불리우다 사라지는 저속한 곡이 되기도 한다.

나는 늘 우리 생활을 작곡에 비하여 본다. 사람이 타고 나오는 본능이란 몇 가지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가져고 생을 출발한다. 이것을 바로 사용하고 못함에 따라 우리 일생을 훌륭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작곡가가 몇 가지 안 되는 음을 구사하여 좋은 곡도, 저속한 곡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도 천부적으로 받은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를 옹기 발휘시킴으로써 성공의 일생도 실패의 일생도 창조한다. 성공의 일생도 실패의 일생도 만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호적(好適)한 환경도 있고, 불행한 환경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국인이 위대하여진 것은 결코 풍부한 물질적 자원 때문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응전하는 굳은 의지와 용기가 있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생활을 너무도 험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일생이 얼마든지 있는 듯이를 아무렇게나 다루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일생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나는 이왕 불행한 몸이다」라 미리 체념하고 이를 천대하여서는 안된다. 「하늘이 주신 이 일생을 훌륭히 살아야 하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써 한 말 한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겠다.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다 성공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마치도 저명한 작곡가가 음을 잘 배치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행사하여 우리 일생을 성공시키려는 성의와 노력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기위하여 힘써 왔고 젊은 세대에 주교 싶은 말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매듭

강영수
〈대한일보 주필〉

나의 존재가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지나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한 해에서 차지할 나의 영역을 내다볼 때 자기의 가치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기 쉽게 된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과연 것처럼 무의미한 것인가 재점검하여야 할 일이다. 인간사회는 하나의 기계와도 같다. 그속에서 나 자신도 적고 크고간에 분명히 부속품의 하나다. 그 부속품으로서의 필요도는 나 자신의 하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나의 존재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게 될망정 사회에 필요한 것임에는 진정 틀림 없는 사실이다.

기계라면 그 부속품이 몇 십개가 되든 몇 백 만개가 되든 하나하나가 모조리 제 구실을 제대로 다해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다. 그 많은 부속품 가운데의 어느 하나라도 제 구실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

나의 사회에서의 존재가치도 비슷하다. 새로운 화해 「무드」의 저변에 흐르는 국제적 암운과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가 내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에 빚어질 사태를 가상적으로라도 상정해 보라. 내가 만일 항공기의 정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나, 내가 조종을 제대로 못했을 때나, 내가 지휘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들뜨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또 하나 매듭을 지어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정확하게 평정해 볼만한 일이다. 지나간 한해만 하더라도 나의 남겨 놓은 기록이 결코 초라한 것만일리가 없다.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의 구실을 다해 왔을 것이다. 또 새로운 해의 앞을 내다보더라도 내구실을 정해진 자리에서 나대로 다 할 자신이 새로이 서게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언제나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나도 제 구실을 제대로 다 하고 있다는 자신을 가진 존재로 되어야 한다.



참된 행복

김동리
〈서라벌예대 교수, 작가〉

먹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최저생활을 해결하는 일부터 생각해야 한다.

최저생활(의·식·주)을 해결하는 데는 근면과 착실이면 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무리 근면하고 착실할래야 일자리가 없고 일감이 없는데야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자리와 일감이란 것의 표준이 문제다. 일자리와 일감이란 것을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일이나, 무슨 장사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 지리산이나 태백산 기슭에 화전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는가.

다행히 도로나 도처에서 직장을 가졌거나 일감을 얻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리산이나 태백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으킨대도, 착실과

근면이면 일단 최저생활을 해결할 수는 있다. 최저생활이 해결된다면, 무리한 허영심과 야망을 버릴 일이다. 아무리 큰 부자래야 하루 세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요, 돈으로 영생을 사는 것도 아니요,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권세와 지위란 것도 그렇다. 남 위에서 어깨를 좀 채고, 호령을 좀 치고 한들 그것이 결국 어떻단 말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가꾸어진 마음이다.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고, 생각하며, 이루어진 마음이다. 신(神)을 찾으며, 자연에 젖어들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세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부침(浮沈)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자는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여유

여석기
<고대 교수>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할 때 물론 대개는 의식주(衣食住)에 관한 것을 말한다. 사는 집이나, 입는 옷, 그 밖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는데 군색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한 나라의 모든 노력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이 물질적 여유를 찾기에 급급할 때 종종 도를 지나치게 되는 수가 있다. 30평짜리 집이면 충분한데 욕심이 지나쳐서 60평짜리를, 그것이 도를 넘어서 100평짜리 저택을 갖고 싶어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를 감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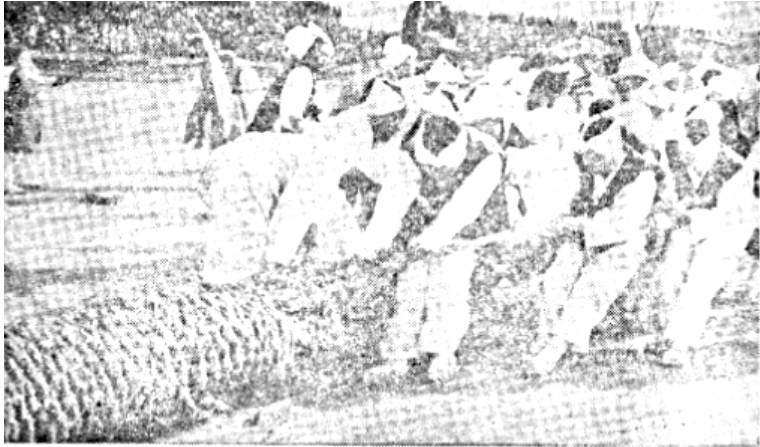
입는 옷만 해도 그렇지 않느냐? 내가 만원 주고 해 입은 옷으로 충분한데 남이 그 배를 주고 해 입었다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해 입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행이란 손쉬운 평계를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체면이다, 교제다, 뽐이다 하여 그때그때의 적절한 구실 아래 무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생활의 여유」가 지나쳐서「마음의 여유」를 잃게 된 결과라고 해야겠는데, 사람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적(二元的) 균형을 지키지 못할 때 언제나 무리와 불합리의 노예가 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불균형에 지배당하고 있는듯하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근심걱정 없게 생활의 여유를 찾는데 너무도 급급한 나머지 대개는 마음의 여유를 잃고 말았다. 사실은 올바른 여유가 「마음」쪽에 있다는 것을 깡그리 망각한 채 서로들 눈이 시뻘정계 아귀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도 제대로 되기 어렵거니와 개인의 정신위생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의 여유」란 성현(聖賢)만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두자.

<박 대통령 문언록>

- 오늘의 이 시점은 지극히 귀중한 시간이다. 1960년 대 후반기와 1970년 대 전반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귀중한 시기였다는 것을 후세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순의 낭비도 허송도 있을 수 없다.
- 현대는 상호협력의 시대이며, 상호의존의 시대이며, 상호보완의 시대이다.
- 한 나라의 부강이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나라의 성장이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자선적인 원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경제협력 관계를 우리는 발전시켜야 한다.
- 통일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있을 뿐이다.
- 우리의 통일역량의 성장은 북괴집단이 약체화되어 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을 통한 국력증강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재발견



- ...삼천리 금수강산! 5천년의 역사를 밀고 내려오는 우리의 조국이다. 옛...
- ...조상은 우리에게 빛난 유산을 남겨 주었다. 물려받은 슬기를 갈고 닦...
- ...아 새로운 한국인 상이 세계에 널리 떨칠 때 비로소 우리의 밝은 내일...
- ...은 보장될 것이다.....

■한국의 재발견■

지정학(地政學)적으로 본 한국

- 그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

정운중
<신아일보 논설위원>

1. 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아시아의 평화 내지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소련 및 일본의 3국 사이에 끼어 갇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은 한국을 둘러싼 세계정치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본은 특히 신라의 옛 시절부터 외부에의 팽창, 먼저 대륙에의 진출을 갈망하여 왜구를 이끌고 대륙침범을 계속 끝내 근래에 와서는 청·일, 노·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는 모두가 그들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의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륙세력과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노서아는 원산, 부산, 진해 등 부동항(不凍港)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구라과 방면의 진출은 열강에 포위되어 곤란하므로 항상 태평양 방면에 주목을 해왔다. 한국은 그들과 접경한 최적의 목표지가 되었음은 물론, 정치체제가 공산주의 소비에트로 바뀐 소련으로서도 같은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는 지금 중공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련과 일본의 한반도를 통한 중국대륙으로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대한 지배야욕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한국이 이들 3개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장악하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면 동해는 그들의 내호(內湖)가 되고 중국이 즉각적으로 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비극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고 중국이 겪었으며 연합국이 경험한 것처럼 다시 설명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다음에 소련의 진출을 가정한다면 당장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태평양상의 제국에게까지 위협이 될 것이니 미국의 불안은 막중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황해를 그들의 내해(內海)로 삼고 일거일본을 휩쓸려고 할 것이며 세계 도처에서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호전적인 중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를 지배케 하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한국을 지배하는 자는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것이고 이로써 세력균형이 깨지면 전쟁의 비극을 자아내게 될 것이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근세의 세계 정치가들이 이러한 점을 경시 내지 무시한 단견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제 2차 대전이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대전이 끝난 후 다시 38선이란 부자연스런 것을 미·소의 분기점으로 정하여 민족의 썩을 수 없는 불행을 초래 했고, 이로 인한 6.25의 동란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비극을 자아낸 것은 미·소가 군사분계선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지정학상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한국을 남북으로 양단하는 38선으로 정한 그 당시부터 그 원인이 싹트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휴전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 소강상태가 이루어진지 불과 반년에 동남아의 다른 분단국가인 월남에서 소련과중공의 사주(使囑)와 협조를 받은 공산당이 치열한 군사행동을 전개하여 불(佛)군을 패배시키고 말았다. 중공의 횡포와 월남정세의 악화로 아시아 전역에 불안과 고민이 감돌고 있었던 최근까지의 정세나 세계 평화기구인 유엔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형편은 그 원인의 일부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언어, 풍습, 의복, 생활양식 등이 같은 단일 민족인 우리가 남북분단의 비극을 되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불리한 자연, 특히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외세로부터 끊임없는 침범을 당해온 사실을 들어 「지정학적 위험지대」 또는 「지정학적 특수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우리나라

의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의 위치를 대체 위치(Central location)로 「중앙적 위치」(Location)로 또는 「변연 지역적 분류」하여 한국의 국제정치상의 역할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중앙적 위치」라 함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봉쇄되어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위치에 속해있는 국가를 보면 인접국에 둘러싸여 세력신장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나라 방위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의 입장은 북으로는 소련, 동으로는 일본, 서쪽엔 중국으로 형성된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중·소·일 삼개 국가가 한국을 어떻게 할·것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번갈아 다문 투쟁의 역사에 희생물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일본·중국·소련 등 세 나라가 한국에 대해 갖는 야심은 무엇인가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은 그들의 인구폭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권 확대를 꾀해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대륙으로 세력을 신장함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 및 공업자원과 그들의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게 평가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 소련의 한국에 대한 야욕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면보다는 주로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소련으로 말하면 육지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색 때문에 대양(大洋)에의 출구가 무엇보다도 아쉬운 때문에 한국을 그들의 태평양 진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다른 어느 곳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점이라고 중시해 왔다.

끝으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동생처럼 생각하는 전통적인 대 한국관에서 한국이 그들의 속국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중공이 북괴를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런 전통적 대 한국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공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일본의 중국대륙으로의 그칠 줄 모르는 침략욕을 봉쇄하고 일본이 중국대륙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들이 대륙진출을 하는 데 교량으로 삼는 한국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3국의 이해(利害) 추구 거 상충하여 발생한 것이 1894년, 1895년의 청·일 전쟁과 1904~1905년의 노·일 전쟁이었던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史實)이다.

다음 제 2차 대전에서 서의 일본 패망과

더불어 극동에 있어서의 미·소 양대세력의 대립으로 조성된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 즉 「변연지역적 위치」가 한국의 분단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전쟁에 승리한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중심으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의 대륙세력과 이 세력을 견제하려는 자유세계의 해양세력과의 사이에서 「샌드위치」격이 되어 일종의 완충지역국(緩衝地域國)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어느 국가와 국가간의 분단이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세계와 자유세계라는 세계적 단위의 분단현상으로 야기된 인위적 분단의 비극에 봉착, 오늘에 이르고있는 것이다.

3. 한국분단과 동아 4극형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극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계와 자유세계간의 세력균형으로서의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기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을 계기로 이 극동지역에 형성된 미·소·일·중공의 4극 체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이를 강국 전단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4극의 첨단에 위치한 한반도의 안보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하는 것은 미·중공간의 대화를 바라보는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여기에 한국을 재발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전략두기를 보유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이 벌써부터 짙어져 왔고, 중공이 중공업 및 군수산업의 중점건설을 뒷받침으로 핵무기를 보유, 극동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이 사이에서 한국이 그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샌드위치」격 입장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는 미·소·일·중공이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해가는 한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전쟁의 모험을 갖지 않으리라는 전망인데 미국이 전쟁을 불원(不願)한다는 국내사정과 중동이나 구주에서 더 큰 이해를 갖는 소련,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가장 잘 역이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일본이 전쟁을 수단으로 한 더 큰 이득보다는 현상고정을 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소분극 이래 그 중간에 끼어서 좌왕우왕하던 북괴집단이 「자주노선」으로 소위 66년 8월 이후의 양 후원국의 대결을 활용함으로써 군사

행동면에 상당한 「프리핸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그 발언권을 증강시킨 오늘에 있어서 북괴가 이를 믿고 오판(誤判)에 의한 전쟁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4. 미·중공 공동성명과 한국

지난 2월 21일 북경을 방문, 약 1주일동안 무려 30시간 가까이 수뇌회담을 가진 닉슨 대통령은 2월 27일 미국의 입장을 미·중공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에 관해 언급한 것을 보면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밀접한 유대와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과 「한반도에서 긴장해소와 대화의 증대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 일본과의 우호관계에 있어 최대의 중요성을 두며 현재의 밀접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다짐한 대목도 있다.

이와 반면에 중공의 입장으로서의 북괴의 지난 기년 4월 12일 자 「한반도 평화통일 8개항」을 지지하며 「언커크」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의 이와 같은 상이한 입장은 이 지역에서의 어느 일방의 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나 두 나라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묵계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 특히 닉슨 중공 방문결과를 놓고 닉슨이 아주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가 대만문제를 비롯 동남아 인지(印支)전쟁 문제 등에 현저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중공의 이른바 「평화 5원칙」을 공식으로 인정 한 점을 위시해서 대만문제를 중국인 자신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바라고 있는 것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대만 주둔군과 군사시설을 철수하겠다는 언약을 중공에 준 것으로 더욱 규지된다. 여기에 소련의 입장이라든지 일본의 경우를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 미묘한 국제정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중공과 소련간의 알력이 소련으로 하여금 미·중공 회담을 냉담하게 볼 이유인지는 몰라도 소련은 미·중공 접근을 일종의 영합으로 본 것이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대만이 중공의 일부」라는데 전적으로 찬성함으로써 냉혹한 주체정치를 실감나게 한다. 어쨌든 동아 4극 체제에 엇갈린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국제 안목을 높여야 할 점이라 하겠다.

5. 결론

이런 국제정세 하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북괴의 무력 적화

고질화된 전근대적 사고

정규웅
 <중앙일보 문화부>

통일정책을 염두하지 않고는 어떠한 명제도 정립될 수 없다. 그 대전제는 물론 국제 파워 정치면에 형성된 4극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각 어떤 원심 작용(遠心作用)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을 두게 될 것이지만 이런 작용을 북괴가 역이용할 때 한반도에 선 필연코 인류의 비극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북괴는 수년전에 벌써 무력 남침준비를 끝냈다는 정보가 입수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려 남북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괴는 무장간첩을 남파하고 휴전선과 공해(公海)상에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호전집단(好戰集團)으로 하여금 침략도발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강대국들이 보장할 수 있느냐하면 이것도 의문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최소한의 자위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내세운다. 공격적인 수단으로서의 군비확장이 아니라 방위수단으로서의 국방력을 비축하고 북괴를 능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일이야 말로 머지않아 예상되는 미군 철수 등으로 야기될 이 지역「힘의 공백」을 메꾸는 지상의 과제이다.

국방력 신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치의 안정이요, 경제의 부강이며 이를 향한 국민총력의 집결이 아닐 수 없다. 국가 비상사태선언이 그런 국민총화의 안보체제를 굳히기 위한 자위본능(自衛本能)에서 나온 조처라면 그 실천과정에서 제 1차적으로 고려할 문제도 대 북괴 침략야욕을 봉쇄하는 국력신장이다.

우리의 민주역량은 어떠한 외부 정세의 격변에도 당황하지 않을 강인한 의지력과 용기를 갖고 있다. 어떠한 시련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주와 자조의 힘을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강국전단에 의해 농락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국가 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거듭 주장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이 아주에서 후퇴하리라는 것을 가상하고 소련이나 일본, 그리고 중공의 입김이 한반도에 거세게 진출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전보장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개입한 다거나 소련이나 중공의 군사적 압력이 북괴를 통해 직결된다면 한국은 다시한번 1894년 이래 1905년도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 체제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질서 속의 동북아를 항구적인 안녕과 평화에로 지속시키는 우리 외교진의 노력은 아무리 촉구되어도 지나칠 수 없다.

한 국가를 하나의 건물로 생각한다면 국민은 그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셈이다.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라는 건물의 한층 흙일 수도 있고 한 개의 벽돌일 수도 있고 또 한 토막의 나무조각 일 수도 있다.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시공자의 우수한 기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건물을 구성하는 한 개 한 개의 요소가 결함이 없어야 하며 강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만약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결함있는 요소가 그 건물에 포함된다면 완성된 그 건물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도 먼 장래를 생각할 때 불안감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와 한 개의 건물을 이처럼 단순한 객관적 비교로 끝내 버릴 수 없는 까닭은 국가의 구성체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식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식의 가변성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사회도 치욕의 역사만 되풀이하지는 않으며 반년 영광의 역사만 계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치욕의 역사를 만드는 인간의 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몸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전근대사회에로 줄달음질치는 것이다.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개념이란 단순한 의식구조, 즉 전통적, 봉쇄적 사회질서 하에 매몰돼 있는 개인의 의식구조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한없이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세계 조류로부터 역행시킴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이른바 「숙명론(宿命論)」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체념

하는 버릇이 뿌리깊이 박히기 시작했고 오늘날 그 버릇은 고질화 되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만, 불가사의하고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상 여러 번 있었던 외세의 침략도 우리 민족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며,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도 숙명이라는 것이다.

이 숙명론적 사고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의 문화적 역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종교의 문화적 기능이 우리 인류문화에 끼친 공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종교의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힘은 인간-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은 종교의 한 시련으로 생각하게끔 해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종교적 신앙에서 파생된 숙명론적 사고방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적 기능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사머니즘”을 퇴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사머니즘”이 종교의 발전과 함께 현대사회까지 발전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인간 의식구조의 여러가지 결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학교입학에, 사업에, 심지어는 국회의원 입후보에 우리는 늘 작명소, 점술가, 무당집이 성시를 이루는 것을 본다. 잘 되고 잘못되는 모든 것, 행복과 불행이 모두 숙명이며, 그 숙명을 미리 알아내자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의 소치다. 우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할 때 이 숙명론은 그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많은 불건전하며 퇴폐적인 사고 방식이 여기서 파생된다. 생각하기 쉬운 예로써 요즘 젊은이들의 뿔대 로 댄라는 식의 퇴폐적인 행위도 말하자면 예로부터의 숙명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인가.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과는 다르지만 그 숙명론적인 믿음은 우리의 사회발전에, 국가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믿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 자신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며 우리 자신 스스로의 신념을 따름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은 바로 우리와 장래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맡기려는 의존심 일 수밖에 없다.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지나친 폐쇄의식이라든가 그와 상반되는 무분별한 외래 풍물의 도입, 모방의식도 말하자면

숙명론의 범주로 볼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가 앞서 말한 숙명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라는 데서 공통점을 갖지만 시대감각을 앞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소 다르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인접국가에 의해 고난의 시대를 되풀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외국으로부터의 분을 단아버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조말기 대원군 집정시에 피크를 이루었던 폐쇄주의사상이 근래에 이르러 갑자기 고개를 쳐드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피지기 백전백승」(知被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인용해 볼 때 상대방을 알기 위해 우리의 문을 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근대적 사고방식과는 다소 개념을 달리하지만 상대방을 알기 위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엇이든 외국의 풍물을 받아들여려는 행위도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창조와 모방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창조의 기능은 실사 그것 자체로서 결합이 많고 완전한 것이 못되더라도 모방의 기능보다는 한걸음 앞서가는 것이다. 일본 민족을 모방에 능한 민족이라고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경이의 시선은 보낼 수 있을망정 존경할 수는 없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폐쇄의식이나 개방의 식이나 실상 모두 전근대적인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열등감은 곧 근대화의 시행착오와 직결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관조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불신, 안일, 부정, 퇴폐 등 검은 단어들로서 얼룩져 있음을 본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사회제도의 결합과 모순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회의 구성체인 우리 모두의 의식구조에 어떤 결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합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가치관을 전도시킨다. 어느 사회든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생활규범이 질서를 잃고 도덕 체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말하자면 사회가 불신, 안일, 부정, 퇴폐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회의 분위기를 흐려놓는데 있다.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불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크게 양분하면 그 하나는 개인적인 사생활—가정생활—이며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의 사회생활이

다. 가정생활이 가정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각 개인의 가정 생활은 사회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사회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의 습관은 가정생활에서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민의 가정생활은 사회발전, 아니면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보탬이 될만한 생활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정생활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나」를 중심으로 한 관념으로 철저히 이어져왔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가정생활에서의 전통적 관념은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나라의 중추적 분야를 불순하게 해왔다.

이기심. 이것은 가정 생활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우리 국민의 고질적인 의식이다. 물론 우리 국민 전체의 보편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이기심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극히 사소한 일일지는 몰라도 쓰레기나 소음 따위의 문제로 이웃간에 시비가 벌어진다거나 하찮은 일로 해서 가족간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 누구든지 회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 걸음의 양보로 화목스런 가정, 화목스런 이웃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차 이기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늘 검은 구름에 뒤덮이게 마련이고 이러한 가정생활은 사회생활에도 연장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어른들의 분위기이다. 이기가 가득찬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은 이기심일 수밖에 없다.

가정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습 내지 관습의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 나는 일이다. 특히 관혼상제례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관습은 옛날부터 우리의 가정생활을 멍들게 해왔다. 물론 관혼상제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관습 때문에 한 가정의 기둥이 뿔하고 내일의 생활근거가 쑥밭이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해온 어린이는 이후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그의 사회생활에서 그러한 관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장래를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맡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굿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가정에서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사회 생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

게 마련이다. 사회가 발전으로부터 역하는 것이 조직이나 법률의 탓으로 들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나 법률이 인간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전근대적인 의식의 소유자라면 그것처럼 불안전한 요소는 더 없을 것이다. 말로는 근대화된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사고가 전근대적이라면 그 사회는 근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근대사회란 전 국민의 일치된 의식구조의 혁명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한 귀퉁이의 결함이 있어도 이상적인 근대화 사회는 건설될 수 없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정신 혁명이다. 국민 각자의 의식구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혁명을 겪지 않고는 이상적인 근대사회건설을 바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를 중요시 해왔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다. 과거의 쓰라린 상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와 미래에 바탕을 둔 과거의 중요성이지만 과거 자체로서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과거만을 중요시 하고 현재와 미래를 외면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대가란 세계 사회에서의 고립이며 세계조류로부터의 역행일 따름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 굳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세련된 사고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혁명을 겪지 않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계속한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위기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로서 중요한 일은 지나간 역사를 귀감으로 삼으면서 위대한 선인들의 업적을 긍정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데서 그쳐야 한다. 어느 학자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은근과 끈기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다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지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하루마빠 탈피하는 일이다.

여기서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여기서 새로운 한국인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어떤 난관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 대변되는 새로운 한국인상이 세계에 널리 떨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밝은 내일을 점칠 수 있는 것이다.

사적(史的)으로 본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새로운 민족정신

이상현

I

민족성이란 무엇인가? 과연 민족이라는 집합명사로 표현되는 집단 속에 정신 또는 일정한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특수성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韓)민족의 민족성은 어떠한 것인가? 헤겔(Hegel)의 말을 빌리면, 민족성이란, 역사의 각 단계를 대표하는 민족의 정신적 원리, 또는 시대(時代) 및 민족의 역사를 지배하며 문화의 특색을 규정하는 요소(要素)를 말한다. 따라서 세계 역사의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한, 그 지역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일반적 성격, 정신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계사는 인류의 창조 활동에 의하여 이룩되며, 민족사는 어떤 특수 민족의 창조적(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런데 인류나 민족은 개개인의 집합체이므로 세계사나 민족사가 지니는 특수적 정신, 또는 성질은 그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정신, 성격의 집합체 및 그들 상호관계 속에서 나오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개인의 정신 및 민족성을 규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II.

A· 토인비는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법칙을 역사학에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이 인성(人性)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정하여 문화(文化) 및 문명(文明)의 특수성을 구별하였다. 또 일찌기 몽테스큐는 민족성 형성과 자연환경을 밀접히 연관시킴으로써, 자연환경의 유형(類型)에 따라, 민족성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면 자연환경이 일방적으로 인성(人性) 및 민족성을 결정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독일의 생의 철학자 W·딜 타이는 「역사적 세계는 객관적 필연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無數)한 점(인간)에서, 자유라는 섬광이 발휘되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여 객관적 필연성이라는 환경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환경은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경을 변개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자연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문화적 환경이다. 그런데 역사적-문화적 환경은 궁극적으로 자연적 환경에 그 근원(根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經過)에 따라서 많은 단계를 지니게 된다. 즉 한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은 그 이전시대의 환경에다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창의력을 가미(加味)하여 변개(變改)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미(加味), 변개(變改)의 연속적인 누적은 역사의 발전이며 동시에 전통(傳統)이다. 이러한 역사발전과 전통의 확립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는 발전되고 사회는 확대되어 왔다. 그리하여 시간적으로 수천 혹은 수만년 전으로 소급해가면 인류가 생활하는 환경은 보다 자연상태에 가까워지고 역(逆)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연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거로 갈수록 인성(人性) 및 민족성은 자연 환경에 의하여 받는 영향이 커질 것이며, 현재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역사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과거로 소급할수록 문화의 유형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현재로 올수록 그 수가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印性) 및 민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認識)을 위해서는 지리학적이고 역사학적 또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성질상 그와 같은 깊은 연구의 경지에까지 미치는 일은 피하고, 다만 우리 한(韓)민족의 민족성의 특징이 어떤 것이며, 현재의 우리가 반성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점으로 약술하는데 그치겠다.

III

한국의 자연적 환경은 추가령 지구대를 경계로 대체로 남방과 북방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남방은 「도전(挑戰)」이 없는 지방이고, 북방은 자연 및 인위(人爲)의 도전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태백산맥을 척추뼈로 하여, 갈비뼈처럼,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내린 산맥들로 이루어진 남방의 지리적 환경은 산맥과 산맥의 사이에 펼쳐진 좁은 계곡에서 소규모의 농경 생활을 영위하여 자급자족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특히 전형적인 아시아 모순적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사계절(四季節)이 뚜렷하고 우기(雨期)와 건기(乾期)가 농사짓기에 아주 적당하다.

때문에 황하강 유역의 주민들처럼 불시에 홍수(洪水)로 재산, 생명의 피해도 별로 없고 인도 앞삼지방의 주민들처럼, 혹서(酷暑)로 인한 염세적 기풍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들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약속된 비가 약속된 시기에 약속된 양(量)만큼 내리도록 기원(祈願)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담겨 있는 호리병과도 같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지방에서 강력한 부족집단의 약탈의 영향도 별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해서 북방지역은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간지방으로서 남방 지역처럼, 목가적이고 평화스런 농경생활은 불가능하였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남방과 같은 천혜(天惠)를 입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오로지 그들 자신의 투지 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만주지방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군웅(群雄)에 의한 외래 세력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들의 성품을 전투적이고 상무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원천적으로 조성된 한국민족의 성격에는 자연적으로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하나는 남방적인 기질로서, 사행심(射倖心)에 근거하는 안이무사주의(安易無事主義)적 요소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과 투쟁하기 위해서 또 투쟁과정에서 조성된 상무적(尙武的)이고 호전적(好戰的)인 요소이다. 전자는 또 지리적 분단성과 소규모성에 근거하는 개인주의적 요소, 즉 평화적, 낙천적, 보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후에 사대주의 정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서 후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 기상을 지니고 있어서, 사대주의에 부단히 대항하여 민족의 명맥(命脈)을 현재에 까지 이끌어 온 민족주의 정신을 형성하고 있다.

IV

이상과 같은 우리 민족성의 이면성(二面性)은 한(漢)민족의 침략에 대응하는 태도에서 우선 나타나게 된다. 철기(鐵器)와 한자(漢字)를 가지고 발달한 화려한 한(漢)문화가 반도에 전래되자, 당시 부족국가의 주장 및 상류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급은 고귀찬란(高貴燦爛)한 중화의 외관, 인수(印綬), 관복, 관대 등의 물품에 현혹되어 한(漢)민족 앞에 굴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의한 한(漢)문화의 수용(受容)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것이었다. 좀더 나아가서는 문화주체자(文化主體者)에 대한 동경(憧憬) 내지는 숭배의 염(念)까지도 지니게 되었고, 지배계급의 개인적 영화(榮華)만을 위하여 그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저버리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족국가 시대의 미개한 주장들은 중국의 정식 책봉(策封)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며 왕실과 귀족계급 사이와 관복 및 그 장식의 한화(漢化), 귀족 계급의 분묘 및 상장례(喪葬禮)의 한화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귀족 및 고위 계급자는 언어까지도 한어(漢語)를 사용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부족국가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기에도 중원(中原)의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또는 인근 국가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마다, 귀족이나 고위 계급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후자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우리 민족이 선진문화를 숭상하는 본래적 인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여 이를 미화(美化)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강력한 권력 앞에서 굴종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꾀하려는 상층계급의 아세주의(阿世主義)가 생겨 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주의적 요소가 언 제나 한국 민족사를 지배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각 시대의 지배계급은 부귀 영화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무상하게 흐트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도 또한 민족사 내에서 항시 승(勝)한 요소로 군림하지 못하고 멸(滅)했다. 한(漢)민족에 대하여 굴종적이고 평화적인 협조를 통하여 그들로부터 받아들인 비창의적인 문화생활·사치생활, 퇴폐적 낭비 생활은 부여(夫餘)나 예맥(濊貊)족의 기상(氣象)을 꺾어 버리고 오히려 야만스럽고 투쟁적인 고구려의 강성과 더불어, 그 명맥조차도 역사의 판도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되게 하였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맹목적인 동경과 숭배의 이념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에 반해서 선진문화에 대하여 무조건적 적대적식을 가지고 대하는 입장 그리고 주체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화 시켜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중 세째번 태도, 즉 외래문화를 자기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민족은 외국 권력의 침략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민족의 주체적 세력을 형성한다. 한(漢)민족의 침략은 부여족이나 예맥족에게는 그 부족(部族) 자체를 역사상에서 잠적시켜 버리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고구려 부족에게는 그 반대였다. 협소한 동가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심산대곡(深山大谷)으로 되어 있는 지리적 환경에서 기근(饑饉)과 외적(外敵)을 상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고구려 부족은 그들의 상무적이고,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기질로써 한(漢)민족의 정치적 문화적 지배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한국 민족성의 일면을 형성하였다. 부여, 동예 등의 부족국가가 한(漢)문화에 융화되어 흔적을 감추고

있을 무렵, 고구려는 한(漢)족을 반도에서 몰아내고 한(韓)민족에 의한 최초의 국가를 성립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한(韓)민족의 흉중(胸中)에는 민족주의의식이 정립(定立)되었으며 이로부터 안이무사주의(安易無事主義)에 근거하는 사대사상(事大思想)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사상이 성립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우리 민족사의 내부에는 사대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의 두 갈래 흐름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전자는 고구려의 강성(强盛)을 이루었고, 이에 자극된 백제, 신라의 국가 성립을 초래하여 삼국의 정립(鼎立)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 백제가 당(唐)나라 세력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에는 대체로 사회의 저변(底邊)으로 스며 들어 피지배 계급인 민중의 정신을 통해서 마치 지하수와 도같이 우리 민족의 내부로 맥맥히 흘러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고려 시대의 몽고란(蒙古亂)이라든가, 이조 시대의 임진란(壬辰亂) 등의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 올 적마다, 이 요소는 민족의 불기로서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 민족의 생명을 일깨우고, 민족사의 면면한 지속을 가능케하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후자는 김 춘추(金春秋)가 당(唐)나라의 세력을 빌어다가 이른바 삼국을 통일한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사의 표면에 등장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민족의 대부분 상류 지배층으로 하여금 외국의 강력한 세력만을 등에 지고 있으면 국내에 있어서 여하한 부귀영화(富貴榮華)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외세편향적(外勢偏向的) 기풍이 생겨 마치 해바라기가 맹목적으로 태양을 따라 얼굴을 돌리다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버리 면, 따라서 땅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음에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것처럼 스스로 태양과 같은 세력이 되려는 노력이나 그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기르려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신라의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였었다 해도, 우리민족 자체 속에서 그 무엇인가 독창적 사상이나 문물을 창안해 내는 반면 당(唐)나라에 유학을 한 자라야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자가 원효(元曉)다.

또 고려시대에 문치호문주의(文治好文主義)를 표방했어도 문(文)의 진면목(眞面目)을 갈파하여 독창적이고 고매한 학리(學理)가 나온 것이 별로 없고, 오로지 학문이라는 것이 출세의 수단인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를 위한 준비기관 만이 기형적으로 발달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일단 출세를 한 자들은 학문세계와는 거리가 자연 멀어지게 됐다.

이조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짙어지게 되어

스스로 중국의 종속국가임을 자인(自認)하고도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한국 민족의 인성(人性) 및 민족성이 현실적으로 되었으며, 이것은 오로지 개인의 현세적(現世的)인 안이(安易)가 그들의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아(大我)를 위한 희생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괴로운 진실성(眞實性)에의 추구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관(價値觀)에 의한 생활은 이기적(利己的)이고 근시안적(近視眼的) 현세주의자적인 것인 고로 그들의 눈은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현재를 보게되고, 그들의 마음은 넓은 외계(外界)로의 진출 의욕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질시 및 질투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미래의 민족사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종래에 외세편향적(外勢偏向的)이고 무사안이주의적(無事安易主義的)인 가치관을 청산하고, 민족의 주체적이고, 투쟁적인 가치관을 민족사 속에서 재발굴(再發掘)함으로써 대아(大我)를 위하여 혼쾌히 죽을 수 있는 민족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박 대통령 문언록>

여러분의 자기발전과 공군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비무환의 철통같은 방위력을 구축하는 것이 되며 또한 전쟁 역지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조국 근대화를 향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함으로써 민족의 번영을 지키는 것이 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사명은 막중하며 그 영광 또한 큰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국의 영광과 더불어 여러분의 앞날이 길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공사 제 20기 사관생도 졸업식 유시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

- 한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사명 -

서정욱
<전우신문 편집실장>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나은 살림을 꾸며보자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

옛날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만 지고 먹고 산다는 때는 지났다.

모든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알찬 내일을 향해 경제성장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5·16혁명 후 가난에서의 탈피, 후진국에서의 도약을 위해 1, 2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까지 그 계획을 초과 달성, 눈부신 성장을 했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우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의 7%를 훨씬 초과한 11.4%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였고, 제조업 성장에서는 19.1%로 세계 제1위였다.

이제 3차 계획을 세우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의 살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계획이 완수된 뒤에는 또 어떠한 사회가 이룩되는가를 알아보자.

작년도 1인당 GNP 9만 7천 7백 32원꼴

우선 여기서 지난해의 국민 총생산 (GNP)을 보면 실질 성장률은 10.2%로서 이는 총자원예산(ORB)상의 10%보다는 0.2%, 70년 GNP 성장률 8.9%보다는 1.3%가 각각 높아진 것이다.

GNP 총액은 65년 불변시장 가격으로 1조 5천 6백 69억원, 경정시장 가격으로 3조 1천 1백 29억원에 달해 연간 물가 등귀를 제거한 실질 성장률은 10.2%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GNP는 9만 7천 7백 32원으로 70년의 8만 1천 2백 95원보다 1만 6천 4백 37원이 증가했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백 23「달러」에서 2백 53「달러」로 늘어 난 셈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기저가 공업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년의 국민 총생산고의 성장 특징을 보면, 첫째로 수출수요 증대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19.1%)이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농업, 어업 부문이 미곡 증산과 원양어업 신장에 따라 70년도의 성장에서 2.5% 실질 성장으로 발전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농업부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반면에는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고 시정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순과 애로를 타개해 가면서 2차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작년 GNP 주요 지표의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70년도분).

- △ 농업 어업부문 = 2.5%(0.8%)
- △ 비 농업 어업 = 12.8%(12.7%)
- △ 제조업 = 19.1%(17.9%)
- △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 9.6%(9.9%)
- △ 1인당 GNP= 9만 7천 7백 32원(8만 1천 2백 95원)
- △ 총 투자율 = 25.2%(28%)
- △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5.2%(2.2%)
- △ 총 소비증가율 = 11.2%(10.6%)
- △ 총 수출증가율 = 17.6%(19.8%)
- △ 상품수출 = 28.1%(34%)
- △ 총 수입증가율 = 20%(12.2%)
- △ 조세 부담률 = 15.2%(16.6%)

이러한 성장은 우리들의 생활을 70년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성장률을 토대로 새해를 힘차게 내딛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의 번영은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의 윤택을 말해 주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0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 검소하고 실질적인 생활로 기름진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하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온 국민의 생활을 보다 기름지게 하고 발전의 소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안전성장으로 자립 자급자족 위해 총력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경제계획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1, 2차의 5개년 경제계획을 완수함에 있어 새로운 자신과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뭉쳐서 부지런히 일하면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또 그 소중한 경험과 시련의 극복은 내 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계획의 변경에서 오는 예상 이외의 어려운 고비도 넘겨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경험은 이제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때문에 이 3차의 계획을 무리한 욕심 대신, 차분하고 완전한 목표 달성과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욕을 버리고 국민경제의 안전성장으로 국민 모두의 생활이 건전하게 발전되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3차 5개년계획의 바탕을 본다면 첫째로 안전성장으로 균형된 조화를 추구하는데 있고,

둘째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국제 수지면을 개선하는 한편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해야 하며,

셋째로 농촌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4대강 유역 개발과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 도로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룩해 보자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사실 힘에 겨운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토대로 착실한 전진을 해 보자는 것이다.

연 평균 8.6%의 경제성장 목표는 2차 때의 10.4%에 비한다면 누그러진 것이겠지만 외국에 비해 본다면 높은 성장률이다.

국제수지 개선으로 농촌근대화를 이룩

우리는 그동안 낙후된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남의 나라 돈을 많이 빌려 썼다.

그러나 이제 1, 2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3차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우리는 빛으로 일어난 살림에서 빚을 갚고 제 힘으로 우리 살림을 꾸미도록 하는 국제 수지개선에 역점을 뒤야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0년의 2억 4천 7백만「달러」의 적자를 76년에 가서는 도리어 7억 2천 2백만「달러」의 흑자로 면모를 바꿀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출을 10억「달러」에서 35억 1천만「달러」로 근 4배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출상품의 구조도 값비싼 공산품이 중심이 되어(그 비중을 90.4%) 있다.

이에 병행하여 농산품의 증수에 있어서는 쌀을 3백 93만 9천톤에서 4백 86만 톤으로 늘려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아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축산에 있어서는 젖소도 2배가 넘는 5만 9천마리, 쇠고기도 지금의 2배인 6만 4천톤, 우유는 3배에 가까운 11만 4천톤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새해 들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는 모두가 이러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의 단합과 근면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완성을 보고 농경(農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경지정리도 3차년에 들어와서는 전 농토의 75%를 완성할 예정이다.

농지정리로서 큰 마을엔 모두 화물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고, 또 농기구는 기계화되고 가뭄 없는 전천후 농토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통일 벼』의 보급으로 그 수확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서광에 찬 농촌의 내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70년의 3배가 넘는 9천여개 마을에 전화가 들어갈게 하고 전기는 27%에서 70.3%가 전등불을 켜도록 할 계획이다.

거기마다 초가지붕을 기와로 개량하고 상수도시설도 적극 권장 지원할 예정인 것이다.

농·공의 병행 개발에 따른 것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특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중앙, 태백, 영동선(394km)의 전철화와 수도권의 지하철 및 전철화 사업이다.

자기 임무관수로 부국강국의 대열로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우리 국민들에게 내일의 번영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좌표를 마련해 준 것이다.

공군장병 여러분은 이 나라의 영광을 지킨다는 국가 최일선에서 가장 크고 보람된 임무를 맡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는 하늘의 안정 없이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현대의 국가 안정은 하늘의 안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자기 책임관수야말로 조국번영에 이바지하는 가장 큰 공헌이라 아니 할 수 없으리라.

기지에서, 정비창에서 또는 격납고에서 또는 애기(愛機)결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를 완전무결하게 수행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지만 나아가서는 그것이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첨경인 것이다.

튼튼한 울타리 없이는 생산도 없고 발전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공군장병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 자기의 책임을 1백%완수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여러분은 국민중의 국민이요, 군인중의 군인이라고 자부할 때 이 민족의 핵(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에 살이 민족의 중추신경이요, 조국의 근간(根幹)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흔히 군문에서 민족의 핵으로 일하는 군인들을 『민족의 방패』나 『조국의 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만큼 기대되는 세대요 또 조국변영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일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 아니면 퇴보, 멸망의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머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오늘의 조국의 모습을 바탕으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총 진군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온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겠다.

그것이 보다 보람된 내일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실 온 국민이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고 우리 주변의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때 국민의 단결은 그만큼 축성될 것이다.

국민 단결의 축성은 보다 나은 사회건설에 진일보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단결이 조속하여 자기 임무 수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복지 사회건설이 그만큼 앞당겨질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또 그때의 우리 국력도 그만큼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총력안보 체제를 다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나 비방, 그리고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 행위인 것이다.

적어도 3차 5개년 계획이 완수되는 76년대의 조국의 청사진을 볼 때 우리는 벽찬 가슴을 억누르며 설레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실은 우리 각자의 성실과 자기 맡은 책임을 다 하는데서 만이 이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온 국민의 부강을 말하는 것이요, 또 조국의 변영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내 자신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자.

특집 좌담회

— 제2전력이란 무엇인가? —



제2전력은 사명식이 투철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생산적인 개개의 단위와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체제의 총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이룩된다. 따라서 기존개념상의 “표준성과”에 만족함이 아니라 “최대성과”를 추구하는 데서만이 기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2전력은 군사력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나 특히 한국의 여건과 자주국방에 있어서의 공군의 특성에 입각해서 공군에서는 각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참석자: 유 기 원 대령
김 근 전 대령
현 병 민 대령
김 준 택 중령
사 회: 김 원 기 중령
때 : 1972년 4월 3일
곳 : 공본제2전력위원회

사 회: 근래에 와서 제 2전력이라는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2전력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장병들에게 이 제 2전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2전력 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대령님께서 제 2전력의 개념, 즉 제 2전력이란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 제 2전력의 뜻

유대령: 공군 전력구성에 있어서의 무형적인 요소의 총체를 제 2전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력을 장비, 시설, 물자 등 유형적인 것과 정신, 기술, 체제 등 무형적인 기능이 하나가 된 것으로 보고 무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 2전력 개발의 목적입니다. 유형적인 물량의 증가는 외적 요인으로 제한을 받습니다만 이 유형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로 일정한 한계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2전력을 정신전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전력이라 하면 너무 협의의 개념이 되어 제 2전력이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군은 과도의 기술군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다시 말해서 정신자세가 확립된 군인에다가 전문화된 기술을 지닌 군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렇게 개개의 군인들이 정예화되어도 이를 총체로 결속하여 전력으로 발휘하는 체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체로 결속하는 체제는 제도나 환경, 인간관계 등 기본적인 요소의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전력구성에 있어서의 모든 기능을 제 2전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 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정신전력을 우리 공군에서 왜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 대령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왜 우리는 제 2 전력개발을 서두는가

현대령: 우리 공군은 창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주로 기구확장과 장비개편 등 외형적인 요소를 갖추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있어 서의 승패는 현대화된 장비와 무기 또한 방대한 조직력만으로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장병들의 내적인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군의 경우 자주국방이라는 지상과업 완수를 위해 내질적인 증강으로 정책전환을 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군력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육군에서는 인각관계 위원회라든가 승전운동 등 정신무장강화를 위한 작업이 일찍이 진행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앞에 서 말씀드렸다고 외형적인 요소를 갖추는데 주력한 나머지 내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 내질적인 요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작업과정에 돌입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령: 지금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하에 있습니다. 공군은 국가 정책 수행 상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력의 증강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물량의 증가는 제한 요소가 많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 2전력을 개발함으로써 전력의 극대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변경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력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가치체계에 변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 회: 우리의 임무와 정신전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교육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대령: 우리의 임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승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지요. 하나는 무기체제를 개발해야 하는 물적 요소와 또 하나는 이 무기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인적요소, 다시 말하면 모든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의 바탕, 마음가짐 등을 어떻게 형성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며 조직체를 어떻게 끌고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우리 공군에도 제 2전력 연구위원회가 결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인간적인 바탕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2전력,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관을 새로이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기체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 바탕을 봉사정신에 두어야 비로소 모든 무기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군대에 필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임무의 완수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바탕이 자기희생을 수반하는 봉사정신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 회: 대개 제 2전력 개발의 목표는 그 설정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일이고 이 목표를 이룩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것을 유대령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제 2전력 개발의 목표

유대령: 우선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사명감을 자각시켜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적 공민교육을 받은 공군 병원(兵員)들은 자아의식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주입식이나 암기식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개인성향분석에 의한 과학적이고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전문화된 기술 병으로써 육성하기 위한 특기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정예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공군의 지휘통솔·군기강·병영생활·인사관리 등을 새로운 가치관에서 들여다보고 저해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가치관을 단시일에 변혁시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요. 더우기 정신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심층의식구조에 속하는 것이므로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집중될 때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현대령: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문제 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전개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무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투철한 신념으로 일에 임한다 하는 것이겠는데 그 신념의 원천이란 것이 과연 어디다 뿌리를 박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생을 취하되 비겁한 생을 취하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사생관,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멸사봉공한다는 생활신조, 그리고 적에 강하고 아예 부드럽다는 세계관,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이 서너 가지의 철학은 역시 각 개개인의 인격, 품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품성이라는 것은 유년기에 이미 형성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심층은 변경하기가 어려워도 표층에 대한 형태변경은 어느 정도까지 용이하다고 볼 때 명령을 하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 그 분위기에 동화 되도록 하는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 회: 지금 현 대령님께서 표층과 심층 두 가지 얘기로 나누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면적인 심층에 들어있는 인간의 잠재요소는 아까 유대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국민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신념 같은 것, 교육의 방향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김대령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김대령: 제가 가끔 비방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어찌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느냐, 교육기간이 도대체 몇주냐 하는거죠. 물론 교육과정을 설정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인격형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뤄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소정의 교육을 끝마친 후 실무부대에 배속이 된 연후에 있어서도 교육의 연쇄성을 생각하고 각급 지휘관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각 개개체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닫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새로운 교육방향의 포착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명세적이요 총체적인 면에서 반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 회: 우리 공군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인적인 요소에 대한 선병문제가 상당히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 우리 공군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선병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김중령님 말씀해 주실까요?

김중령: 병역의무의 중요성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공군의 현실적인 병역행정의 체제는 오랜기간 역경을 거쳐 성취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선병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큰 과제로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공군의 경우 선병과정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체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대 동기가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교육과정에서 훈련이 타군보다 용이하다든가 또

일상적인 군생활이 비교적 편하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공군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군은 과학의 첨단을 걷는다고 자처하는 기술군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복무자세 역시 선발됐다는 자부와 보람으로 일관되어야 하는데 공군 장비의 입대 동기가 먼저 얘기한 그런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과연 공군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맞 사람이나 있느냐고 반문했을 적에 신념 있게 답변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 공군의 선병제도하에서 이 사람들을 바람직하게 이끌고 나가는 방편이란 것은 군인생활을 통하여 이들에게 사명 의식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생활화 될 수 있게끔 관습화시키는 이러한 체제와 관리자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휘관급에 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공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공군의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케 하고, 이 사람들이 공군을 나갈 때는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일원이라는 사명 의식 속에서 생활화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회: 그러면 다음 과제로서 이 정신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대령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제 2전력 개발의 연구방향

김대령: 첫째는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정확한 인식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계몽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군대 조직체인 개개인의 자기 충실을 어떻게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자기의 충실성, 자기의 향상, 자기의 개발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군대생활이 인생의 한 공백 기간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을 때는 전력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군대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부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번째는 군기를 쇠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기가 군대의 명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지만 군대의 기강을 쇠신하고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문제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각 개개인의 사명감 자각, 둘째 각 개개인이 주어진 자기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 셋째는 군기확립 이런 방향으로 제 2전력의 연구방향이 설정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그러면 제 2전력개발 연구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있는지 유대령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까요?

유대령: 우선 구체적인 과제를 말하기 전에 과제 설정과정을 말하죠. 위원회에서는 공군의 제 2전력개발을 위한 상황분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분석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 시정책은 어디까지나 전력극대화를 위한 것이라야 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실질적인 가치관에 기초를 두었으며 자주적이고 공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방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대령: 제 2전력개발위원회에서는 다뤄야 할 과제를 대체로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사명감의 자각, 그 다음에 기술향상, 지휘통솔의 혁신, 군기강의 쇠신, 인사관리의 쇠신, 그 다음에 병영생활의 체질개선, 검소한 기풍조성, 복지관리의 증진 등등으로 과제 설정하고 이 과제 하나하나에 다른 저해요소를 찾고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또 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각 분야에서 수립 실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 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현대령: 네, 인사관리면에서 하나 지적을 해볼까요. 인사관리 쇠신이라는 큰 과제하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창의력을 높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인 경력과 관록을 지양하고 실질과 능력에 치중한 인사관리가 돼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과 능력에 치중된 보임이나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무엇이나를 찾아내 그에 따르는 처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죠.

김중령: 개성적인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관습적인 생활제도를 이번 기회에 검토하고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찬성하는 바이지만 현재 그 내무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관습생활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피로감을 주는 생활분위기, 또 혹은 납득되지 않는 규율이라든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제도 속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 이런 것들이 첫째 배제돼야 하겠고 둘째로는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해 줌으로써 생활의 방해요인을 제거, 활기 있는 생활을 영위케 해서 부여돼 있는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휴가, 외출, 근무에 공평을 기한

다든가, 계급의식을 높여준다든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면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강압적이고 허세적인 태도를 타파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개성을 성장시키는 지도방법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단위별로 있는 주임상사에게 내무지도를 전달시킨다든지 내무반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정해 활동력을 부여하고 또한 새로 배속돼 오는 초임자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이해중심의 조편성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지도체계가 필요한 거죠. 또 개인의 인격적인 접촉으로써 단체활동 속에서의 협동심을 길러주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건 마련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편으로서 개개인의 취미를 조사, 부대실정에 적용할 취미활동을 하도록 조직화시켜 주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 준다든가, 기지학원을 설치해 가지고 향학열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병적적이고 형식적인 관습생활을 배제하기 위해 정신적 피로감을 주는 생활분위기를 납득할 수 있는 규율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생활의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개성을 살리고 자존심을 존중하며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해 생활의 방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활기있고 희망적인 생활을 영위케 해야 되겠다는 것이며 셋째, 창의적 개성을 성장시켜 신념 속에 자신있는 생활로서 소속에 대한 일체감을 갖도록 하며 넷째는, 창의적 개성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열등의식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격적 접촉과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 소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가선용의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섯째는, 체육활동을 일과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적극 장려하여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고 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직무에 적응화시키는 등등을 제 2전력개발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 회: 지금 김중령님께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정훈교육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정훈업무에 관련된 것을 몇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금번 비상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훈교육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체계화 했습니다. 그리고 정훈교육 요원에 대한 확보와 자질문제의 개선, 또 이제까지 하던 정신교육의 방법을 개선해서 모든 것이 전력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교육 요원의 확보와 자질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현재 육군에서 대대급에까지 정훈장교가 몇명씩 배치돼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은 비행단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정훈장교가 보임돼 있는 형편입니다.

인원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장병들에게 정 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과정을 설치해서 교육을 이수케 한다든지 수시로 있는 보수교육을 강력히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으로써 생각을 해 본 것이 내무반 단위로 하사관을 정훈교육요원으로 임명해서 특별한 교육을 거친 후에 정훈교육 요원으로 확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도방법을 개선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의 암기식·주입식인 지도 방법을 지양하고, 개개 성향분석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선도방법으로 지도방법이 개편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휘관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던 훈시식의 방법은 지양하고 소단위 직책 교육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토론식 이해 중심의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인성관이라든가 개개인의 시국관, 개개인의 가치관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종래의 그와 같은 대단위 훈시교육이라는 것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저명인사로 하여금 갖은 순회강연을 하게 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게끔 시도해 보는 것도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좋은 연구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령: 군기도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실질적 군기입니다. 형식적 편협된 군기 개념에서 내면으로 확대되는 군기입니다. 여기서 군기의 기본자세가 논의 되는데 그중 하나가 상호존중의 자세입니다. 장병 개개인은 상호존중하며 그 직책을 존중해 줌으로써 개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의 직책을 존중하게 된다는 자세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제 2전력에서는 공동의식을 강조합니다. 의타적 방위의지 결여의 부정적 자세는 이를 강력히 배격합니다. 무거운 짐을 밀고 끌고 나갈 때는 같이 밀고 당기는 공동체애의 일체감, 남의 희생으로 자기의 안일을 취하려는 자세의 배격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에는 구체적인 예로써 점호제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점호의 목적을 분석하고 이 목적을 실질적으로 부합시키는 방법을 찾고 형식적인 부담을 주면서 실속이 없는 절차는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있지요. 이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도 새 생활운동을 군대 내에서 전개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 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들의 기대성파라는 것은 사실 판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나눠주시죠.

▲ 제 2전력 개발 연구에 대한 기대성과

김대령: 물론 어떠한 방향을 포착해서 실천단계에 들어간 직후에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대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을 통틀어 어떤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노력이 군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적으로 보조가 맞춰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대령: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하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강화를 위해서 내놓은 제 2전력개발계획이 각 분야에서 실천계획을 세우고 각급 지휘관 및 관리자 급에서 적극 참여하여 술선수범하며 이를 계도(啓箱)하고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현대령: 같은 얘기입니다만, 연구위원회에서 내놓은 어떤 과제를 그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요령으로 계획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요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제시하고 문제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성과가 커질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김중령: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이 안되면 안되었습시다. 이 문제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리자들은 좀 더 내면적인 측면에서 파고들어 어떠한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죠.

즉, 이번 제 2전력 연구라는 관습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시급히 시정해나가고 내제돼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소시킴으로써 근무의욕 증진과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업무태도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리계층의 성의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일체가 되어야만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령: 역시 지휘관의 성의·술선수범이 중요한거죠.

사 회: 결국은 실천문제가 성과를 좌우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실천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핵심적인 계층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계층에 속하게 될까요.

유대령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유대령: 어느 집단이든지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집단 특유의 규범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큰 규범이라는 것이 바람직할 때는 생산적이고 의욕적이고 자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규범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핵심체를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어떤 집단의 규범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리더의 역할이 군대에서는 지휘관인 것입니다.

지휘관이 술선수범을 해서 바람직한 생산적인, 또 능률적이며 적극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령: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즉 리더의 자세가 올바라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의 사회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군대사회에 있어서는 군대사회에서의 윤리, 군대모랄이 뭐냐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휘관 각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군대 윤리관을 확립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제 2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리더인 지휘관이 해야 하고, 이 리더의 자세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 리더를 뒷받침 해 주는 각 구성원들의 자세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 구성원들의 자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현대령: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군대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상하관계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하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 애국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야만 그 집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거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체득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부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이 부대의 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하는 식의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곤란한 얘깁니다. “내가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나의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원가 매달려서 끌려간다는 느낌은 안 받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구성원들의 마음가짐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는 나에게 매달려서 나에게 충성을 다 하면 된다”는 식의 충성을 강요하는 지휘관들의 태도가 더욱 이 구성원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구성원 각자 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대령: 현대령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구성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와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의 터전인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 그리고 나의 국가의 안전을 남의 도움과 희생으로 수호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와 민주주의 생활양식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다 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무감, 여기서 나오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리더를 뒷받침하는 구성원의 자세입니다.

사 회: 이제까지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파생되기 쉬운 부정적인 자세와 여러 가지 저해 요소를 우리가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개개인의 정예화를 기하고, 나아가 전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오늘의 좌담회는 크게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군 구 호>

우 리 는 정 예 공 군

싸우자 1대3

무찌르자 1대3

이기자 1대3

◀수 필▶

계급장 시비



김 윤 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소개를 받는 경우에 으레 그 사람의 취미나 기호 등을 묻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명성을 떨치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의 인생관이 무척 낙천적이었다든가 국가관이 매우 투철했다든가 하는 세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의 취미나 인생관, 국가관을 묻는다는 것은 그 당연한 전제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각인의 명예심, 이른바 그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태도, 지위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올바르게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개인의 가치관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적인 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 상호간의 권리 존중과 의무 수행이 원활히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군사회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군 자체의 계급적특수사회성에 기인하는 바 계급적 위계 질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결여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사회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계급의 존엄 성의 유지 및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상위 계급과 하위계급과 하위계급간의 Rapport의 조성문제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경우처럼 계급 의식을 크게 느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이다.

종일토록 내리던 봄비 속에 옷을 적신 채 불안한 가슴을 미쳐 가누지도 못하면서 기교단 정문을 들어섰을 때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머리를 박박 깎이우고 난 후부터 조성된 초 긴장감은 사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별로 신통치 않게 보였던 그 다이아몬드 한 개가 이토록 얻어내기가 힘든가 하고 몇 번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입관 일자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구대장님의 그 무서운 눈을 슬슬 피해서 외출 때 사가지고 온 계급장을 모자에 붙이고 나서 혹은 이리 저리 비쳐 보이기도 하고 혹은 기합을 줄 때 교관님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품과 목소리로 제병 설교도 해 보기도 하고 혹은, 내무반을 이리 저리로 돌아다니면서 “야 임마! 너희들 왜 보고 안 해?”하고 위엄을 보이기도 하는 등, 모두가 이미 입관한 것처럼 으시대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때는 계급장을 어서 달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얼마나 지겹도록 역겨워했는지 모른다. 하루는 교육이 끝나고 연병장의 풀밭위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구대장님이 부르신다고 하길래 숨이 턱에 치달도록 뛰어 갔었다. 거기에는 나의 학교 친구이며 죽마고우인 공군 중위 한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당시 소위였던 구대장님이 서 계셨다. 정확히 그 친구 3보 앞에 서서 「멸공 !」하고 외치면서 경례를 붙이고 나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경례를 무척 여유있게 받아주고 난 그 친구가 씨익 웃어 주는 덕분에 기분이 약간 풀렸었다. 입관 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한 동안은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웃곤 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 그토록 계급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가져볼 수 있었던 후보생시절이 새삼 그리워지기도 하고 특히 입관 전날 계급장을 붙이고 하얀 휴지로 그것을 꼭 싸면서 느꼈던 희열은 못내 잊을 수가 없다.

<박 대통령 문언록>

◇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하자면 한 개인이 자수성가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쓰며 아끼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근면 및 절약에 바탕을 둔 저축의 힘이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 「제 2경제」운동이란 우리의 뿌리깊은 「조국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화를 물량면이 아닌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민생활의 새 물결인 것이다.

정신의 이완에서 오는

군 범죄와 그 대책

정해원

1. 머리말

사람이 사는 곳에 범죄가 없을 수 없고 또한 날로 생활이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하겠다.

군 사회도 이러한 일반사회 현상과는 달리 예외일 수 없어 각종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고유의 사명으로 하는 만큼 일반사회와는 달리 가장 질서 있고 규율이 잡힌 모범적인 단체가 되어야 함이 논리적인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나 군 조직의 성격과 그 구성 요소로 보아서 오히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큰 집단이라 할 수도 있겠다. 각양 각색의 사회계층과 가정성분 출신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다양한 군중의 집합체인 군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또한 군 조직이 가장 엄격한 통제와 명령 복종의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만큼 통제와 구속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생리가 우발적인 사고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다양한 군중의 집합체이면서도 가장 능률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명백한 엄정한 군기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군기란 바로 군의 규율과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각종 군 범죄자들은 이러한 군의 규율과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들이며, 군조직 내부의 단결과 일체감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들이다. 이들이 군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막대한 인적 내지 물적 손실을 가져오게 함은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에 대한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며

군의 존립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공군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은 공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으며 전 공군장병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더욱 더 군 범죄의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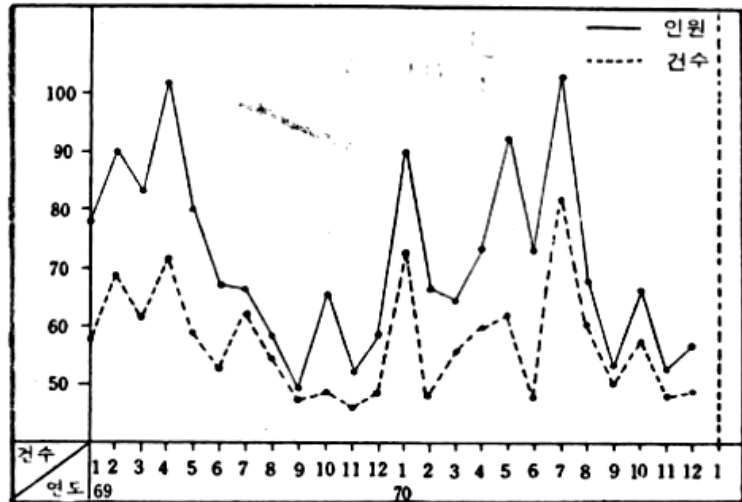
군 범죄는 사건 내용에 따라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 투철한 복무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군인의 사명은 국토보위에 있는 것이며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복무관을 가지고 조국애와 국토방위의 사명감에 불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범죄발생의 일반적 원인을 고찰하고 최근 공군 범죄의 발생 추세와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며 특히 범죄 예방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군인의 정신자세 확립에 관하여 언급하려 한다.

2. 범죄 발생 추세

<표 1,2>에서와 같이 공군범죄의 연차 추세는 70년도 총 범죄 발생건수 691건에 848명으로 범죄계수 7.7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69년도 총 범죄 673건

<표 1>



<표 2>

범죄별	70년도		69년도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전범죄	691	848	673	847
군무이탈	197	197	174	174
폭행	155	232	117	187
재산범	75	120	93	150
자살	11	11	44	44
(미수)	(23)	(23)	(22)	(22)

에 847명으로 범죄계수 7.94에 비하여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에 의하면 범죄자 수가 1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공군 전체 병력의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자 수를 각 중요 범죄별로 분석해 본다면 군무 이탈범은 69년도 174건에 비해 70년도에는 197건으로서 13.2% 증가했으며, 폭행범도 69년도 117건에 비하여 70년도에는 155건으로서 32.4% 증가한 반면에 재산범은 69년도 93건에 비해 70년도 75건, 자해범(자살미수 포함)은 69년도 66건에 비해 34건으로 각각 19.3%, 51%감소했다.

또 범죄자 수는 군무 이탈범이 69년도 174명에 70년도 197명으로서 발생건수와 동일하고, 폭행범은 69년 187명에 70년도 232명으로 24% 증가하였으며, 재산범은 69년도 150명에 70년도 120명으로 20% 감소했으며 자해범 발생 인원은 발생건수와 동일하다.

군무 이탈범과 자해범 이 발생건수와 범죄자 수가 동일한 것은 범죄의 성격으로 보아서 단독 범행이기 때문이며, 폭행범과 재산범 등은 사건 한 건에 2인 이상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건수 보다 범죄자수가 많은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건대 69년도에 비해 70년도 군무 이탈범이 13.2% 증가하고 폭행범이 발생건수 32.4%, 범죄자 수 24% 증가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재산범같은 것은 군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 단속활동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군무 이탈범, 폭행범 등 주로 정신상태 이완에서 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장병들에 대한 정훈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사항>

범죄계수(Crime factor) :

단위 병력을 10만명으로 가정하여 하루에 발생한 범죄를 표시한 수치임

$$\text{범죄계수} = \text{범죄자수} \times \frac{100,000}{\text{보유병력} \times 365}$$

3. 범죄 발생 원인

가. 범죄 동기

범죄 발생의 원인은 개별적 원인(내적 원인) 즉 범죄자의 성격, 신체적 정신적 특징, 경험, 교양, 성별, 연령 등과 사회적 원인(외적 원인) 즉 범인을 위요하고있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인 제환경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일방의 원인만에 편중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70년도에 발생한 공군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 동기와 원인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도 공군 범죄자 총 848명 중 개인사정이 74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대 사정이 78명으로 8.7%, 가정 사정이 28명으로서 3.3%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 범죄는 범죄의 외적 요인 즉 범인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 발생된다기 보다는 주로 범죄자의 개인적 원인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원인	범죄자
가정사정	가정불화	3
	가정우환	8
	가정빈곤	8
	가정 기타	9
개인사정	금욕	123
	신병관계	15
	이성관계	20
	처벌우려	60
	부채관계	36
	염세	16
	과실	167
	사감	17
	명정	142
	우발행위	131
고의	15	
부대사정	군무염증	55
	전과비관	4
	장기복무후회	10
	인사불만	4
	사적제재	3
	기타	2
	계	848

즉, 범죄의 88%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자세가 해이되어 있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과실 167명, 명정(술에 취해 정신상태가 혼미해 지는 것) 142명, 우발행위 131명, 금욕 123명, 기타 부채관계, 이성관계 등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되는데 특히 물질적인 욕심과 과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함은 그들의 정신상태가 평소에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훈교육의 강화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켜 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 원인을 주요 죄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무이탈과 원인

군무이탈의 원인은 70년도 이탈범 총 197명 중 군무염증이 66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벌우려 48명(24.4%), 부채관계 36명(18.3%), 가정사정 19명(9.6%), 이성관계 9명(4.5%)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군무 이탈의 원인중 군무염증, 처벌우려, 부채관계, 이성관계 등 그 대부분이 정신상태 이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군무이탈이야 말로 바로 군 조직의 내부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군 조직의 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무염증에 의한 군무 이탈범이 69년도의 39명(22.0%)에 비해 11.5%가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 폭행과 원인

폭행은 대부분이 명정, 사감, 우발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는 평소에 정신상태가 크게 이완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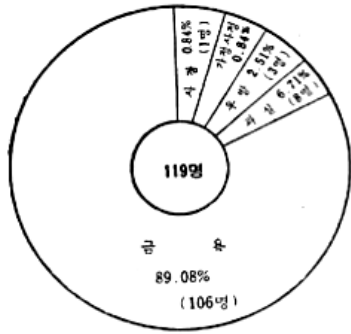
재산범죄의 89.1%(106명)가 금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원인이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



(3) 재산범의 원인

<표 5>



<표 6>

	환경	범죄자
영외	일반근무중	93
	전속부임중	19
	출장중	6
	이탈중	63
	휴가중	105
	외출중	81
	퇴근후	142
기타	17	
영내	근무중	190
	휴식중	65
	입원중	1
	기합중	10
	취침중	25
	기타	32
	계	849

(4) 자해범의 원인

자해범은 염세에 의한 것이 13명으로서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처벌우려 4명, 이성 관계 4명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나. 범죄 발생 환경

공군 범죄의 발생 환경을 영내와 영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70년도 총 범죄자 848명 중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자 수가 526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내에서 발생한 범죄자 수는 223건으로 38%에 해당하고 있다. 이것은 군 범죄의 상당수가 영외에서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다시 영외의 각 환경별로 구분해 보면 퇴근 후 142명, 휴가중 105명에 일반 근무중 93명, 외출중 81명, 이탈 중 63명의 순으로써 영외에서는 퇴근 후 야간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외 휴가, 외출 등 일단 근무를 떠나서 정신상태가 해이 해이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탈자 중 63명이 범죄를 저질렀음은 근무이탈에 대한 단속이 타 범죄 예방에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1) 근무이탈범의 발생 환경

근무이탈 발생 시의 환경을 영외와 영내로 구분해 보면, 영외가 152명으로

전체의 82.6%, 영내가 45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근무이탈은 영외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영외에서의 근무이탈은 주로 휴가, 외출 중이거나 부임 중에 근무에 염증을 느껴 미귀영함으로써 발생하며 영내에서의 근무이탈은 근무 중에 혹은 일과 후 내무반에서 탈영함으로써 발생한다.

(2) 폭행과 환경

<표 7>

시간	영내	영외
00~06시	16	0
06~12시	11	3
12~18시	18	9
18~24시	20	78
계	65	90

폭행을 발생 시간별로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18:00~ 24:00시 사이에 발생건수 98건으로써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아 폭행사고는 주로 석·야간에 영외인 노점이나 주점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외에서는 주점(32.5%), 노상(28.0%)에서 폭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영내에서는 근무장(37.9%),

휴게실(34.9%)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근무장에서 폭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급자의 감독 소홀이 문제가 되며 특히 초소에서도 15.1%의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재산범과 발생 환경

재산범죄 발생 현황을 요일별로 보면 총 74건 중 토요일 16건, 월요일 13건, 일요일 11건의 순으로서 휴일을 전후한 날짜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간별로 보면 18:00~ 24:00시 사이에 발생한 것이 21건(28.4%)으로써 그 중 절도가 10건으로 재산범은 거의 야간에 절도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해범과 발생 환경

자해 범 총 34명 중 영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29명(85.2%)이며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17.8%(5명)을 차지하고 있음에 보아 자해 범은 대부분 영외에서 휴가, 이탈, 외출 중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택과 유원지에서 각각 14건이 발생했으며 영내에서는 내무반에서 3건이 발생했다.

다. 범죄와 학력 및 연령

공군 범죄자를 학력별로 분류해 보면 <표 8>에서와 같이 총 범죄자 848명 중 고졸이 528명으로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이 80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학력	범죄자
대졸	190
고졸	528
중졸	80
국졸	5
계	803

<표 9>

연령	범죄자
20세 이하	107
21~25	586
26~30	72
31~35	43
36~40	23
40세 이상	12
미상	9
계	852

전 범죄자의 71.5%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교육 정도와 범죄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가 적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범죄를 연령별로 보면 <표 9>에서와 같이 21~ 25세가 586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하가 107명으로 11.4%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범죄와 학력 및 연령과의 관계를 볼 때 군 범죄의 대부분이 25세 미만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범죄예방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대책

가. 추세와 문제점

지금까지 70년도 공군 범죄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군범죄의 발생 추세와 군 범죄의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범죄와 범죄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의 학력과 연령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공군 범죄는 매년 발생 건수와 범죄자 수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범죄 내용이 점차 흉악해지고 또한 타군에 비해 물의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70년도의 범죄내역을 보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강도 사건이 3건, 살인 사건이 1건 발생했으며, 71년도에는 공군과 관련된 난동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금년에도 사병의 군무이탈이 또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각종 범죄 중 특히 군무이탈범과 폭행범이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며 그들의 범죄 원인이 군무열중, 금융, 명정 등 단순한 개인적 사정에 기인되며 군무이탈은 타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20세 전후한 사병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젊은이들의 특수한 심리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병들간에 일고 있는 염세에 의한 자살사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대책

범인의 성격, 신체적 특징, 정신적 특징, 교양, 연령 등 개인적인 범죄원인을 여하히 교정하며 범인을 위요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인 제조건 및 환경을 여하히 정화, 조절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신상태를 바로잡고 복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과업을 교육이 맡아야 하고 군의 정훈교육이 집중적으로 이에 동원되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장병들에 대한 도의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인격 지도 및 종교적 지도를 받게 하여 건전한 인생관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헛된 잡념을 일소시키고, 정신무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장려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이성관계를 갖도록 교양 교육 및 계몽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근면 검소한 생활인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여 금융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대를 앞둔 장병들이나 외출,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사고에 방조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장병들로 하여금 현 시국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며 국토보위의 사명감을 철저히 간직케 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인의 자세를 갖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젊은 군중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하나의 가치관과 행동철학으로 결속시키는 군의 기본적 기능이 돼야할 정훈교육의 강화를 위해 각급 지휘관과 당료자들은 더욱 더 문제의식을 절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훈교육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충실히 하며 그것의 효율적이고도 기동적인 전개를 위해 바람직한 예산 조치가 합리적으로 뒤따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복귀가 군 정치교육 조직을 작전 지휘 계통 조직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사실과 자유중국의 국부군 편제에서 정치교육 조직의 비중 역시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는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정훈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한 투철한 복무자세를 확립케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을 보호함으로써, 평에 공군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PPBS

<국방부 특명 검열단 PPBS 연구위원회 제공>

○ ... 여기 소개하는 글의 내용은 국방부 군 특명검열단 PPBS 연구위원회에서 1971년초부터 연말까지 연구한 기획 계획 예산제도(PPBS)의 시안을 간추린 것이다. ...○

서언

군 특명검열단은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관리와 개선책으로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한국 국군에 기획 계획 예산제도를 도입 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단발족 이래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교수 유훈 박사를 자문 위원으로 초빙하여 1971년 3월말까지 연구를 계속했다.

그 후 실질적인 적용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유훈 박사를 포함하여 각군 장교로 구성된 PPBS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시안을 작성했으며 동기간 중 2명의 위원을 미국, 캐나다, 일본에 파견,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971년 말에는 PPBS의 연구요원 확보책으로 대령 수명이 미 해군 대학원의 국제 국방 관리과정 교육 이수차 출발했으며 1972년 2월에는 중령 및 소령 OO 이 미육군의 경리학교 PPBS과정에 참가한 후 미 국방성에서 약 1개월간 선발 조와 합류하여 실습을 받도록 군원 교육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PPBS가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헌 할 수 있는가를 PPBS의 발전 과정부터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PPBS의 발전과정

누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대전 후 미국에서 국방장관의 권한을 확장 짓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케네디 대통령, 맥나마라 국방장관 그리고 헛치 국방관리차관보의 3인조를 맞이해야 했다.

국방장관은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대형화하는 무기체제와 방대한 국방예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PPBS를 필요로 했다.

국방성의 성공적인 PPBS적용을 본 미예산국에서는 존슨 대통령에게 이 제도를 연방정부의 타 몇 개 부처에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존슨 대통령이 이 건의를 확대하여 1965년 8월 15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전연방정부 전체에 적용하라는 대혁명이 일어났다.

그 기자회견의 일단을 보면 『오늘 아침 나는 각료와 정부 각 기관장과 아침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즉, 나는 그들에게 대단히 새롭고 혁명적인 기획 계획 및 예산제도를 연방정부 전체에 도입하여 새로운 관리 도구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경비로써 모

든 미국 국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약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일단 마련되면 이 제도는 미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목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둘째, 일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며 셋째, 일을 저렴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존슨 대통령은 이 제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고 동시에 대단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미국의 PPBS를 그 발전단계별로 보면, 첫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연구한 기간이고 두번째가 미 국방성에 헛치(C. J. Hitch)가 도입한 시기이며, 세번째가 존슨대통령에 의해서 연방정부 전체에 도입한 기간이다.

네번째는 이와 같이 실제 도입된 PPBS를 경영학자인 안소니(Anthony)가 헛치의 후임으로 국방관리차관보가 됨으로써 PPBS의 질적면면을 개선한 단계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경제학자인 헛치가 기반을 닦은 PPBS를 경영학자인 안소니가 예산의 집행과 통제면면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 PPBS의 의의

PPBS는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의 두문자로서 기획 계획 예산제도라고 번역되지만 흔히 계획예산제도로 약칭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예산제도에 대비한 개념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주의 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PPBS를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태도는 PPBS를 자원관리의 관리수법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PPBS를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중시하는 뜻에서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s)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공통적인 것은 PPBS가 재무관리의 범주 내에 머물러있던 종래의 예산제도를 탈피하였고 장기적인 군사계획을 단기적인 예산제도와 계획으로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PPBS의 기본개념을 엔토벤과 스미스(Enthoven, Smith)의 공저 “How much is enough?”에 의해서 정리하면,

가. 정책의 결정은 국가 이익에 입각한다.

나. 소요와 비용을 동시에 검토한다.

다.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명확한 고찰

라. 분석참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

마. 군사 및 재정상의 장기적인 계획화

바. 공개적이며 명백한 분석의 채용을 들고 있다.

따라서 PPBS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PPBS의 특징

과연 PPBS는 존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새롭고 혁신적인 체제이고 이 제도만 확립 되면 보다 빨리 보다 싸게 그리고 보다 훌륭하게 일을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를 알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PPBS와 그 이전의 제도를 비교해 보고 그 특징을 다른 관점에서 종합해 보기로 한다.

PPBS이전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며 그 이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있었다.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PPBS
기본원리 정보의 초점 중심단계 범주 예산분석책임 의사결정의 흐름 선택기준	회계학 물품 집행 개별 신탁 신택 하향상 증분주의(増分主義)	행정학 활동 편성 활동성 효율 하향상 증분주의	경제학 목적 계획 포괄적 정책 상향하 근원주의

앞의 표를 다시 분석하면 종래의 예산제도는 PPBS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다.

가. 한도액(Ceiling)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한도액제도에 의하면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당시의 분석 부족으로 인정된 사업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인정되는 폐단이 있다.

나. 기획과 예산의 유리를 시정할 수 있다.

즉. 기획은 군사 소요의 제시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을 집행하는 재정적인 구속 때문에 기획과 하등의 상관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것을 PPBS에서는 계획구조에 의해 사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맺어 주고 국방발전계획으로 재정적 장기전망을 가능케 해준다.

다. 투입제(In Put)와 성과(Out Put)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고 있다.

종래의 제도는 투입 제는 예산편성으로 표현되고 그 결과는 소비실적으로 표현되는데 불과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분석(Systems Analysis)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라. 각 군간의 예산경합을 지양할 수 있다.

종래 제도는 국방전체 의 관점에서 필요유무와 그 긴급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각 군별로 소요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동종의 무기소요를 상호 비교함이 없이 요청했으며 또는 중복된 목적이나 활동에 예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PPBS에서는 국방 소요 전체를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상호 경합은 있을 수 없다.

기타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나 대안의 추구 등 많은 점에서 종래의 예산제도보다 월등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첫째 PPBS가 만능약이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 과거의 제도가 현시점에서 볼 때 많은 약점을 갖고 있으나 과거에는 그 당시대로 훌륭한 제도였다는 것이며, 셋째 현 PPBS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단점이 많이 발견되어 보다 더 새로운 체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계획구조

PPBS의 특징의 하나인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계획구조이다.

계획구조는 사업을 종류 및 수준별로 분류하고 조직의 목표를 직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예산담당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 계획구조는 미국에서는 3층구조 즉 Program Category, Program Sub-Category 및 Program Element로 되어있다.

본단에서는 이 구조를

- 1차 분류를 주요계획(운용계획 항목)
- 2차 분류를 세부계획(운용계획 세 부항목)
- 3차 분류를 세세부계획(운용계획 세세부항목)
- 4차 분류를 계획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계획 항목은 미국의 Program Category에 해당되며 이는 국방 전체를 주목적별로 분류한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통상 약 10종 즉 전략부대, 일반 목적부대, 정보 및 통신, 공해수송, 주병부대(州兵部隊) 및 예비군, 연구개발, 군수지원, 훈련, 의무 기타 인사행정, 일반지원 및 관련활동, 외국원조 등이다.

특검단의 시안은 7개 항목으로 전선방위, 후방방위 및 예비군, 정보 및 통신, 연구개발, 군수지원, 교육 및 의무, 일반 지원이다.

계획요소는 계획구조의 기본단위이며 이 요소별로 Out Put와 In Put가 계산된다. 따라서 계획항목과 계획 요소간에 있는 구조는 큰 뜻이 없고 오직 목적별로 대별된 운용계획항목에 각 요소를 뜻있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000 전선방위	11201 보병사단
11000 지상부대	20000 후방방위 및 예비군
11100 작전지휘	21000 경비부대
11101 작전지휘	21200 작전부대
11200 보병부대	21203 ○○ 방위 사령부

5. 주요문서와 시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현 시점에서 볼 때 작전소요가 제시되는 합동전략목표계획 (ISOP)이 기본이 되고, 이것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은 외적측면에서 볼 때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획순기에 따라서 처리되는 각종 문서가 요구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 시안에 따라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합동전략목표계획; 국방부○○○

본부에서 작성하되 그 시기는 X-3년의 9월초부터 X-2년의 1월말까지 작성한다.

나. 발전계획지침 ; 국방부내국에서 작성하되 X-2년 4월초부터 5월말 사이에 작성하며 여기에는 국방정책지침부터 체계분석해야 할 분석제목까지 포함된다.

다. 계획수정요구; 이것은 PPB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각 군 사령부 및 직할기관이 하사라도 제출할 수 있으나 주로 X-2년도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제출한다.

라. 계획수정결정; 계획수정요구에 대한 가부의 결정으로 국방부가 결정한다. 이는 X-2년 9월초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 행해진다.

마. 국방발전계획(FYDP) ; 이것은 PPBS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서 부대계획과 재정계획을 묶었으며 정책결정자의 부대목적과 비용개념을 동시에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X-2년의 11월초부터 X-1년의 2월말까지 작성한다.

기타의 문서로서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특수분석연구서 등이 있다.

6. 예산구조와 관리구조

장기적 안목으로 다루어진 PPBS가 실질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앞에서 설명한 계획구조와 예산구조가 일치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산구조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구조와 합치하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이 관리 구조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예산구조;

시안의 계획구조와 예산과목구조가 원칙적으로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章)은 국방비로 하며 운용계획항목은 관(款), 운용계획 세부항목은 항(項), 운용계획 세세부항목은 세항(細項), 계획요소는 세세항(細細項)으로 정했다.

나. 관리구조;

전군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의 활동상호관계를 표준화하여 표준적 활동표를 제공하고 재무 및 예산거래를 구분하여 공식 회계부호와 용어를 제정해 줌으로써 거래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고 활동별로 경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 (1) 세출예산
- (2) 자금사용 각 기관
- (3) 자기에 해당되는 회계 연도
- (4) 세출예산의 부호
- (5) 자금의 제정기간
- (6) 기록책임 기관
- (7) 자금사용의 목적
- (8) 조달된 용역 또는 물품내용 등이다.

7. 체계분석(Systems Analysis)

PPBS가 그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과학적 분석방법인 체계분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체계분석이라 함은 어떤 조직 또는 체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대안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대안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 절차를 통해서 계량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와 정책결정자의 대안선택과 결정을 용이하게끔 보조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가(分析家)는 자료를 수집, 편성하고 목적에 적합토록 정보를 정리하여야 하며 문제에 대한 관련사항을 모형화(Model)하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석의 결론을 상사(上司)에게 강조하거나 또는 최종결정처럼 말해서는 아니 된다. 분석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참고에 그친다.

가. 이와 같은 입장에서 PPBS의 보고서 중 그 일부를 체계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항공부대 중에서 ○○기종과 XX기종의 두 무기 체계를 발전 계획면을 고려하면서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분석의 갖가지 기법을 시범하며 아울러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의 논거(論據)가 될 수 있나를 시험하였다. 이때 주한 미 해군사령관의 과학고문이며, 체계분석가인 Mr. Frank G. Buffum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분석을 완성시킬 수 있었음을 새삼 감사하는 바이다.

나. 문제의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적항공 세력에 대한 위협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우군 항공 세력과 주한 미 공군 세력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군기상 생략하나 특검단 PPBS연구 보고서에 완전히 수록되었음을 첨언 한다.

다. 분석에 있어서는 효과분석과 비용분석을 따로 실시했다.

효과분석 시는 주로 공군의 항공기 성능지 Northrop항공기회사의 성능 비교표와 공군장교의 의견을 참고하였고 비용 분석 시는 ○○기지의 통합회계결과와 팻컴 카타로그(PACOM CATALOG)를 참고하였다.

라. 효과분석의 결과는 ○○기 대(對) XX기의 효율을 1:1.5로 집약했으며 항공기 가용도(Availability)를 ○○기종은 75%, XX기종은 최초 도입시 73%로 하며 매년 1%씩 증가, 4년부터는 75%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발전계획에 따라서 ○○기 대 XX기 효율도를 구하는데 까지만 작업했다.

마. 비용분석은 투자비와 운용비를 구분하여 산출했다. 투자비는 항공기 구입비와 초도부속비(항공기 구입비의 10%해당)를 합한 금액이다.

운용비는 인건비, 정비비, 행정비, 부속품비 및 연료비로 구분 파악했다.

이 중에서 군원부분과 국고부분으로 나누어서 국고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발생하는 비용이 현시점에 있어서 얼마에 해당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할인율(割引率) 연(年) 15%를 적용하였다. 즉 운용비를 가능한 한 현시가(Present Value)로 환산하였다.

바. 효과분석에는 효과 Model을, 비용분석에는 비용 Model을 작성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과 : ○○기 대 XX기는 1:1.5

비용 : ○○기 대 XX기는 1:1.3

따라서 ○○기와 XX기의 비용 대 효과는 XX 기종이 우수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분석내용을 지나치게 간추린 탓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길 바랄 수는 없으나 오직 PPBS와 체계분석이 불가분의 관계이며 체계분석은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언

자주국방을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국방비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고 주어진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과 기획의 유리, 결산과 예산편성의 유리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가능케 하며 계획에 있어서의 시계(Time Horizon)를 넓힐 수 있는 제도가 PPBS임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한 점은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험부족

나. 회계제도의 미비

다. EDPS의 요원 및 시설 부족

라. 체계분석에 대한 요원 및 경험의 부족 등이 있으나,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여 선진국에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적용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 분야의 여러 선배 동료는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편달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면서 수고를 줄인다.

여가 선용을 위한 Recreation



한공렬

사람은 일을 요구하면서도 휴식을 원한다. 사람은 긴장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긴장한 활동이 문화건설에 이바지 휴식과 Recreation이 문화창건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오는 여가를 헛되이 보낸다든가 혹은 그 시간을 무의미하고 몸에 해로운 오락으로 허비한다면, 그 당사자는 물론 이웃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가 문제가 요즘 클로즈업된 것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얻어지는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데서 생기게 되었다고 본다.

여가란 일반적으로 일에서 벗어난 시간이나 조용하게 명상하고 쉬는 것, 의무에 예속되지 않는 시간으로 말할 것이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또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으로 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가 선용」이란 심신을 건전하게 하고 명랑하게 하며 내일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한가한 시간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여가선용을 위한 Recrea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1. Recreation의 의미

Recreation이란 여가를 가치있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써 소비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직접적이고 고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Recreation은 여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과 식사와 수면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밖에 남는 시간은 자유시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Recreation을 찾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Recreation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는 그 시간을 공상으로 혹은 지루한 침묵으로, 그렇지 않으면 싱겁게 들어누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Recreation이란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났을 때에 그 개인은 새로운 생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Recreation에 참여함으로써 곧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Recreation은 이처럼 그 단체와 그 직장에서 와 여가를 아름답게 장식해 줄 때에 개인은 개인대로 그 단체는 단체대로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Recreation을 계획하려는 직장이나 단체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치있는 것으로 택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치의 비중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Recreation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계획하는 그룹이나 단체가 그대로 공공사업 단체일 경우가 대부분인 고로 거기에는 감정적인 상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Recreation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사회에 급격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발전보다도 불합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그 분위기에 이끌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경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Recreation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자발적 선택에서 오는 것이라야 한다. 여가 선용에 있어서 자유를 억누르는 어떠한 형식의 선택도 모두 Recreation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은 곧 고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활동에서 얻는 것은 만족인데 그 만족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며, 각 개인의 Recreation은 어디까지나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만족은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처음부터 만족한 것이 못되는 Recreation은 계속해서 참여하게 될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Recreation

은 가급적이면 즉시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Recreation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간간히 혹은 주일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있어서의 Recreation은 대수롭지 않게 천시 내지는 죄악 시해 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Recreation 활동이 민주주의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컸을 뿐 아니라 사람의 개성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다른 활동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 Program의 원칙

우리가 Recreation을 가지려 할 때에 Program이 요구된다. 공동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Program을 작성하거나 혹은 옛 Program을 개량하려 할 때에 이에 따른 별다른 형식이나 규범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Recreation Program은 발전되는 사회와 변천되는 물정에 따라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진취적인 경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Program은 활동을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의 최종적 소산이다. 그러므로 Program의 가치는 크고 또 그것이 모든 Recreation을 좌우할 만큼 필요한 것이다.

Program은 사회에서 즉 공중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Program을 작성하는 사람은 그 지방의 특수성과 모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적당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Program이든 반드시 세 가지 특성, 즉 계속성, 진취성,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Program이 곧 모든 대중을 만족으로 이끌 것이며 대중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평가하려 하는 것은 곧 Program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원칙에 의하여 구성된 Recreation 운영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계획이 Program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3. 방법론의 원칙

Recreation이 참가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얘기했거니와 이를 직접 지도하고, 통솔하는데에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Recreation 지도자가 지도할 때에 일으키는 감화는 그 지도자의 지도능력과 통솔력에 달린 것이며, 그 지도자가 우수하냐 못하냐를 알 수 있는 것도 그 감화력에 좌우된다고 본다.

Recreation지도자에게 일정한 규정이나 공식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범위하고도 변천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편하에서의 여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Recreation 지도자에 세 가지 형이 있는데 이것은 독재형, 방임형, 민주형이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지도자는 독재형이나 방임형이 아니라 민주형이 있고, 그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왜 민주적 형식이 채택되어야 하는냐는 문제에 대해서 두어 가지 더 생각해야겠다.

그 첫째 조건은 미주사회에 있어서 공중봉사(公衆奉仕)로서의 Recreation은 그 사회의 생활방식과 융합되는 실천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인을 만족케하는 자유적이며 자발적인 참가자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Recreation 경험의 정신과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수한 통솔력과 방법론의 특성은 지도자가 실천에 옮기려는 모든 Program을 개량하려는 노력과 이 개량의 방식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Recreation 활동은 이에 참가하는 개인의 목적과 능력과 흥미에 상응해야 하며 이것이 언제까지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리드되어야 할 것이다.

4. Game의 분류

Game을 분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류법의 여러 종류를 먼저 예로 들고 여기에서 채택한 분류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장소별 분류법

장소의 크기와 특수성에 비추어 분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를 들 수 있다. 실내 Game, 홀(Hall) Game, 야외 Game, 버스(혹은 열차) Game, 식탁 Game, 스테이지 Game 등이 있다.

(2) 대상별 분류법

대상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상에 맞게 Game을 분류한 방법이다. 성인 Game, 어린이 Game, 가족 Game, 남자 Game, 여자 Game, 쌍쌍 Game 등이 있다.

(3) 인원수에 의한 분류법

인원의 많음과 적음에 따라 분류한 방법이다. 개인놀이, 둘이서 하는 놀이, 소그룹 Game, 그룹 Game, 매스 Game 등이 있다.

(4) 대형에 의한 분류법

대형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분류한 놀이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개인 지적 Game, 원형 Game, 편 Game, 대표 Game, 분산 Game, 릴레이 Game, 섞임 Game, 특수 대형 Game 등이다.

(5) 목적에 의한 분류법

그 사용 목적에 따라 Game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특수 목적이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Main Game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인사소개 Game, 짝짓기 Game, 집중 Game, 준비 Game, 중간 Game, 별칭 Game 등이 있다.

(6) 원리에 의한 분류법

가장 이상적인 분류법으로 응용 및 게임 창작에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로 이 분류법이 개발되지 못한 점이 있다.

(7) 무엇을 사용(혹은 이용)한 게임 인가에 의한 분류법

주위에 있는 어떤 도구나 어느 특성을 이용한 Game이다.

요령이 필요한 지적 Game, 음악적 Game, 미술공작 Game, 단체적 Game, 도구를 사용한 Game 등이다.

이상 열거한 여러 가지 Game 분류법이 그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장소별, 대상별, 인원별, 대형별, 목적별 분류법은 모두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그 Game을 응용함으로써 어느 장소, 어느 대상, 어느 인원 그리고 어느 대형이나 어느 목적에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게임은 어디까지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응용하고 또 새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이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Game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① 신문지 징검 다리

준비물 : 신문지(도화지) 1인 2매

방 법 : 2명 이상 몇이라도 좋다. 릴레이형식으로 할 때는 동수 2팀으로 나눈다. 스타트 라인에 신문지를 한 손에 한 장씩 들고 선다. 출발신호로 신문지 1장을 앞쪽에 놓고 그 위에 올라 선다. 다음 다른 한 장을 앞에 놓고, 그 위에 옮겨간 다음에 뒷쪽의 신문지를 주어 앞에 놓고 그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종이 위만 타면서 전진하여 골라인에 먼저 도착하면 이긴다. 릴레이의 경우는 반환점을 돌아오도록 하고 바톤 대신 신문지 2매를 쓰면 된다. 도중 신문이 찢어지면 그 중에 큰조각을 계속 쓰도록 한다.

② 위를 보고 먹자

준비물 : 인원수대로 껌이나 과자

방 법 : 껌을 이마와 코 사이에 얹고 신호와 함께 얼굴을 하늘로 보인 채 얼굴근육을 움직여 손을 쓰지 않고 숨쉴 좋게 입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가게 한 사람이 이긴다. 이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껌을 3번 떨어뜨리면 실격이다.

③ 엉덩방아

준비물: 각색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어 둔다.

방법 : 먼저 편을 나눈다. 출발 신호

로 전방에 있는 풍선을 달려가서 엉덩이로 깔고 앉아 터뜨리는 것이다. 풍선이 터질 때까지 일어섰다 깔고 앉았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터뜨리고 오는 편이 이기게 된다. 이 놀이는 풍선이 쉽게 터지지 않고 옆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엉덩방이를 쫓게 되는 것이 우습다.

④ 대통령 놀이

준비물: 없음

방 법 : 먼저 일렬 원형으로 둘러 앉는다. 그리고는 3박자 행동을 익힌다. 첫 박자는 두 손을 무릎에, 두 번째 박자는 박수를, 세번째 박자는 오른손가락의 엄지끝, 둘째 손가락 끝에 비벼 튀기는 행동을 장단에 맞추어 모두가 잘 맞을 때까지 연습한다. 다음 원의 어느 위치로부터든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국장」, 「1번」, 「2번」, 「3번」…… 「청소부」의 차례로 이름을 붙인다. 이름이 다 붙여지면 청소부로부터 시작한다.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손가락을 튀기면서 청소부가 상대편 이름을 부른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하고 부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하고 대통령은 「장관」하는 식으로 3박자가 될 때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번호를 불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 나가다가 자기 이름이 불리우면 제박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청소부가 되고 자연히 자리를 옮겨 청소부는 맨 끝에 앉게 되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한 사람씩 앞으로 가서 앉는다. 동시에 번호나 명칭은 바뀌게 된다. 항상 다시 시작할 때는 청소부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청소부를 3번 이상하면 실격이 되게 한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한정된 지면이 있어 이만큼 해두고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게임을 할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비록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일지라도 성인들이 하면, 하는 자신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겁고 구경하는 사람도 더욱 재미있어 할 것이다.

부모는 귀여운 자녀와 더불어 저녁 후의 한 때를, 젊은이들은 상호의 우의를 위하여 주어 진 환경과 사정에 따라 응용의 묘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어진 여가를 마음껏 즐긴다면 좀 더 윤기 있는 생활이 될 것이라 믿는다.

별과 함께 산다.



문종진

순아, 간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검은 구름이 오락가락하기에 행여나 내 일은 기상이 나빠 비행을 못하겠지 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별만 총총히 빛나 오손도손 속삭이고 있구나. 속으로 <제발 비나 좀 왔으면.....> 한 마디 중얼거리려고 아직도 체온이 땀뻑 들어있는 침구 속을 아쉬워하며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니 전우들도 하품을 하고선 몸을 비비 꼬아대며 긴 한숨이 마루가 꺼져라 폭 내쉬며 일어들 서는구나.

짧은 한시절을 순아와 같이 보람차고 화려하게 살아가자고 깊은 언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화려한 계획이 일장의 춘풍이 되어 버린 것 같기만 하다. 현재의 나는 이미 순아를 떠나서 국가에 던져진 몸이고, 내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서로가 이해할 입장이 아닌가. 또한 내 업무가 고단한 비행기 정비고 보면 순아도 이해는 해 주겠지.

순아, 너와의 애정의 밑거름이 최고로 깊었을 때 나는 말했다. <내가 군에 간다면 공군에 들어가 저 십만리 창공을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조종사가 된다고> 하늘에 짧은 정열을 바치며, 푸른 창공을 너 그리워하듯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순아, 그때의 나의 지대한 꿈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그 비행기를 지상에서 만지고 조이는 정비사로 낙착되고 말았다. 그런대로 자위한다면 반은 얻은 셈일까?

공군에 몸을 담아온지 꼭 4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순아의 고운 모습은 자꾸만 퇴색되어 간 것 같다. 나의 연륜도, 세월도 너무나 무상해서 그럴까? 일년 전만 해도 순아의 자태가 내 눈앞에 닳아서고 순아의 영상을 가슴 속 깊이 담고 선 행운의 마스크트인 양 소중히 간직했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압당한 감상에 말려 들어간 것 같구나.

순아, 너는 지금 이 시간 무한대의 세계에서 평화롭고 단조로운 수면에 행복의 꿈을 꾸고 있었지. 그러나 나는 지금 너를 아끼듯 아끼고, 사랑하는 내 향공기를 만나기 위해 별을 쳐다보면서 비행대기선으로 가는 길이다. 칼날같은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뽕뽕 얼어붙은 유도로는 헛점만 생기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경험과 담력과 기질이 강해 나를 선두로 내무반 전우들은 찬공기에 맑은 정신을 되찾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순아, 너는 공중의 비행기만 보았지 실제로는 안 보았을 꺼야. 고공에서 백색 비행운의 연막을 터뜨리고 우리 한국 여인의 웃고름을 휘날리듯 극치의 조화를 이룬 제트기의 모습을.

나는 자랑스럽게도 이 멋진 비행기를 4년 동안이나 만지고 고쳤단다. 바로 내가 애지중지하게 아껴온 비행기가 오늘 썸이면 너의 머리 위를 날아갈 것이다. 손을 흔들어라. 박수를 쳐라. 환성을 울려라. 순아의 상냥한 미소를 보 내라. 조국 대한민국 공군의 창공을 수호하는 내 애기에게, 나는 이렇게 순아에게 보내고 싶단다.

순아, 우리 대원들은 비행기에 붙어서 한창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는 비행기 꼬리 부분에 엔진을 점검하고 막 나왔다.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란단다. 나는 고참이어서 이 부분을 맡았지. 김병장은 날개, 이상병은 동체, 최일병은 공구 당면, 모두들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나는 다시 앞머리를 만지기 위해 자리를 옮긴다. 비행기 주변에는 하얀 서리가 얇게 깔려 있구나. 차고 미끄러운 알미늄과 내 손끝이 마주치니 감촉이 싸늘하구나. 이런 감촉을 느낄 때면 순아의 부드러운 손끝이 생각난다.

동녘에서 여명이 밝아온다. 뒷동네에 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고향에서 늘 들어온 그 닭울음 소리가. 이런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땀 역세기로 유명한 내 자신도 향수에 젖어본단다.

순아, 이젠 비행전 점검이 다 되었다. 얼마 있으면 우리 공군의 멋장이 파일 러트가 새벽의 비행을 하기위해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잠깐 휴식을 하련다. 얼어붙은 손을 부벼가며, 화랑담배 한개비로 온몸을 녹인다. 추위가 찾아온다. 전신이 떨린다. 한 대의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 정비사들은 무려 2시간이라는 시간을 3~4명이 일해야 한단다. 누가 우리들의 숨은 노고를 알아 주겠는가. 자상하신 어머니의 손길이 나의 이마를 쓸어주던 그 모성애처럼 그저 만지고 달래고 정성을 들여 돌보아야 하는 고통을 아는 사람은 저 늙름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 뿐이란단다.

순아, 드디어 빨간 마후라들이 낙하

산을 짊어지고 나오기 시작한다. 늘 내 비행기만 타시는 손소령님이 나의 거수 경례에 얽은 미소로 답해준다. 우리는 성심성의 다하여 비행기를 활주로까지 내보내게 되었다.

요란한 제트의 굉음이 정적을 깨고 지축을 뒤흔들며, 그 웅대한 비행기 편대는 노도처럼 북녘을 향해 이륙한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 압축된 대기를 힘껏 찢으며 나를 눈짓해가면서 북쪽 먼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순아! 이젠 오늘의 하루의 일을 처음 시작했다. 어느새 밝은 해가 솟아오른다. 배가 고프다. 순아는 이제야 일어났겠지. 간밤에 좋은 꿈 많이 꾸었으면 나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자 오늘은 이만 순아의 건강을 빌고.

사나웁고 표독스러운 바람이 허허벌판 비행장을 휩쓴다. 추위가 막바지에 다 달았나 보다. 온종일 뛰어다니고 비행기에 매달리고 보니 맥이 풀린다. 순아 바로 이럴 때는 따스한 온돌방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순간적인 생각이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하기에 순아는 내 대신 따스하게 지내겠지, 다행한 일이다.

오늘 저녁은 야간비행이 시작된다. 드디어 해가 지고 칙칙함이 어두운 밤의 장막이 서서히 다가온다. 온 세계가 캄캄하고 가시같은 바람만 불어친다. 다만 비행장에 설치된 파랑, 노랑의 조명등이 곳곳에 켜져 마치 아름다운 어느 항구의 쓸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규정된 시간, 어김없이 지켜주는 서치라이터가 쉴새없이 회전하고, 내무반 창가에서 흘러오는 불빛들이 다정스럽기만 하다.

정비사 대기실에서 잠깐 휴식한다.

선임하사관의 야간비행시 안전에 관한 간단한 주의가 있다.

안전이란 우리를 정비사에게는 꼭 준수해야 할 말이요, 깊이 명심해야 할 언어가 아닐 수 없다. 순간의 실수는 고귀한 인명 피해와 국가 재산이 소모되는 것이다. 장비를 작동할 때 스위치 한 개를 잘못 조작해서 화재를 낸 사고가 있으며, 비행기에서 작업하다 주의를 게을리하여 성한 몸을 다치는 일도 왕왕 있는 일이다. 그야말로 정신적인 훈련과 긴장이 최고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나 야간에 작업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세심한 주의와 뛰어난 판단력은 곧 안전의 지름길이요, 정비사의 본분인 것이다. 「철저한 정비에 안전한 비행」은 정비사의 신조인 것이다.

순아, 가정에서도 그렇지. 구공탄 불도 안전한가 잘 보고 탄불이 방뿔으로 새어 오는가 잘 보아라. 문도 꼭 잠겨있나 확인해야 한다. 특히나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때에는 더 주의를 해야한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 동네 삼돌이 집에 불이 나 썩 타버린 그 때도 변소에서 피우던 담배꽂이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지. 이런 것도 다 안전을 무시한 거다.

순아 이제 몸이 풀린다. 바깥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분다. 그렇지만 나가야 한다. 비행기는 정비사가 띄워야 한다.

정비사 없는 비행기는 엄마가 없는 어린애와 같다. 정말 그렇단다.

조종사들이 나온다. 우리들은 나가야 한다. 말단 김일병이 내 앞에 먼저 나가면서 신나게 타고 있는 난로불을 힐끔힐끔 돌아본다. 나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순아, 지금 시간은 밤 열두시 반이다.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 왔다. 오늘의 무사함을 순아에게 돌리고 싶단다.

추위와, 육중한 비행기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과 그리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신적 인 경계와 몇 천 갈론의 연료와 씨름하고 난 다음의 육체는 글자 그대로 노고인 것이다. 하늘에 수놓은 별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공군에서는 별을 보고 나와서 별을 보고 돌아간다는 말까지 유행한다.

순아, 내가 처음 공군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거라고는 상상조차 않았지. 말쑥한 옷차림에 공군 모자만 쓰고 팬대만 놀리는 그런 군인으로 착각한 그때의 상상과 지금의 나 위치는 순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내 조국 내 민족의 하늘 한 구석을 내 조그마한 손길이 뻗었다면 나는 이 나라 자손으로 태어났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단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인내력은 내가 군에서 배워 온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란다.

순아, 여러 전우들은 어느새 곱아떨어졌나보다. 코고는 소리가 적막을 깨뜨린다.

나도 침구에 들어가려다. 멀리 너의 얼굴을 상상하고 고운 너의 숨결소리를 들어보려다.

창문을 때리는 요란한 바람 소리.

이 소리를 자장가 삼아보려다.

삼한사온의 계절의 법칙인지 오늘은 날씨가 포근하다. 바람 한 점 없고, 청명한 하늘은 더없이 넓고 푸르기만 하다. 순아, 분주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시간을 맞이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밀린 세탁을 했고 오후에는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대에 신병 5명야 배속되어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다.

혼자 투덜대어 보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군은 명령의 존엄성이 어느 단체보다 강하고 엄하기 때문이지.

약 2시간 가량의 교육이 끝났다. 정비사가 꼭 알아야 할 초보적인 지식과 지상안전에 관한 교육이었다.

비행기 정비란 하루아침에 배워서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중대 선임 하사관은 14년을 넘어서 정비만 해왔지만 아직도 미숙해서 부지런히 기술도서만 보며 일한다. 하기가 기계가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쳐놓은 호오스며 파이프를 하나하나 점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귀중한 국고를 투입하여 양성해 놓은 조종사의 생명은 정비사의 손길에 매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정비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순아, 하늘에서 묘기 백출하고 유성 같이 빠른 속도로 점과 선을 연결하는 제트기가 순아가 생각할 땐 조종사의 기술로써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그 비행기가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기까지에는 정비사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흘렀다.

피와 땀의 결정체.

이래서 우리 하늘은 철통같이 완벽하고 이렇듯 푸른 하늘 아래서 우리 국민은 행복한 삶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순아, 우리는 바쁜 생활에 쫓달리지만 순아는 이렇듯 긴 겨울을 재미있게 보내겠지. 뒷산엔 동백꽃이 빨갛게 피었고 앞산 계곡에는 백설이 수북이 쌓였겠지. 순아는 흰눈이 쌓인 그 계곡을 찾아서 낭만과 서정에 만취되었겠지. 정말로 꿈이라도 가고픈 내 고향의 설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조국의 부름에 할 일이 많다. 내가 하늘을 동경하고 훌륭한 파일럿가 된다고 자랑삼아 너에게 말했지만 국가를 위한 사명감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름 묻은 정비사다. 앞가슴에 찬란한 훈장도 없다. 오직 기계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정비사란 이름의 그것뿐이다.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그러한 군인이라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군인이고 시대가 요구한 젊은이가 아니겠는가. 나는 솔직히 너에게 고백하지만 이 고된 정비 작업이 어찌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금의 나의 시련과 나의 기술을 좀더 습득하여 사회 나갈 때, 나는 공군에서 배운 기술과 의지를 백분 살려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순아, 이제 막 비행기가 도착했다. 나는 다시 신병 3명을 모아놓고 비행기에 올라가 설명을 하려 한다. 하루속히 이들에게 자발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루의 일과 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비행장의 소음도 멈추고 한가하고 허전한 시간이다.

내일이면 토요일, 내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며 이만 끝을 맺는다.

순아! 부디 안녕.

공군을 지켜보는 눈

사명감 지닌 창의적인 공군이……

주영하

〈수도여사대 학장〉



NIXON의 중공방문을 전환점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물론 전 세계적인 정치 기상도가 하루 아침에 달라졌다. 여태까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원수들이 오늘에는 웃으며 다시 없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옛적부터 지정학적으로 보아 그럴 수 없이 불리하게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웃에 눌러서 살아왔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침통하게 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오직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영국이 대륙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대륙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인데 있어 치명적인 여건이었지만 일단 그들이 주체 의식을 갖고 독자적인 문명을 세우게 됨에 따라 섬나라라는 것이 다시없이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미·소·중·일 네 개의 초강대국에 둘러 쌓인 유일한 국가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역사적 숙명론을 전개하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영국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사실에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투철한 주체 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60년대에 들어서서 자랑스러울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거센 국제경쟁 속에서 이겨 나가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어떻게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또한 이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고을의 재투자를 요구하고

충분한 국방은 고을의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모순 가운데서 합리적인 점을 모색하는 것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나라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의 원조도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한편 미국의 무기는 그 경제구조 및 성격상 비슷한 성능의 다른 나라의 무기보다 훨씬 비싼 까닭에 우리에게 더한 층 큰 부담을 준다. 그러니 우리는 복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세한 전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출혈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무한한 고심을 하게 된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도 국군의 정예화요, 마지막도 정예화이다. 즉 최소의 병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방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장기적으로 우리의 힘을 더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복귀의 출혈을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그들의 힘과 야욕을 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이 정예화에 있어서 그 기수가 될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염원하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이 공군임에 두말 할 것도 없다. 우선 현대전의 개념 자체가 이를 필연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68년도 이스라엘과 아랍전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260만명의 유대인들이 1억 4천만이나 되는 아랍을 삼 시간만에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정예의 공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예화는 어느 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모든 구성원, 즉 조종사에서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각개 후방요원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정밀성과 투지, 사명감의 총화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협조는 강요에 의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비록 얼마간은 될지 몰라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이는 오직 모두의 참여의식과 정신적 보상을 복돋움으로써만이 가능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추진력은 제도나 조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각자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정예화는 바로 정훈교육의 성공여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뚜렷한 사명감을 지닌, 창의적인 하나 하나의 공군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공군은 무적의 공군이 되고, 나아가서는 무적의 국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을 지켜보는 눈 보다 넓은 속밧의 상징

김은우
〈이대 시청각교육원장〉



아들이 둘이 있다. 맏아들은 육군 보병이었고 막내아들은 공군 사진기술병이었다.

지금 본 둘이 다 제대하여 육군이었던 맏이는 대학 교수가 됐고 공군이었던 막내는 대학교 학무직원이 됐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인데도 둘이 판이하게 다르다. 큰 놈은 키가 작달막하고 다부지게 생긴데다 벌써 학자다운 티가 나는 두꺼운 안경을 썼다.

작은 놈은 키가 훗칠하게 큰데다가 미남형으로 멋까지 곁들어 있다.

신체적으로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취미와 흥미,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고방식과 태도와 행동 내지는 생활양식도 다르다.

심지어는 감정표현 양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필경 취미나 흥미나 사고방식과 태도와 생활양식과 감정과 성격이 다르게 된 것은 후천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군대 생활 중에서 육군으로 복무했느냐 아니면 공군으로 복무했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데서 달라지게되는 요인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육군을 나온 첫째 아이는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고 공군의 둘째 아이는 스키나 수영을 좋아한다. 둘이 다 좋아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아마추어 경지를 벗어날 정도다.

독서는 둘이 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육군 아이는 어려운 이론이나 딱딱한 내용의 책을 더 탐독하는가 하면 공군 아이는 철학을 대학에서 전공하면서도 부드러운 문학작품이나 수필을 많이 읽는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큰 아이는 우선 시작해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지구력 있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공군 아이는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을 쓰게 되고 일을 일단 시작하면 빠르게 처결하다가 두어 번 해서 안 되면 아주 깨끗하게 단념하기가 일쑤다.

무리하게 싸우며 맞서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공군 아이의 다른 기질이다.

안 하면 안 했지 구차스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하다거나 할까.

이런 형은 만사가 제대로 될 때는 몰라도 역경이나 부조리가 지배하는 장소나 환경에서는 견디어 내기 힘든 형의 인간이 아닐까 싶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다 보면 작은 일, 큰 일 한이 없이 별로 근거도 없는 차이를 늘어놓아야 할 것 같다.

비단 자기가 난 두 아들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국외로 육군도 공군도 장성을 비롯해서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이제 생각하면 뭣인가 꼬집어 바로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히 공통되게 다른 인상과 느낌을 주는 것만은 보장할 수 없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의 원인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실마리를 억지로 찾자면 이렇다.

불란서의 대문호인 「빅토르 유고」의 말을 빌어보면 “이 세상에서 땅이 넓지만 땅보다 넓은 것은 바다이고 또 이 바다보다 넓은 것은 아무래도 하늘이다. 그러나 이 하늘보다 넓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넓은 마음이다”라는 말이 내가 말하려는 우리 공군의 넓은 점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보다 넓은 것 속에서 사는 공군은 보는 눈이 시야도 육지보다·바다보다 넓은 것이고 생각하는 차원도 보다 넓고 보다 넓어야 할 것이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보다 넓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공군의 생태학적 원리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아는 공군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인간의 멋이 겉으로 붙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속멋이 곁들였다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눈에 비친 공군은 외모로나 정신적으로나 「멋」의 심볼같게 비쳐진다.

공군을 지켜보는 눈 연마하고 전진하는 공군

한갑수
〈대한일보 전무〉



옛날 이야기는 몰락한 사람의 푸념일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벼 한 섬쯤 벼 찧 들어 어깨에 메었느니, 잘 살 때는 자가용을 세 대씩이나 가지고 있었느니, 젊었을 때는 하루 용돈만해도 만원은 넘었느니, 이런 등속의 말은 대개 몰락한 사람이 자기라는 인물을 인정받기 위해 떠들어대는 푸념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의 경우에는 반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자의 회고담이 되고 괄목상대할만한 고증이 된다고 생각할 제, 일반의 경우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6·25동란 당시 22대의 경비행기를 가졌을 뿐, 한 대의 전투기도 없던 우리가 동란 당초에 맨손으로 경비행기에서 소형 폭탄을 적군의 머리 위에 내리던지며 싸우던 일을 생각하면 마하 2의 “팬텀기”를 가진 오늘의 입장에 서는 그때의 일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은 감상으로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우수한 차림으로 호시탐탐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만 정도의 발전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절치부심(切齒腐心) 적을 앞질러야 하겠다는 의분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1954년 필자가 “미국 앨라배머주 맥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지휘 참모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일을 회상하면 속상하던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 첫째는 핵무기에 대한 강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지시가 내리는 일이었다. 시간마다 누구든지 자기의 통신함(通信函 - Mail box)을 들여다보고 교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핵무기 강의 시간에는 반드시 “You are excused from the school hour No. 2”라는 쪽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다른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하루는 모의작전(Operations)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유진영 여러 나라는 녹색으로, 공산진영 여러 나라는 적색으로 그린 세계 지도를 크게 그려 붙이고 거기에는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그려 넣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나를 놀라고 슬프게 하였다. 그 하나는 우리 한반도 전체가 붉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F-51 프로펠러 전투기를 그렸는데 터키에는 F-100 제트

전투기를 그려 넣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적으면 지도를 그릴때 남한까지 붉게 칠했으며 한국동란에 수많은 미국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수억의 물자를 투입해 싸웠는데 한국은 아직 도 F51을 배치하고 “터어키”는 F100을 주었으니 도대체 우리를 필로 알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필자는 손을 들어 인권을 얻어 가지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긴급한 질문이니 당장 책임 있는 답을 주기 바란다. 첫째 남한이 언제 적화 되었으며 둘째 미국이 거대한 희생을 치르고 원조해 준 한국 동란에 F51을 한국 공군에 주었는데 싸우지 않고 있는 터어키에 F100을 준 진의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것을 듣기 전에는 강의를 들을 수 없다”하였다. 교관은 당황해서 도 안사(圖案士)를 불러 지도는 30분 이내에 고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공기 배당에 대해서는 자기로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대답이었다.

내 나름의 해석으로는 “터어키”는 “소련”의 핵심부에 접해 있는 나라로서 중요시 했고 한국은 비록 “소련”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핵심부가 아니라 소외된 변경(소외변경(疎外邊境))에 지나지 않으니 “미국”의 입장으로는 “터어키”가 “한국”보다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다.

또 하나는 일단 “한국동란”이 터지고 나니 단계적 훈련을 거쳐야 “제트”를 줄 수 있을 터인데, 싸우면서 언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미군”은 “제트기”를 쓰고 한국군은 프로펠러를 주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휴전 후에 우리가 충분한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때에도 F86을 상당히 오랫동안 쓰게 하였던 사실로 미루면 아무래도 “유럽”을 중시하고 “아시아”를 경시하는 사고방식에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책지심을 어찌할 수 없다. 지금 신에 항공기로 장비를 갖춘 우리이지만 북괴의 공군을 능가하는 장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 입버릇처럼 <“한국”은 맹방 중의 맹방>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감질만 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미군”이 우리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표면적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일까? 전략 내지 전술적으로 많은 장비를 주었다가 희생이나 크게 날 뿐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일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다. “미국”으로서 “한국”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그것이다. 그러면 운명적으로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벽찬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군을 지켜보는 눈들은

- 첫째 :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벽찬 훈련을 쌓으라.
 - 둘째 : 적을 감당할 장비를 갖추 때까지 이해시키고 조르고 보채라.
 - 셋째 : 미국을 비롯한 자유 맹방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에 금이 가지 않도록 힘쓰라.
 - 네째 : 국민이 신임하고 사랑하는 공군으로 연마하고 전진하라.
-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

공군을 지켜보는 눈 미완성 공군

봉두완
<동양방송 논평위원>



웃기는 일도 가지각색이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집 안에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머저리 동생이 하루는 의기양양해서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대낮인데 어디서 한잔한 모양이었다. 주말 휴가도 아닌데 또 나타났으니 틀림없이 몇 폰 뜯기는구나 하고 나는 반사적으로 입전태세에 돌입했다. 그런데 용돈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질문 공세를 퍼는 것이었다.

『형, 신문 봤어?』

『……?』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치켜뜨며 되물었다. 결국은 자기의 무용담에 관한 것인데 어젠가 그제 신문에 났다는 것이었다. 서울 근교에 침투한 무장 간첩을 자기가 소속한 공수부대에서 일망타진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마지막 두 명의 공비는 자기 분대에서 처치했다는 얘기였다. 확실치는 않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듯이 슬쩍 비치고 넘어가는데 그 대목이 바로 나를 웃겼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집 안에서도 별로 큰일을 못치를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모 2류대학에 다니는 등 마는 등 할 때가 바로 어제였다. 68년 여름철이었으니까 내가 모 신문사 주미특파원을 끝내고 막 귀국했을 때였다. 가족을 워싱턴에 당분간 두고 홀로 나와 있는 때라 그 문제의 틈에이저와 방을 같이 썼다. 나도 썰렁한 집안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지만 돈 한푼없이 나간 사이비 대학생 이 술이 고래 되어 그것도 내가 자리를 깔고 잘만 하면 찾아들어오는 통에 나는 그때 완전히 두 손 들고 말았다. 전화하는 걸 가만히 봐도 언제나 그는 상대방여자에게 애걸쪼다.

『내가 차 값을 가지고 나갈게 너는 교통비 좀 가지고 나와……』이런 식이 아니면 『내가 교통비는 얻어가지고 나갈 테니 네가 한 잔 사라……』는 식이어서

사람을 놀라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도대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친구보고 술 한 잔 사라는 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다가 처음 봤다.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 도의적으로 무질서하고 불건전한 장발족은 하기 싫은 공부보다는 차라리 군대에 보내는 편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대전군방에서 하사관 모집 시험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첫째 눈이 나빴다. 6·25 동안 때 일이지만 대구지방에 피난 갔을 때 나는 부푼 마음으로 공군 기술하사관 모집 시험에 응모했는데 신체검사서에서 두어바퀴 도는데 『불합격』 복창만 하고 끝난 적이 있었다. 안경쟁이 청소년의 실망은 너무나 컸다.

체중까지 모자라 공군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다. 이런 쓰라린 경험 때문에 빈약한 장발족 동생을 대전에 보내놓고도 사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니나다를까. 나의 예감은 틀림없었다. 신체검사과정에서 보기 좋게 낙방하고 머리만 박박깎고 돌아왔다. 요새 말로 공군본부 친구에게 얘기를 잘 해놓았는데 그만 운동장 몇 바퀴 돌다가 지쳐서 나오하고 말았다.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겪는 시련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백까지 다 써놓았는데도 떨어져 버렸으니 공군에선 소위 그 『뺨』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화가 안 날리 없었다.

더욱이 피난 시절에 내가 공군하사관 시험장 문턱에서 쫓겨났던 생각을 하게 되니 갑자기 분노가 터질듯 했다. 물론 핫김에 그 장발족 동생을 육군에 입대시키고 말았다. 그리고는 육군본부 친구에게 「육군에서 제일 훈련이 데가 어디냐」고 물었다. 하필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고생시키려 하느냐고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얼마 후 그 자유방임주의자는 육군에서 가장 힘들다는 공수부대로 배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몇 달 뿐이었다. 낙하산 훈련도중 정신을 팔았는지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낙하산부대의 훈련과 기강은 무서웠다. 그래서인지 부러진 다리도 생각보다 일찍 나았다. 휴가만 나오면 밤낮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3년이 흘렀다. 간첩을 사살할 만큼 늙은 청년 하사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18년 후배인 내 친동생은 언제나 애교가 있어 좋았다.

형, 우리가 간첩 소탕전에 나섰을 때 나는 정말 어리둥절했어. 갑자기 누가 저기 간첩이다! 하고 소리 치기에 무작정 M16을 갈겨 댔지. 분대장이 날더러 고만두라고 한심스럽게 말리더군.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간첩은 이미 죽어있었어. 결국 내 동생의 선임하사관이 사살한 무장공비 덕분에 내 동생과 전 분대원은 일계급 특진을 했다. 바로 그것이 어느 신문에 났다는 얘기였다.

공군을 지켜보는 눈 달라진 옛 친구

한상욱
〈해군 중위〉



만 2년만의 휴가.

휴가는 군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의 선물 중의 하나이며 특히 오랜 동안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우리 해군에게 휴가는 무엇보다 즐거운 낙이다.

그간 못 만났던 친우를 만나기 위해 시내에 들어가던 중 절제있게 걸어가는 한 공군을 보았다. 뒷모습이 극히 익은 모습이라 혹시나 하고 쫓아가보니 친구 철이었다.

『야, 철이 아니냐, 오래간만이다. 여기서 만나다니.』

반가운 마음에 껴안다시피하며 손을 잡았다.

『오래간만이군, 별일 없었나?』

차분하고 점잖은 - 내가 알고 있던 그에 대한 인상과는 전혀 다른 - 그리고 의젓한 자세였다.

난 잠시 어처구니가 없어 멍했다. 의아와 당혹 속에 그의 옛 기행(奇行)이 주마등같이 머리 속을 스쳐갔다.

2년 전에 우린 나란히 대학문을 나섰고 철은 공군으로, 난 해군으로 갈라져 입영했다. 그리고 우린 만나지도 안부도 전하지 못한 채 2년을 떨어져 지냈다. 철이와 나는 기행의 애찬자이며 인생의 치부를 들춰 비웃는 자학의 현실 염세가였다. 강의실보다는 다방을, 집보다는 대포집에서 더 많은 시간과 밤을 바쳤다.

이런 행위가 바로 진실된 공부요 현실파악의 정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공감을 얻으려 했다.

상야담 속에 서의 학문연구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투덜거리며 거리를 헤맸고,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무전여행을 즐겼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린 이 생활 양식을 청산하지 않고 입영했다.

회상 속의 철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철이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다는 사실을 알자 나는 어민가 서떡하고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건넸다.

『바쁘지 않으면 차라도 한잔하지?』

난 예기치 않게 만난 반가움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그의 우여곡절에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그러세, 그럼 내가 갈 다방으로 가세』

철의 약속장소로 된 다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차가 올 때까지 난 전혀 말을 걸을 수 없었다. 전에 보지 못하던 의젓함, 은근히 풍기는 위엄에서 발광하던 옛 모습을 잃어버려 말의 서두를 잡을 수가 없었다.

『자네 왜 말이 통 없나, 옛날의 자네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려려 반문하는 걸을 보고 은근히 화도 동하고 땀살스러워 의식적인 반감으로.

『야 입마 넌 왜 통 말이 없나?』

『으핫핫핫.....자네 화냈나?』

그의 웃음소리에 비로소 옛 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철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옥이 자네 옛날의 철이와는 다른 철이가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 할 걸세만, 이야기를 하지. 괴벽을 가진 채 입대한 내게 공군은 내 일생을 탈바꿈하는 커다란 전환점을 갖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네. 인생과정에 있어 커다란 시련과 남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사회의 악이 된다는 것을 절감한 셈이지. 군에서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었네. 비밀에 속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 사고를 저지른 난 내무반에서 근신하는 동안 내 과거를 회상해 보았지. 허위와 자기기만과 궤변에 흡족하는 자신 아집과 편견에 묻혀진 것이 내 과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버렸으면 할 정도로 부끄러웠네. 그 후의 내 생활은 양상을 달리 한 변형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진진하고 성실된 인간이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중이랴네』

난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철의 군생활이 그를 성실된 인간으로 되는 모티브가 되었다니 옥이 공군에서.....

그때 철의 곁에 사뿐히 앉으며 나에게 목례하는 여인이 있었다.

난 아무 말도 없이 다방문을 뒤로 하며 보행인들 속으로 파묻혀 갔다. 내 자신의 현 위치를 되짚으며.....



공군을 지켜보는 눈 스핑크스

황경렬
〈한대 신문학과〉



B형,

두 달만 지나면 제대시라고요. 이제 다시 복교를 해서 대학생활을 계속하시겠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못 대하던 형의 그 호탕한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형의 그 발끝을 슬쩍슬쩍 드시며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피땀혀 죽어간”이라든가, “○○가 더 좋아”를 뽑으시곤 예의 그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의라는 것, 남자라는 것. 설사 군문제를 떠나서라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말씀하시던 형의 내적 지주가 정반대의 상반된 외형으로 나타나 는 현실에서 괴로와한 것은 유독

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게고 「우리」의 공동인자일 겁니다.

입대하시기 전날, 기분 좋게 “○○가 더 좋아”를 뽑으시곤 “가라. 그리고 죽어라.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 난 그대들이여.

가라. 그리고 괴로워하라. 반드시 괴로움을 겪어야 할 그대들이여.

가라. 죽어라. 그리고 괴로워 하라.

그러나 마땅히 되어야 할 하나의 인간이 되라.”고 술집이 떠나가라고 고향치시던 말씀은 「R·로오랑」의 말이던가요.

몇 해 전 여름날, 어떤 이유였는지 짙 짙 빗속에서 웃옷을 벗고 학교 뒷마당에서 싸우던 생각이 납니까?

그때 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됐던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속옷까지 몽땅 젖고 이빨이 시근덕거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릴 텐 바로 이렇게 남자로우나 하는 걸 느꼈다오.

B형,

오늘 나는 뜻밖에 형이 속해있는 「공군」지에서 「공군을 지켜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원고청탁을 받고 꽤 낭패를 보였소.

왜냐하면 공군하면 B형, 당신으로 직결되는 나의 편협한 생각이 편집자의 의도를 그르칠 것 같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난 이내 안심하고 말았소.

공군을 지켜보는 눈 푸른 「유니폼」의 매력

차민희
〈부산 남녀자중학교〉



형은 전형적인 공군, 모범적인 공군일 테니 말이요.
지난 가을, 형이 없어 사뭇 고독(?)하였던 나는 형과 자주 가던 「돌집」에서 양
껏 취했었소. 무교동을 지나는데 담배가 떨어 졌더랬소.

마침 군인이 오길래 거수경례를 붙이고 “담배 좀 쥐!”고함을 치니까 그 군인
“이 새끼...”하고 그 큰 주먹으로 내 배를 치는게 아니겠소. 그리곤 아주 공손
한 자세로 이것밖에 없는데 하고 「화랑」을 다섯알이나 주었었소.

물론 그 군인이 공군이었소만 나는 그만 B형, 당신의 이신(異身)을 보는 것
같아 감격하고 말았소.

그래요. 공군은 확실히 멋과 맛이 있더구먼.

모두들 세련되어 있고 「O군」 졸병의 촌담같은 내음은 전혀 없는 군이 바로
공군이 아니겠소. 결코 이건 B형, 당신한테 하는 아부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공군」하면 언뜻, 「스핑크스」를 생각하게 되요.

지혜의 상징인 인장의 머리와 용감한 사자의 하반신에다 날개까지 달았으니
흔히 「독수리」로 상징되는 공군에겐 이 「스핑크스」가 더 어울릴 것 같소. 지
적 내음을 풍기는 공군에게 말이요.

무릇 현대전에서 공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소.

육·해를 커버하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술효과 면이나 시간
성 때문에 더욱 공군의 임무가 중차대한 것 같소. 형은 언젠가, “졸병으로 가려
면 공군, 장교로 가려면 O군...”이라는 생각으로 공군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자못 사명감에 불(?)탄 말을 한 적이 있었소.

군인과 대학생... 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책임질 계층이 아니겠소.

군인과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같으며 현대에 직면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젊
은이」라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 하겠소.

B형,

이제 얼마 안 남은 군 생활에서 나는 감히 형에게 부탁할 말이 있소.

형은 지금 「티탄상사」가 된 기분으로 내무반장 노릇을 하고 있을 줄 아오. “
역시 군에 서는 「휴머니티」를 제거하고 「명령」이다”라는 말을 형만은 단호히
저항하여야 하오. 더욱이 형과 형의 부하는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공군 「스핑
크스」가 아니요. 공군만이라도 영똥한 「명령 복종」보다도 따뜻한 「휴머니즘」
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또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군이 되었으면 하오. 나는 현
상태에서 그래도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공군이 아닌가 하오.

결국 「졸병은 공군」이란 말이 이러한 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료. B형 동촌비행장에서 비행기 앞부분에 몸을 담고 머리만 내밀며 찍은 형
의 사진을 받고 나도 공군을 지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소. B형, 제대하는 날
숨겨진 공군의 멋을 들려주요. 「돌집」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공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은지도 1년이 가까워지던 지난 11월이었나 보다.
이름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은 들쪼개서 마치고 나서 다 먹어버린 우리들은 운
동장으로 나가 한창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미래의 부푼 꿈을 이야기하다가 암전한 경순이의
『너희들은 육·해·공군 중에 어느 군인이 가장 낫노?』

라는 물음에 공군과 해군이저씨들께는 정말 미안하지만 사촌 육군오빠를 생
각하고 『육군』이라고 내 귀가 도망갈 만큼 큰 소리로 말하고는 겹연쩍어 얼
굴을 붉혔다.

다른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공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탓도 있겠지만 「하
늘을 날으는 공군」이 최고라면서 고함을 지르더니 송아지란 별명을 가진 혜
경이가 공군가를 부르자 모두 고함을 지르며 학교가 떠나갈듯이 불려댔다. 나
도 공군가를 부르면서 박쥐처럼 육군(?)편에서 공군편으로 옮겨갔다. 2절까지
힘차게 다 부르고 나서야

겨우 우리들의 천둥소리(?)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내가 공군가에 나오는 「무덤」
이란 낱말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노래를 부를 때는 아무
렇지도 않았는데 모두들 으스스 등이 떨려온단다.

『용감한 남여중 학생으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말에 모두 바로 앉아서 다
시 공군가를 불렀다. 이번에는 정성을 많이 들여서인지 고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주위의 다른 아이들도 따라 불려서 어느덧 우리는 대규모의 합창단을
이루었다. 은은한 멜로디는 바다도 산도 우리 학교도 춤추게 만들었다. 학교
전체를 진동시키던 우리들의 합창은

『야! 비행기다!』

라는 어떤 아이의 소리에 중단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유치원생이 그녀를 서로 타려고 하듯 다투어가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비행기가 남긴 푸른 하늘의 흰 줄무늬는 어쩌면 저렇게 공군이 저씨의 푸른 제복과 비슷할까?』

『가장 멋있는 것은?』

다시 퀴즈문제인양 문제(?)에까지 번져 갔으나 역시 「공군」이란다. (사촌오빠도 인기 많은 공군이나 되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공군의 푸른 제복이 아주 멋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회양, 공군이나 되시죠? 차민회 일병님……?』

『호호호, 하하하……』

『연습삼아 우리에게 경례나 한 번 해보시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공군 아저씨들은 모두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군인이라면 어딘가 엄하고 딱딱하기라도 할 터인데 언제나 환한 웃음과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 주신 공군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재작년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대장님은 윤대령님이셨는데 다음에 오신 엄대령님도 가시고 이제는 이중령님으로 세분의 부대장님을 모시게 된 셈이다. 모두들 좋은 분이시지만 엄대령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 오실 때도 가실 때도 내가 꽃다발을 드렸기 때문일까?

작년 12월 18일 우리 학교에서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부대장님이신 이중령님께서는 대통령각하의 비상사태선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자 우리들은 정열 된 줄도 흐트러지고 자세도 바르지 못하여 남여중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을까봐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마음씨 좋은 우리 공군아저씨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셨겠지.

『공군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합!』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흐리던 날씨가 1주년 기념식 때 맑게 개였다는 건 더욱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푸른 하늘엔 꽃구름이 떠가고 환하게 비추이던 햇볕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나래만을 펼친 채 마음껏 춤추며 날고 있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리 공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큰 인연을 하늘에서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라』하시며 기뻐하셨다.

기념식을 마치고 공군 아저씨들께서 퇴장하실 때 내 뒤에 있던 아이는 평소 교장선생님께서

「박수를 치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날이라도 실감하려는 듯 박수는 안 치고 팔짝 팔짝 뛰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

『쫓쫓, 가엾게도 머리에 열이 있나 보군.』

하며 극성을 부린다.

『야! 깜짝야』

아마 뒤에서는 선생님의 손이 벌써 그 애들의 머리에 불쑥 흑을 만들어 놓았으리라. 불쌍하게도 잘 울지 않는 아인데 무척 아픈지 울음 소리가 들린다. 아니 아파서만은 아니 리라. 살짝 뒤돌아 보니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울지 말라고 달랬더니 그 애들은 눈물로 뒤범벅이 된 더러워진 얼굴로 상그레 웃는다. 꼭 도깨비 같다고 생각되어 카메라가 있으면 찍어둘만한 우스운 표정이었다.

어느덧 뜻 깊은 1주년 기념식은 막을 내리고 푸른 군복도 푸른 버스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눈을 돌리면 푸른색은 보인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공군 아저씨! 불려만 봐도 씩씩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어쩔 우리 학교와의 배구시합 때는 언제나 지는 일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것이 신기하다는 우리 반 아가씨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 공군 아저씨들의 실력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계신 능름한 모습이 보고 싶는데 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지 않느냐는 우리 학교 학생 일동의 의문— 아저씨들은 촌스럽다고 웃으실지 몰라도 모두들 꼭 보아야만 하겠다.

『식물성입니다. 무엇일까요?』

『푸른색 입니까?』

『예』

『공군아저씨들의 군복』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아저씨들의 얼굴빛 까지도 푸른색으로 착각할 것 같다. 하하하…호호… 공군이라면 푸른 제복 다음에 아저씨들의 얼굴이 생각날 정도로 푸른 군복은 우리 소녀들에 게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다.

푸른 하늘, 바다, 푸르디 푸른 소녀의 꿈, 아저씨들은 아마 모르실 거다. 중학교 여학생들이 공군아저씨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푸른 가로수 길들이랑, 푸른 군복이랑, 아저씨들의 모습이랑, 우리들의 위안공연이랑 모두 모두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을 아마도 모르시리라.

◆ 편집자주 : 부산 남여자중학교는 1970년 12월 공군 제9952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위문품전달, 장병 위안공연, 모범용사 초대 등으로 군민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차 민회양은 동교 학생회 부회장이며, 부산 동양 TV 전속 텔런트이다.

화성 혹은 외계 어느 곳에 생물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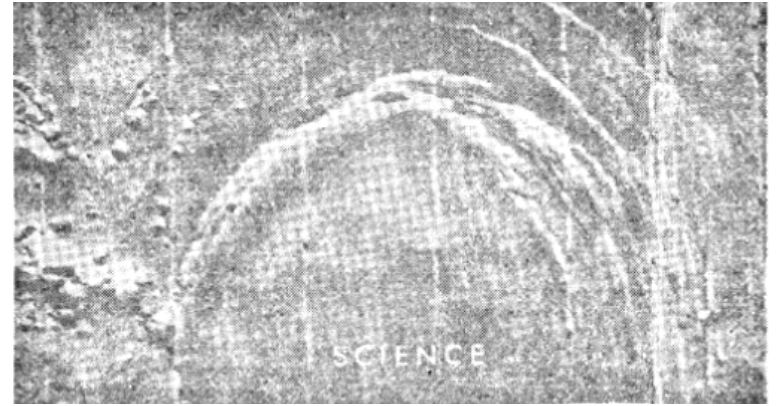
구본술 <편역>

외계에 생물이 있다고 나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갖고 있으며, 또 우리 인간은 이것을 탐색해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탐색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우리 문명의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천문학자 <Carl. Sagan>

인간들이 천공을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도 판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에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 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을 풀어보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우주비행사업의 정당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합리적 이론을 관계관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역시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절정에 달해 있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의 성과로 달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사실 이 판명되자, 지구의 두 강대국은 다음의 목표로써 화성 탐험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미국의 Mariner 9호와 소련의 Mars 2호 등 2개의 우주선이 지금 화성 주위를 돌면서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화성의 지세 등 환경 조건을 탐색하여 9천만 마일의 원거리에 있는 지구에 그 자료를 송신하고 있다. 소련의 Mars 2호는 적재하고 간 캡슐 한 개를

<그림 1>



<화성의 적도 근방에 있는 분화구 직경이 약 70마일 가량 된다.>

화성 표면에 연착시켰는데 이 기구는 아마도 화성의 토질과 대기를 분석하게 될 것이며, 또 생명체의 존재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또 다른 우주선을 발사하여 지금 화성을 향하여 비행중인데 이 우주선도 화성 표면에 연착할 수 있는 캡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과학자들은 금년 2월에 발사하여 6~7백일 간의 비행 후에 생물이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목성에도 달할 Pioneer F. 우주선 계획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1973년에 이 우주선은 태양계의 9개 혹성 중에서 가장 큰 목성 부근을 지나가면서 이에 관한 사진과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지구에 송신해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성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소련은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화성 탐색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며 미국의 Viking 2 우주선은 생물 탐사장치를 싣고 1976년에 화성 표면에 연착하게 될 것이다.

우주생물학의 대두

우주 생물학이라 불리우는 과학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금 선진국에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학문은 지난 10년 이후 창시되어 지금까지 특히 외계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고생물(古生物) 학자들은 이 우주 생물학을 두고 비꼬아서 말하기를 「이런 이름의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먼저 실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각 관계 연구기관, 거대한 전파 탐지기를 갖춘 천문대 혹은 일부 국제적인 과학회의 등에서는 이 분야에 중사하는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이 새로운 분야의 과학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에 미국과 소련의 Armenia의 과학 협회 주최로 지방의 천문대에서 세계의 저명한 학자 수십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이들은 「우리가 외계에서 오는 전파를 감청할 가치가 있을까?」하는 흥미로운 의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 한 일이 있다. 이때 그들의 일치된 결론은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소련, 체코 및 헝가리 등 제국가의 대표들은 『외계의 문명 세계탐색을 위한 노력은 온 세계 인류의 대표 단체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결의에 전폭적인 찬의를 보였다.

들뜬 이 회의의 친선 분위기 속에서 소련 대표단은 그들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감청하기 위하여 이미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란 사실을 주저함이 없이 밝혔다. 50ft 짜리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여 비교적 근거리에는 50개의 별에서 방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신호를 포착해 보려는 의도하에 그 별들을 한 개씩 차례로 탐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4개 지역에 설치된 전파 관측대에서는 과학 기술문명의 소산인 외계의 전자 에너지 신호를 포착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는 미국의 유일한 우주 생물학 연구기관인 NASA의 Ames Research Center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신기서 참석자들은 Project Cyclops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사업은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한 것으로써 우주에서 전해 오는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3개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외계 생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우주 생물학자들은 이 우주에는 틀림없이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물이 널리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찬의를 표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다른 여덟 개의 혹성에는 지적인 생물이나 과학 기술 문명 세계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만일 이들 혹성이나 혹은 그 위성에 지적인 혹은 과학기술 문명이 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그들로부터 전파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그들이 이 지구를 방문했어야 옳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들 혹성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생물이나 적어도 과거에는 서식했었다는 단서를 발견해 보려고

열망하는 과학자들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황량한 화성 표면

과거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물의 서식처로서 화성을 손꼽아 왔다. 구름으로 감싸인 금성

다음으로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며 특히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혹성이다. 망원경을 통하여 관찰하면 계절이 바뀌면서 지구의 것과 같은 화성의 극권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모양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다른 계절의 변화로서 봄철에 극권으로부터 번져 나오는 검은 지역을 두고 천문학자들은 빙하가 녹아서 물이 번져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상은 1960년대에 Mariner 우주선이 화성의 첫 근접 사진을 보여준 후에 완전히 무산하고 말았다. 이 우주선이 전송해 준 사진에 의할 것 같으면 화성 표면에 생물이 서식하기에는 너무나 황량한 지세임을 보여주었다.

즉 말하자면 상상하던 바다나 초원이라고는 없고 단지 너무나도 뚜렷한 분화구들로 곰보같이 얽은 달의 표면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Mariner가 측정한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에 불과하였으며, 이 대기는 미량의 수분과 함께 주로 탄산가스(CO₂)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화성의 대기층에는 지구의 오존층과 같은 보호대가 없었다. 이는 지상에 있는 생물에 치명적인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이 끊임없이 화성 표면에 내리 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Mariner 우주선들은 화성 부근에서 자장(磁場)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또 화성은 그 내부에 지구와 같은 뜨거운 철핵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추리해 보면 화성은 지구의 표면에서와 같이 생명체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의 진화를

<그림 2>



<Mariner 9호에 놀란 화성 인간의 시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자체의 열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화성에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일반인들이나 일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탐색 결과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생물학계의 가장 열성적인 대변인인 Cornell 대학의 천문학자 Carl Sagan 교수 같은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수천마일의 거리를 두고 화성을 비행한 Mariner 우주선이 생물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Sagan 교수는 기상 관측용 인공위성이 촬영한 지구의 사진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 위성이 찍은 수천장의 사진 중에서 단지 한 장만이 인류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었다. Sagan 교수는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한동안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이 지구에는 생물이 있을까」라는 반문을 제기하여 마지막으로 기발한 이론으로 결론지었다. 이 기발한 이론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화성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의 자동차들이 지구상의 대표적인 생물의 형태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자동차들은 움직이고 먹고 배설하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물로 판단하게 되어 우리의 대기권 환경도 이 자동차들이 생존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상상을 하게 될 것이라 것이다.

우주 생물학자들은 화성에 생물이 있다고 굳이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화성 표면의 황량한 조건을 들어 생물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상의 유기체들도 빙하지대의 춥고 황량한 양극에서나 바람이 잘 날 없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그리고 수압이 대단한 심해의 밑바닥과 같은 환경에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Maryland 대학의 한 우주 생물학자가 부가하기를 온천의 끓는 물 속에서 뿐 아니라 유독한 액체 속에서도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 생물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실증하기 위하여 화성과 같은 환경, 즉 탄산가스와 미량의 수분으로 조성된 극한(極寒)의 환경 소위 「화성 항아리(Mars Jars)」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속에 미생물을 폭로시켰다. 그 결과 이들 미생물의 일부는 이러한 환경에 곧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유 진영 제국가의 과학자들은 소련의 화성 연착륙 캡슐이 만약 철저하게 소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화성 표면에 지구의 생물체를 유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년 2월 초에는 Mariner 9호가 새로운 사진을 지구로 송신하고 있어 과학인들을 열광케 하고 있다.

이 사진을 통하여 화성 표면의 물이 메마른 하상(河床)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이 검색된 수증기의 양으로 미루어 보아 화성에는 원시적인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 최근 사진에는 또 화성의 남극지대의 얼음이 깨지고 있어 이곳 과학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우주 생물의 특이한 생태

우주 생물학자들은 화성 생물이 현재로서는 칩거(蟄居) 중일지도 모른다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Sagan 교수는 화성이 지금 빙하시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화성의 북극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만 태양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북극 지방이 충분한 태양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00~12,000년 후에는 화성의 자세가 서서히 변해서 태양에 가까울 때 충분한 열을 받을 수 있도록 북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부 지대의 빙원이 녹아서 다량의 물이 화성 표면과 그 대기중에 배출되어 오랜 빙하시대를 통하여 동면 중이던 나태한 생물들이 다시 번식하는데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으로서 Sag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가설을 전연 부정한다는 것은 지구환경에만 제약 되어 살아온 우리의 너무나 배타적인 습성 때문이란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사상은 물과 산과 산소가 없이, 혹은 강한 자외선 하에서도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연 생각해보지 못한 학자들에 의해서 오랜 세대를 통하여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생물은 지구환경과 전연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체는 먼 옛날의 지구 대기 중 산소가 전연 없을 때에도 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조기의 생명체에게는 산소가 다만 유독한 가스에 지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화성의 유기체는 지상의 일부 특이한 세균들처럼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번창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일 이화성의 유기체들이 수분이 필요하다면 점점 그 생리가 진화하여 황량한 화성의 지표나 바위 등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Sagan 교수가 추측하기를 태양의 자외선이 너무 강하여 이들 생물들의 생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 몸내 규산염으로 된 강한 거죽이 발달하여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가지 그의 기발한 이론은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자외선을 많이 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북과 같은 거죽을 가진 수많은 생물들이 이 자외선을 모두 흡수해 버리기 때문일 것이라 것이다.

지구상의 식물은 태양의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받을 것 같으면, 이를 대량으로 반사하는 특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화성에서는 이러한 광선들의 반사가 없는 것을 들어 생물이 없다고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화성 탐험에서 화성의 어떤 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다. Mariner 9호가 지금 두 개의 TV카메라와 자외선 및 적외선 감광 장치를 이용하여 화성의 표면과 그 대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 중인데, 이 우주선이 화성의 생물을 포착해 낼 수 있을 만큼 그 표면에 접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인들은 화성에 연착할 Mars 2호에 소련기를 실어 보냈다고 선전이 대단하지만 관심사인 생물탐색 장치나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간에 Mariner 9호는 화성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 중요한 새 사실을 추가해 주었다. Mariner 9호가 화성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래 바람을 뚫고 촬영에 성공한 남극 부근은 놀라울 정도로 평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극지방의 빙원이 계절에 따라 커졌다가 다시 감퇴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표면이 쓸려서 점점 평탄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극 지방에는 이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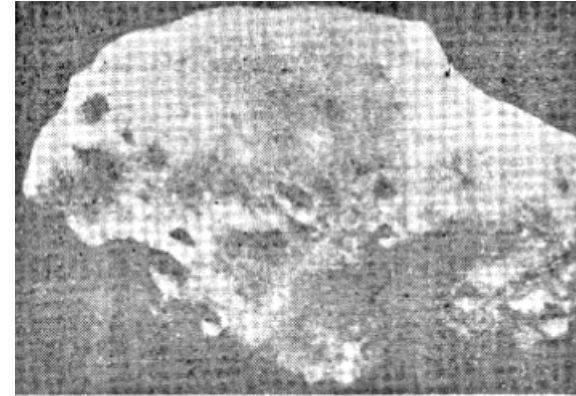
Mariner 9호는 또 화성 표면에서 4개의 분화구를 포착했는데 미국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사화산(死火山)이라고 판단했으며 그 중 한 개는 비교적 근래에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우주 생물학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왜냐하면 지구의 원시 대기권에서 아미노산 생성의 기본이 되는 가스가 대부분 화산의 분화구를 통하여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Mariner 9호는 또 한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즉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두 위성의 근접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준 것이다. 이 사진을 컴퓨터를 통해서 정밀히 판독한 결과 수년 전 소련의 천체 물리학자인 Shiklovskii가 주장한 이론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자는 화성의 위성 중 하나인 Phobos가 궤도상에서 취하는 운동 형태를 볼 때 이 위성의 내부는 공처럼 텅 빈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이 위성은 지금은 소멸된 먼 옛날의 화성 문명인들이 궤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전송 사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두 개의 위성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로 얼키고, 그 표면은 곰보와 같은 위성에 지나지 않았다.

화성에야 생물이 있든 없든 간에 끈질긴 우주 생물학자들은 외계 생물을 찾아서 목성이나 더 나아가서 금성을 탐사할 것이다. 이 두 혹성에서 생물의 존재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목성의 대기압은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성의 표면 온도는 화씨 800° 로서 납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대기압과 온도가 적당한 부위에서는 유기체가

<그림 3>



<화성의 달 Phobos의 근접 사진. 유성을 얻어 맞아 표면이 곰보같다.>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Sagan교수가 추측하기를 목성에 있는 생물의 한 형태는 마치 바다에서 부유생물을 먹고 사는 고래와 같이 목성의 뾰뾰한 대기에 떠다니면서 유기체들을 삼켜 먹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와 유사한 모양의 생물일 것이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양을 돌고 있는 다른 모든 혹성에서 생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주 생물을 찾고 있는 학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항성계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들 과학자는 생명의 탄생이란 만약 우주 어디에서든지 적절한 환경 조건만 갖추면 결코 기적일 수만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수한 항성들

인간은 과학적인 확증이 있기 전에도 벌써 외계 생물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의 쾌락주의 철학자인 Metrodorus는 말하기를 「이 무한한 우주에서 유독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마치 온 세상 들판에 심은 무수한 수수씨 가운데서 단지 한 알만이 싹이 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망상이다」라고 하였다.

중세기까지도 기독교 교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리에 위배되는 이론을 발표하면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Copernicus와 그의 제자들은 극히 진보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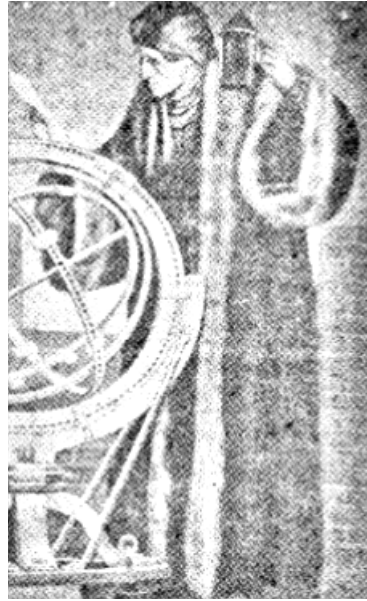
Copernicus는 당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그의 방대한 저서인 「천체운동에 관하여」를 세상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그는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라고 주장한 Ptolemy 학설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다년간의 관찰결과 그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가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그는 또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개의 행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의 수제자였던 Bruno는 여기에다 더 한층 파격적인 이론을 추가했다.

즉 그는 이 우주에는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지구(행성)들이 우리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일곱 개의 행성(그때까지 알려진 태양계의 행성수)과 같이 이들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이 모든 행성에도 생물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Bruno는 비록 이단자로 몰리어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학설은 후세인들에게 꾸준히 전해 내려왔다.

사실인즉, 망원경이 발명되자 이를 통해서 천체를 관측한 모든 사람은 행성이 단지 조그마한 볼륨에 지나지 않는다는 종래 학설의 허구성을 알게 되었으며 이 모든 행성이 다 생물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18세기의 천문학자인 Bode(이 사람은 태양으로부터의 각 행성의 거리는 앞에 있는 것보다 각각 2배씩의 거리를 두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Bode학설 창시자이다)는 그의 Bode학설을 행성에 사는 생물의 지적 수준에도 정비례해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태양으로부터 네번째의 행성에 있는 화성인은 세번째 인 지구인보다 지적 수준이 의당 더 높아야 되는 것이다.

1877년, 이태리의 천문학자인 Schiaparelli는 화성을 관찰하는 중 그 표면에 검은 긴 줄을 발견하여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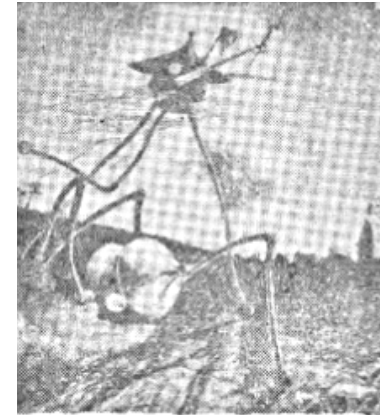
<중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Nicolaus Copernicus>

그가 말한 이 줄이란 이태리 말로는 단지 하상 혹은 긴 홈(Canali)이란 의미였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운하(Canal)라 오역되어 인공적인 운하를 의미하게끔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되어 주일 미대사의 외교관 경력이 있던 Percival Lowell이란 사람이 천문학을 시작하게 되고, 또 화성에 대한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한 천문대를 건조하고 구름이 많지 않은 미국의 아리조나주 Flagstaff에 세웠다. 그 후 Lowell은 화성 표면에서 수백 개의 운하를 발견하여 이것이 인류보다 진보된 문화의 소산이란 이론을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이 운하들은 규칙있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또 지구에 서도 보인다면 이는 틀림없이 거대한 것으로서 막대한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에는 지구보다 선진 문명세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8년에 미국에서는 Welles의 소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이 극화되어 전국에 방송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 당시 미국 사회에 큰 공포를 일으켰다. 당시의 사람들은 화성인이 곧 지구를 침공해 오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외계에도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과학자들의 신념의 배후에는 과학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다. 이 뒷받침이란 오늘날 인간이 생명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거의 접근하게 된 연구 성과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 학설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유기체의 생성과 그 진화는 지구가 형성된 조금 후인 약 46억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지구 대기는 암모니아, 메탄, 하이드로젠 등의 가스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추측컨대 이 초기의 대기는 태양의 자외선과 대 기권 내에서의 번개 나 하전(荷電)현상 혹은 지구 표면에서 내뿜는 강한 열로 인하여, 그 가스들이 대량으로 파괴되어 다시 새로운 것으로 형성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부 가스 분자들이 대양(大洋)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생명체와 단백질의 주성분인 유기체의 합성, 즉 아미노산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초기의 혼란속에서 핵산의 기본이 되는 화학물질이 형성되었으며 이 핵산이 생식세포 내에서 단백질 생산핵산(DNA) 역할을 하는 데스옥시리보 핵산(DNA)의 구성체가 되는 것이다.

<그림 5>



<화성인들의 지구 침공(우주전쟁에서)>

번식성(蕃殖性) 분자의 출현

결국 수백만년동안의 헤아릴 수 없는 상호작용을 거쳐서 명이 상당히 긴 분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특수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즉 이 분자들은 동질의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아마도 그 방식은 이 분자가 다른 화학적 물질을 흡수해서 동화시키면서 분열을 일으켜 기본 형태와 같은 것이 생산되고 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번식성 분자의 출현으로 생물학적인 진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위의 가설은 시카고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노벨상 수상 화학자인 Harold Urey박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연구진은 초기의 대기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에 전류를 보냄으로써 아미노산이나 기타유기체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실험을 되풀이하였다. 즉 자외선을 이용하든가 램프를 이용한 열전도, 혹은 충격파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또 마이애미 대학의 Sidney Fox교수는 시험관 속의 아미노산을 단백질 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화학 분야의 큰 업적을 이루었다. 휴스턴 대학의 과학자들은 초기의 지구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 핵산과 같은 화학성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와 같은 화학적 결합 변이가 외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매년 지상에 떨어지는 수천 개의 유성(별뚥) 중에서 약 2%는 유기물 혹은 탄소가 풍부한 화학물질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들 유성에는 아미노산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외계 미생물의 화석화된 잔재가 함유되어 있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아미노산이나 미생물의 흔적은 별집처럼 생긴 유성이 대기를 뚫고 들어 올 때 혹은 실험실 환경에서 오염된 것이라는 의견을 일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에 떨어진 유성에서 17종의 아미노산을 검출해 내어 편광(偏光) 검사를 해본 결과 이들은 분명히 외계에서 온 것이라 확증을 얻었다.

은하계의 문명 세계들

태양계 이외 지역에서도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증거는 더욱 명확해 지고 있다. 1968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의 초점을 태양계가 속해있는 은하계 중심부에 겨누어 두었다. 이 거대한 전파 탐지장비는

암모니아 분자에서만 유출되는 방사체를 포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분자들은 방사선을 받으면 식별이 용이한 특수한 전파를 방출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안정된 완전한 분자가 우주 공간에 가득찬 가스운(雲) 사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이 있는 뒤에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에틸알콜 및 수분을 포함한 20여 종의 분자가 광막한 우주에 널리 산재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안정된 분자의 존재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전 우주를 통하여 지구상에서 생명 발생의 기원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화학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Sagan 교수는 「우주의 모든 곳에서 생명체의 창조 과정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외계에 있는 생물의 형태는 지구의 것과 유사한데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지구와는 별개의 환경과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Sagan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만약 지구의 발달과정을 되풀이한다면 똑같은 자연조건 하에서도 인간을 닮은 생물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난 과정을 보면 너무나 우연한 사건으로 증만하여 있다.」

약간은 일방적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혹성이나 그의 위성에만 국한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먼지나 혹은 고열의 항성 표면에서 살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외의 다른 항성들도 혹성을 거느리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인간이 만든 최대의 망원경을 갖고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항성에 속해있는 혹성조차 발견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시계 내에 있는 우주공간에 만도 수십억개의 혹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태양아란 은하계의 수천억의 별 중 단지 평범한 한 개의 항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은하계는 무한한 우주의 수십억 성군(星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생각할 때 태양만이 혹성을 거느리고 있는 유일한 별이란 관념은 상당히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항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최근 학설을 들어보면 한 개의 항성 주위에는 태양계와 같은 수 개의 혹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며 결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들 항성에도 혹성이 있다는 보다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의 하나인 바나드성(태양으로부터 6광년의 거리에 있음)의 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너성과 토성만한 크기의 두 흑성이 이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이 흑성들이 그 항성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인력이 약한 작은 흑성들이 이 항성 주위에 여러 개가 있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천문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측, 즉 은하계에만도 약 500억 개의 흑성이 있을 것이란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모든 흑성들이 결코 다 생명체를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흑성이 되려면,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광도로 비치는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야 하며 또 NASA의 한 천체물리학자가 말하는 「천체의 거주 가능지역」 즉 항성의 방열도가 생명체 부지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9월 Armenia에 참석했던 과학자들은 위의 조건을 고려하고 또 새로이 생겨나는 항성의 수(이 은하계에는 1년에 평균 한 개의 항성이 새로 생겨난다), 흑성을 가진 항성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보고 이 은하계에는 지금 약 10만~100만개의 문명세계가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들 문명세계는 평균 약 수백광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또 이들은 다 전파를 이용하여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위와 같은 수는 한 흑성의 종족이 과학문명 세계로서 존속될 수 있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비판론적인 과학자들은 과학문명 세계의 평균 존속 기간은 그들이 전파통신 능력을 개발하고 난 후 약 40~50년밖에 되지 못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문명 세계는 원자력의 참화나 그 오염으로 곧 자멸하고 말 것이란 것이다. 만약 그 존속기간이 이렇게 짧다면 이 은하계에 존재할 문명 세계의 수는 대단히 감소되며 또 서로의 거리도 너무 멀어서 통신의 교환 가능성은 크게 감소해 버린다.

좌우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인간이 실시하고 있는 우주 비행을 통하여 다른 문명 세계와 접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 우주비행사가 로켓의 비행속도인 초당 5마일로 여행을 떠났다면 그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4.3광년 거리에 있는 별(Proxima Centaur)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8만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문명세계에 도착하려면 백만년 혹은 수십억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문명 세계의 존속 기간이

수백, 혹은 수천년만 된다고 낙관할 수 있다면 일정한 기간에 존재하는 그 수는 훨씬 많아지며 서로간의 거리도 상당히 좁혀져서 전파를 이용한 통신연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뉴욕의 Yeshiva대학교 천체물리학자인 Cameron은 「우리 인류는 원자탄을 개발한 후 26년간 살아 왔다. 관심사는 우리 문명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외계와의 통신 연락에 관한문제는 모두 이 문명사회의 수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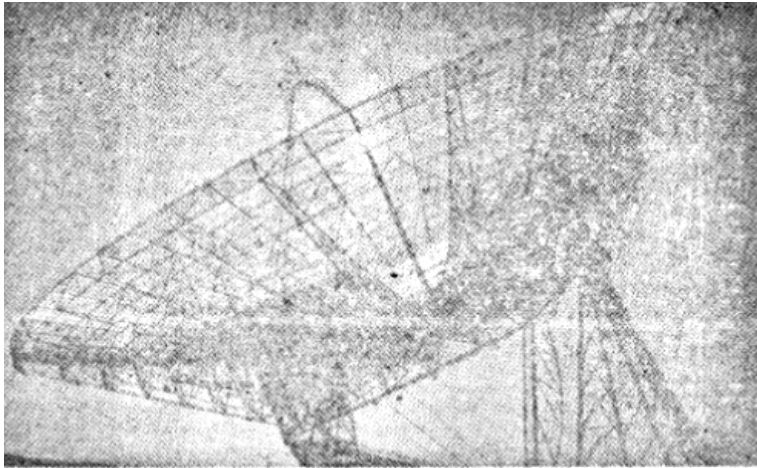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약 15년 전부터 아무런 기약도 없이 RADA나 UFH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우주에 강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만약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명 세계의 거리가 20광년이라면, 이 우주신호는 1976년에 그 세계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이 신호를 받는 즉시 회답을 보낸다면 지구인이 받아 볼 수 있는 시기는 1996년이 될 것이다. 과연 원자핵의 위험하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인가?

외계 인간과 교신하는데는 또 한 가지 큰 장애가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떤 파장(Frequency)을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여러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수소분자(Atom)방사체의 파장인 21-Cm. Band를 들고 있다. 그리고 또 우주에 있는 지적 인간이 공통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다음항 참조). 인간은 과학 기술문명을 성취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신호를 받아 해독하는 외계 문명인은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훨씬 높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애써서 회답을 보내 주는 성의를 보일까가 문제 된다.

Sagan교수에 의하면 이 외계 인간들은 우리가 개미를 대하듯 우리를 열등인간으로 취급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미에게 문자를 가르치려고 애쓰겠는가?」하는 식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 10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외계에서 들어 온 신호인 듯한 전파를 포착하여 여러 번 세인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1960년에 미국의 한 과학자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가까운 성좌에서 오는 전파를 감청하던 중 규칙적인 신호를 포착하였는데, 그 후 이 신호는 미국의 비밀 RADA 실험소에서 발신된 것이 판명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에 소련의 한 천문학자는 신기한 전파원을 포착하였는데 타스 통신은 이것을 황급히 외계의 교도한 문명세계가 보낸 햇불과 같은 신호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후에 이 전파원은 먼 곳에 있는 별의 진동으로 인한 것이 판명되었다. 1967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우주에서 오는 레이다 스크린의

<그림 6>



<미국 Virginia 주에 있는 거대한 전파망원경. 오늘도 우주인의 소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반점(Bliips)을 발견하여 우주의 선진 세계에서 오는 전갈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 이를 LGMs(Little Green Men)란 애칭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LGMs는 단지 자연 현상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즉 오랫동안 탐색해 오던 중성자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비록 인간이 아직까지는 외계의 전파를 포착하지는 못 했을 망정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환경을 비롯한 전 우주 공간에는 선진문명 세계간의 대화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Carl. Sagan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북과 전령을 통하여 각 마을로 연락하고 있는 뉴기니아 산골의 원시민들이 그들의 공간에 충만한 국제적 전신전화를 도무지 알 수 없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일지도 모른다.

신의 섭리인 격리화

만약 우리가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여 해독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전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충격을 주게 될 것이며 또 인간의 시야는 무한하게 넓어질 것이다. 이때는 우리가 오늘까지 확실히 믿고 있던 인간 우위 사상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인류는 신이 창조한 이 우주에서 여전히 가장 우위의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통파 기독교인들은 추호의 의문도 품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우주에는 단 한분만의 신이 계시며 이 신은 인간을 그의 모습에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교파의 저명한 저술가며, 이론가인 Lewis 같은 분은 이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이다.

만일 우주의 어디에서고 간에 이성적이고 지적인 종족이 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Lewis가 근심하는 바는 후일 지구인이 다른 혹성에 사신을 보내서 신의 의도에 거역한 죄과를 참회하면서 신의 섭리대로 살아 온 외계인에게 구원을 애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담을 좋아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광대한 우주의 거리는 문명 세계간의 격리를 위한 신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신은 타락한 종족이 타 세계로 번져서 끼칠 악영향을 막는 것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우주간의 상호 연락은 악영향이 아니라 소망을 퍼뜨릴 것이라 것이다. 지구와 통신연락 되는 우주의 세계는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 지구인을 괴롭히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다. 그들 역시 과거에는 공해 문제, 인구과잉 및 굶질 사이 없는 전쟁의 위협과 같은 험난한 역사를 거쳐 평화로운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과학 기술의 가공할 힘을 완전 관리하고 또 선용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 문명 세계의 생존을 위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여보세요! 지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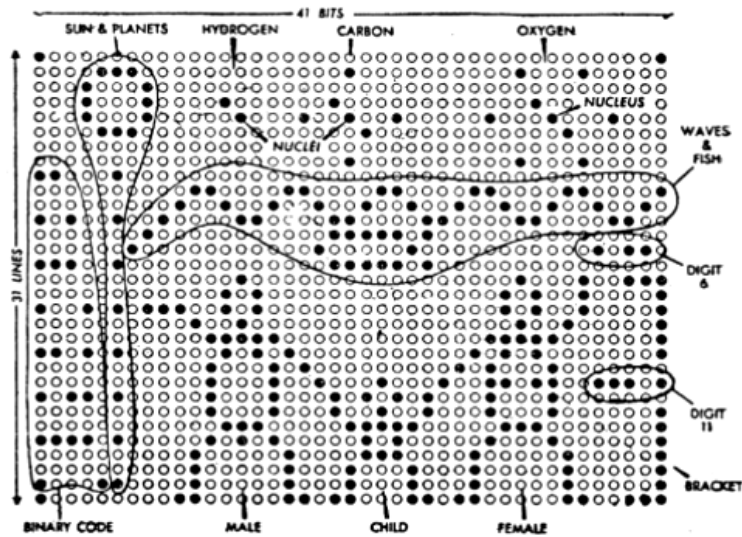
외계인들이 지구와 교신을 시작한다면 처음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될 것인가? 1961년에 미국 Cornell대학의 천문학자인 Drake와 전기 공학자인 Oliver가 공동으로 고안한 우주간의 통신방식과 내용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외계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신문은 1,271개의 펄스(Pulse)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펄스는 강약(그림의 검은 원과 흰 원)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먼저 수신자들은 이 강약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1,271이란 수를 두고 추리하면 이것은 31과 41의 곱수란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 펄스를 세로 41, 가로 31의 네모꼴로 배열해 보면 그 모양이 너무나 무질서해서 아무런 의미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로 31, 가로 41의 모양으로 배열해 보면 어떤 규칙적인 형태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것은 송신자들은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있는 종족으로서 남녀의 성별이 있고, 그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은 좌측 상달 부분의 태양과 같은 동그라미에서 내려오는 여덟 개의 점 중에서 4번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송신자가 어떤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4번째의 혹성에 살고 있는 종족이란 것을 추측하게 한다.

태양의 3번째 혹성에서 우측으로 배열

<그림 7>



<외계로부터 수신될 신호의 형태>

된 많은 점들은 이 혹성에 물(파도 모양의 점선)이 있으며 또 그 속에 생물(물고기)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 간접적으로 송신한 종족은 이미 우주 비행술을 익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태양의 혹성들 좌측에 있는 이 혹성들의 서열을 기준으로 한 수(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1에서 8까지의 기호를 간단히 알 수 있다.

태양의 우측에 산재한 3집단의 점들은 원자의 도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수소, 탄소 및 산소가 각각 1개, 6개 및 8개의 전자를 가지며, 이 전자들이 중심에 있는 핵을 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3개의 원자를 여기에 선정한 것은 그들의 생명체가 합수탄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여자가 들고 있는 손 끝 부분에는 6이란 기호가 있다. 이것은 또 이들의 손에는 6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맨 우측 중앙에서 아래 끝까지의 괄호모양(Braket)은 이 종족들의 성인의 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괄호 중앙에 있는 기호(Digit 11)는 11을 나타내는데 우주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의 단위는 송신된 전파의 파장인 21cm일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인의 키는 2.31m가 될 것이다.

Drake와 Oliver가 처음으로 이러한 우주 통신 기호를 고안해 낸 이후 소련의 천문학자들은 외계의 전파를 해독하기 위한 컴퓨터를 제작하려 하고 있다. 이 기계가 완성되는 날에는 만약 우리가 외계에서 오는 전파를 포착하는 일이 생긴다면 보다 더 빨리 이를 해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1971년 12월 13일자 Time지의 특종 기사를 발췌 번역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임을 밝힘)

<유머 상식>

◇ 세계 최소 독립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흔히들 리히텐슈타인 국이라고 하나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티칸 제국이 세계 최소국이다. 로마의 한 모퉁이를 잡고 있는 이 독립국가는 44헥타에 겨우 1천명을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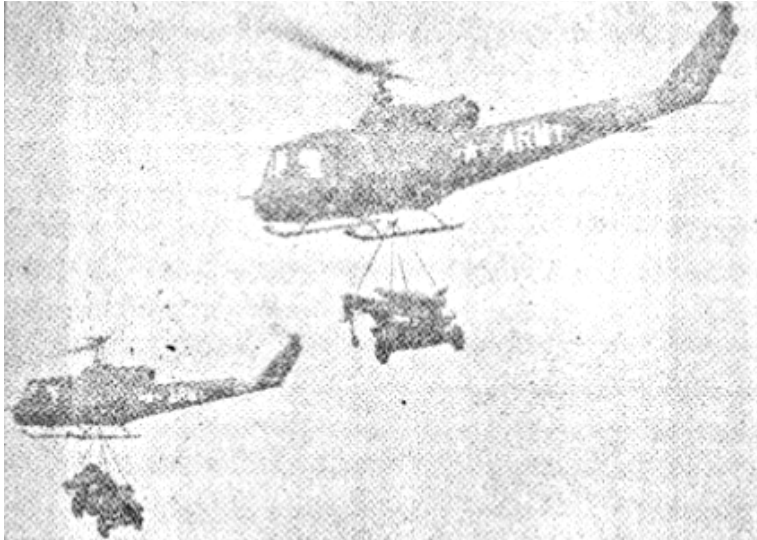
◇ 가장 짧았던 전쟁은?

1896년 8월 27일에 일어났던 영국과 켄지발간의 전쟁은 단 38분만에 결판이 나버렸다. 로슬제독이 이끈 영국함대는 카리드라는 적장에게 항복을 요청했으나 듣지 않아 포문을 열었더니 38분만에 백기가 솟아올라 사상 최단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

미군용 「헬리콥터」

—그 체계와 현황—

조운기 (역)



전문화된 「헬리콥터」

불란서 사람 「포울·코루누」가 만든 세계 최초의 「헬리콥터」가 이륙하는데 성공한 것은 1907년의 일이다. 항공사적으로 본 「헬리콥터」의 역사는 비행기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의 역사로 말하면 비행기보다 훨씬 짧아서 1930년대 후반에 와서 「훗게·아하게리스」 Fa 223, 「후렛트나」 F1 282, 「시콜스키」 VS 300 등의 실용형이 출현한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약 3분의 1세기의 세월이 흐른 것에 불과하지만 이 30여년간에 있어서의 「헬리콥터」의 발달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눈부신 것으로 현재에 있어 「헬리콥터」를 빼놓고서는 공중교통기관 체계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

군사용병면에 서도 전투방식 중 「헬리콥터」가 맡는 역할은 제2차 대전시의 기갑차량에 비길만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의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도 처음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이용했었다 해도 활주로나 필요 없고 좁은 면적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과 제자리 비행으로 공중에서 일정한 지점에 정지할 수 있다는 비행기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최대의 이점을 살려 연락이나 구조작업에 사용될 뿐이었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이 종식될 무렵의 「헬리콥터」의 상황은 극소수가 실험용으로 육군과 연안 경비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적재화물의 양도 적고 또 신뢰성도 알았기 때문에 거의 작전에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의 원칙에 따라 「헬리콥터」는 차츰 대형화에의 길을 걸어 발달하게 되어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수송용 헬리콥터인 「시콜스키」- S-55(H-19), 구조용의 「시콜스키」- S-51(H-5), 연락 및 연습용의 「벨」-47 (H-13) 등 몇 기종의 「헬」기가 군작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활약할 만큼 발전하여 단순한 연락 및 관측임무나 특수한 구조 임무뿐만 아니라 전선우방에서의 병력과 물자의 긴급 이송에 위력을 발휘하여 지상작전지원에 「헬」기가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인식시켰다.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의 유용성이 군에 인식된 결과 「헬」기 개발은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실용화하기 시작한 소형 「개스터버브, 엔진」의 덕으로 전비중량(全備重量)과 자중의 비(比)가 커짐으로 그것만큼 적재량이 늘고 경제적임에 따라 「헬리콥터」는 급격히 대형화 또는 고속화되어 UN-1, CH-46, H-3 등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기종이 일제히 「터빈, 헬리콥터」로써 개량되었고 때를 같이 하여 대형화물수송용 「크렌, 헬리콥터」 및 대잠초계용(對潛哨 戒用)의 기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헬리콥터」의 이용에 대해서 연구 노력 되어 사용분야는 증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 결과가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월남전선에서UH-1과 CH-47에 의한 일선부대의 신속한 이동과 전개는 이제까지의 자상전투의 양상을 일변(一變)케 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또한 부대이동을 도우면서 전선에 보급물자나 중화기를 수송한다든지 적지에 추락한 기체를 달아 올려 회수한다든지 하는 작업에 대해 대형 중수송(大型重輸送) 「헬리콥터」 CH-54나 CH-47이 수행한 역할이 컸던 까닭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추락기체의 회수작업에 의해 아군지역에 회수된 기체의 수는 연(延) 수 천대에 달했다 하며, 기체의 손실방지에 공헌한 공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한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겨우 연락 및 구조용으로 쓰이던 「헬리콥터」가 오늘날에는 실로 연락·관측, 구조, 대잠초계공격, 진격, 수송, 특수, 중량물자운반, 연습, 훈련이라는 다양용도(多樣用途) 전용의 기체로 분류되리만큼 발전을 하여 총 11,500대 이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경위는 출현 당초 단순한 지상정찰로 밖에 쓰여 지지 않던 비행기가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정찰기 등으로 나누어져 발전하여 온 경과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무장 「헬리콥터」의 등장

이와 같이 「헬리콥터」가 순차적으로 발전해 온 기반을 이용하여 바야흐로 새로운 분야로서 개척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격전용형 「헬리콥터」의 영역인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예전에 있었던 전차나 장갑차로 구성된 기갑부대를 좀더 발전시킨 형태로서 「헬리보온」(「헬리콥터」에 의한 공정(空挺)임무) 부대가 편성되었을 때 부대의 전개지점 주변의 지상제압 역할은 반드시 비행기가 맡았는데 월남에서의 전훈(戰訓)의 결과에서는 「헬리보온」 부대가 진공(進攻)할 때 그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병력수송기를 호위했고 또한 착륙지점 주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장형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는 UH-1이나 CH-46에 공격 장비를 갖춘 무장형의 기체를 만들었으나 아무리 해도 중량초과로 비행능력이 저하되어서 수송기와 편대행동을 할 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역시 공격전용으로 설계된 기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결과 부라부라 「벨」UH-1을 개량한 공격용 「헬리콥터」 AH-1이 제작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리하여 동기에 의한 「헬리보온」 작전지점 주변의 지상제압의 효과는 대단하여 이 성과에 힘입은 미 육군에서는 차기 공중화력 지원기로서 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형 「헬리콥터」 「룩이드」 AH-56 「사이안」을 개발시켜 현재 실용시험을 계속 중인데 또 이것에 대항하여 「시콜스키」사에서도 회사 자체 개발에 의해 「사이안」과 동급의 공격형 「헬리콥터」 S-67 「블랙호크」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상공격기라는 「헬리콥터」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려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분과 발전하여 온 「헬리콥터」가 현재 미 육·해·공 3군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각 군의 「헬리콥터」 장비 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 육군 내의 체계와 현황

육군은 「헬리콥터」를 제일 먼저 채택하고 그 육성에 노력한 사실과 「헬리보온」 작전의 추진당사자라는 입장에서 3군중 가장 많은 수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 「헬리콥터」에 쓸 조종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습 및 훈련용의 소형 「헬리콥터」로서 「벨」 47계의 H-13이나 「웨어차일드·힐러」 H-23, 「휴즈」 TH-55를 가지고 있고 또 최신에 「휴즈」 OH-6A 「벨」 OH-58A라는 터빈 「헬」기를 가지고 있는 외 「헬리보온」작전의 병력수송용 「헬리콥터」로서 「벨」UH-1 「이로코이」, 「시콜스키」 CH-34(S-58), 병력, 중화기 및 중자재(重資材)수송용 대형 「헬리콥터」로서 「보잉바틀」 CH-47 「치누우크」 「시콜스키」 CH-54 「스카이크렌」, 「헬리보온」작전 시 지상지원용 무장 「헬리콥터」로서 「벨」 AH-1 「휴이코부라」 등 각종 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벨」 H-13, 「웨어차일드·힐러」 H-23은 구식이고 현재는 연습기형의 TH-13T, 연락용의 OH-13S 그리고 연락용의 「힐러」OH-23 D.F.G 각 형이 아직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수는 줄어들기만 하는 실정이고 이들 기체는 점차 「휴즈」 OH-6A나 「벨」OH-58과 교체되어 가고 있다.

수년전 소위 L.O.H 경쟁이라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 육군의 경연락 및 관측용 「헬리콥터」 OH-6A 「가이우스」는 현재 2,100대라는 대량발주를 받아 속속 납품되고 있는데 한편 동기의 생산가격 상승과 생산계획 지연이 문제가 되어 67년 가을에 실시된 L.O.H 제 2차 선정에서는 206A 「제트렌저」가 OH-58 대신 채택됨에 따라 2,200대라는 대량의 발주가 있었다. OH-58 A는 1972년까지 전발주수(全發注數)를 납품시킬 예정이었는데 이 OH-6과 OH-58A와는 기체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엔진」은 같은 「애리슨」 T-63을 쓰고 있고 보급면에서는 공통된 점이 많다.

또 월남전에서 일약 유명해진 UH-1 「이로코이」는 약 15년 전인 1956년 최초로 시험비행을 실시 한 것이지만 쓰기 좋고 알맞은 크기와 우수기라는 점에서 점차 개량해 나가면서 「헬리보온」작전의 주역(主役)으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육·해·공 3군 및 해병대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는 UH-1B계의 「로오타」를 「도아힌지」형으로 변경한 E 형과 「카빈」용적을 늘린 D형, 보다 출력 이 강한 H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형이나 모두 지원용무장형과 진공(進攻)병력수송형의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 그 대수가 2,0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UH-1 「이로코이」의 「로오타」

나 「동력계통」을 이용한 동체를 재설계하여 복좌동력(複座動力) 포탑(砲塔)이 붙은 공격전용형으로 한 AH-1G 「휴이코부타」를 1,000대 발주하여 보다 강력한 「헬리보온」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다.

AH-1G는 1967년부터 인도(引渡)하기 시작되어 월남전선에서도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특징으로 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AH-1G의 동력을 P&W PT6T의 쌍발형으로 한 AH-1J도 완성하여 25대가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실용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미 육군에서ms 이 성과에 따라서 보다 강력하고 속도가 빠른 공격전용 「헬리콥터」로서 Ah-56A 「샤이안」을 록키이드회사로 하여금 개발시켰는데 「리깃트·로오타」를 사용 한 「로오타·시스템」외에 추진「프로펠러」를 장비한 획기적 기술구상(技術構想)을 쏟아 넣은 것이 무리가 되어 사고가 속발하여 1969년에는 개발계획을 단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록키이드」회사에서는 자사부담(自社負擔)으로 개발계획을 계속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육군에서도 재개발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위를 본 「시콜스키」 회사에서도 S-61을 모체로 한 고속공격전용 「헬리콥터」 S-67 「블랙호크」 실험기를 개발하여 1970년 8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하고 있어 금후 이 양기의 경쟁과 「헬리콥터」의 공격기로서의 용도분야 확립과에 주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헬리보온」작전 지원용 대형 수송 「헬리콥터」로서 「보잉 바이틀 C-47 치누우크」나 「시콜스키」 CH-54 「스카이 그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헬리보온」 작전 전개시에 이제까지의 작전의 약점이었던 중화기 및 기갑차량과 수송, 투입과 작전자재의 대량보급 등의 임무를 맡아 부대 전개 후 전선확대의 용이화(容易化)를 꾀하고 있다. C-47 「치누우크」는 이미 500대 이상이 육군에 납품되어 월남전선에서의 평가도 대단히 좋으며, 진공지 원시의 수송능력의 발휘뿐만 아니고, 적지에 추락한 기체의 강행회수(強行回收)에도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헬리보온」작전의 작전성질상 피탄에 의한 기체 소모율이 커서 이에 대한 기체의 보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피해기체를 회수, 수리하여 다시 취역(就役)케 한다는 것은 작전수행상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시콜스키」 CH-54도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월남전에 시험적으로 투입한 10대의 활동상황은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60대가 추가 발주되어 1971년말까지 육군에 납품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육군에 있어서의 「헬」기의 체계는 무어라 해도 「헬리보온」작전 전개 위주로 되어 있다.

병력을 수송하는 「이로코이」를 중심으로 진공지점 주변의 지상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AH-1 「휴이코부타」 전투용자재 수송임무를 담당한 대형 「헬리콥터」 CH-47 「치누우크」, CH-54 「스카이그」로 배치하였고, 또한 승무원 양성, 연락 및 관측임무 수행을 위한 소형 「헬리콥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 해군 내의 체계와 현황

해군도 해상에 불시착한 기체의 승무원 구조를 위하여 비교적 오래전부터 「헬리콥터」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함대주변의 대잠(對潛) 초계임무 수행에는 수면 근처를 제자리 비행하면서 수(水)중 헤소나를 내려서 잠수함의 동정을 탐색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용 「헬리콥터」를 개발시켰다. 그래서 「헬리콥터」는 수송임무에 쓰이기 시작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대잠 초계 분야도 개척 확립되어 금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 해군에서는 연습 및 연락용으로 「벨」 UH-1 「이로코이」의 장비를 바꾼 연습기형의 UH-1L이나 다용도형의 UH-1L/N 같은 「벨」회사의 TH-57A, 「가만」 UH-2시즈부라이트 및 UH-43 「허스키」를 사용하고 있고 보다 대형의 연락 및 수송기로서 「보잉 바이틀」 CH-46 「시나이트」를 쓰고 있는 외 구조용으로 UH-1계의 HH-1K나 UH-2 계의 HH-2 C/D를 가지고 있다. 또 대잠 초계용으로서 「시콜스키」 SH-3(S-61)을 「헬」 항공모함에 회사의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이것은 「헬리콥터」 체계중에 넣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구축함이나 「후리게이트」 함 등의 소형함정에 탑재하여 무선조종으로 조종시켜 대잠공격을 수행하게 한다.

무인 대잠공격용 「릴리콥터」 「자이로다인」 QH-50 「닷슈」를 개발하여 현재 일부 함정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아스록」 등 대잠 공격용의 「미사일」이 발달하여 본기의 존재가치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 해군에서는 지금까지 연습기로서 「벨」47계 각 후속(後續)을 HHL-1~의 호칭을 쓰고(후에 H-13으로 호칭. 통일) 있었는데 다른 현역기가 「터빈」화된 현재로는 마치 연습기나 같아서 이 기종개량에 따라 연습기로서는 「벨」TH-57A(육군의 OH-58과 같음) 및 THL(UHB의 Power up형)을 채택하고 있고 H-1 계열의 UH-1L이나 UHN(엔진을 PT-6쌍발형으로 고친 것)교차반전(交差反轉) 「로타」형식의 「가만」 UH-43C, 같은 「가만」회사의 UH-2A, UH-2C(엔진을 쌍발로 Power up한 것)와 모두 「터빈·헬」을 쓰고 있는 외에 함대간의 연락 및 인원수송이나 물자수송용 대형 「헬리콥터」로서 「보잉바이틀」 UH-46A/D 「시나이트」를 쓰고 있다.

대잠 초계용 「헬리콥터」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해군이 실용화한 것으로 최초로 실용화된 것은 「시콜스키」 S-58에 대잠 초계용 장비를 부착한 HSS-1 (현재는 호칭이 SH-34로 변경 됨)이었는데 그 후 「시콜스키」사에서 다시 대형 쌍발 수륙양용 S-61을 HSS-2(현재 SH-3으로 개칭)로 개발시켜 196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H-3 「시킹」은 많은 국제기록을 수립 한 좋은 기체로서 육군이 나 공군에서도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대잠 초계기로서의 전천후성도 가지고 「호오밍」 어뢰 및 폭뢰 (爆雷) 등 380kg의 공격장비를 휴대할 수 있는 본격적인 대잠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또 이 형의 대잠장비 대신 소해용장비를 장착한 RH-3A가 제작되어 1965년부터 연안 소해작업에 쓰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 육군에서는 「헬리콥터」를 국지작전의 기동력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군에서는 대잠 초계 활동과 불시착기 승무원 구조활동을 주목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있으며 특히 대잠활동에 「헬리콥터」를 이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함대간의 연락에도 「헬리콥터」를 이용함으로써 항공모함을 제외 한 함정간의 연락체계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태세로 나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미 공군 내의 체계와 현황

상기와 같이 육군 및 해군이 각각 군 임무에 대응하여 작전상의 용도에 따라 「헬리콥터」를 배치하였는데 공군에서는 그 성격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대한 보조적 지원용으로서 「헬리콥터」를 구조태세 확립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대부분은 구조용의 기체이고 거기에 기지간 연락용으로 다른 소수의 기체가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들 구조용 「헬리콥터」에는 항공기 사고지점에 급행하여 승무원의 탐색, 구조용과 각 기지 내에 배치되어 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기 처리를 담당하는 기체로 체계화되었으며 원거리 탐색, 구조용으로는 「시콜스키」 HH-3 「시킹」을 배정하고 기지주변의 구조, 소화활동에는 「가만」 HH-43을 배치하고 있다. 또 우주「캡슐」회수작업용에는 「시콜스키」 HH-53 「시즈다리온」을 소수 사용하고 있다.

기타 연락용 기체로는 「벨」 H-1 「이로코이」계의 UH-1F(UH-1B를 Power up하여 항속거리를 늘린 공군전용형) 및 UH-1N(동력을 PT-6의 쌍발형으로 한 것) 또 「시콜스키」 CH-3E, 보급품 수송용으로 「시콜스키」 CH-53C를 사용하고 있다.

작전에 있어서 비행기를 출동시킬 경우

그 지원용으로서 「헬리콥터」를 구조용으로 배치하는 것은 해군과 똑같지만 여기서 공군이 장거리 탐색, 구조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시콜스키」 HH-3C의 경우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적지 내에서 구조작업을 강행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기는 구조용이라고는 하지만 장갑관, 방탄「탱크」등 보통 군용기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공중급유를 받는 장치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해병대 내의 체계와 현황

해병대는 그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진공작전 따위의 지상전투가 위주이기 때문에 「헬리콥터」의 장비태세는 육군의 체계와 비슷하지만 보급면에서는 해군과 같은 계열이 되기 때문에 사용기종이 해군과 공통되는 것이 많은 형태로 되어있다.

따라서 「헬리보인」진공작전 병력수송용으로는 「벨」UH-1N 「이로코이」와 「보잉바이틀」 CH-46A/D 「시나이트」를 사용하고 다시 중화기와 중화물 및 보급물자 수송에는 대형 수송 「헬리콥터」 「시콜스키」 CH-53A/D 「시즈다리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수송기편대의 호위와 작전지점 주변의 지상제압용으로 무장 「헬리콥터」 「벨」 AH-1J 「시코부라」(AH-1G의 동력을 PT-6의 쌍발형으로 개량한 것으로서 엔진의 보급계통은 UH-1N와 같음)를 사용하고 있다. 또 연락, 일반용기로는 「가만」 UH-2B 「시즈부라이트」, 「시콜스키」 UH-34D/E(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잠용 SH-34와 장비가 틀릴뿐)를 사용하고 있고 보급계통도 해군과 동일하다. 구조용 「헬리콥터」도 연안경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콜스키」 HH-52A(S-62계)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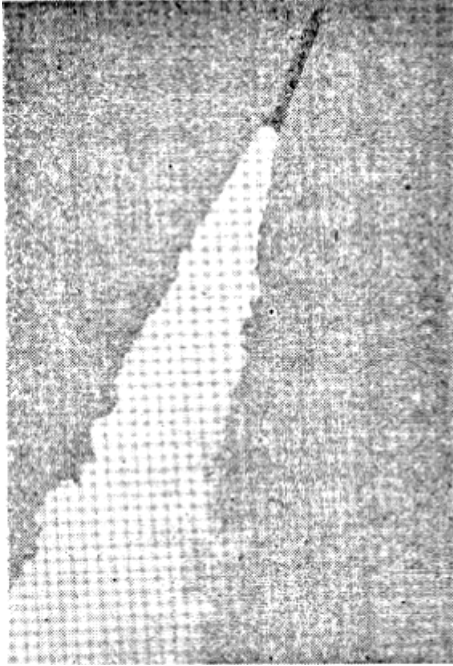
연안경비대의 현황

연안경비대는 그 성격상 탐색 및 구조용 기체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구조작업에도 원거리 탐색을 필요로 하는 것과 근거리 구조작업 만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의 탐색 및 구조용으로는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HH-3A로부터 장갑 및 방탄장치를 제거한 HH-3F를 사용하고 근거리 구조작업용으로는 착수(着水)하면 기체 밖으로 돌출한 「플레이휴」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시콜스키」 HH-52A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은 각 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사용현황과 사용기종을 살펴본 것이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은 일람표로 만들어 보았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용병(用兵)용 「헬리콥터」의 배치체계와 보급면으로 본 기종통일의 경향이 개념적으로 파악이 되어 흥미진진하다. 또 이러한 방향으로 각국의 「헬리콥터」 보유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그 나라의 「헬리콥터」에 대한 용병사상(用兵思想)도 파악이 될 줄로 안다.

각 군 사용 「헬리콥터」 기종

소속 용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연안경비대
승무원 훈련 연락, 관측 일반용	벨 TH-13T 휴즈 TH-55A 릴 OH-133 웨어차일드힐러 OH-23D/F/G 휴즈 OH-6A 벨 OH-5SA	벨 UH-1F 벨 UH-1N	벨 TH-57A 벨 TH-1L 벨 UH-1L 벨 UH-1N 가만 UH-2A/C 보잉바야틀 UH-466D	가만 OH-43D 가만 UH-2B 벨 UH-1N 시콜스키 UH-34D/E	
진공, 병력수송	벨 UH-1D/H 벨 UH-1E 시콜스키 OH-34 A/C			벨 UH-1N 보잉바야틀 CH-46A/D	
공격, 지원	벨 UH-1ARM 벨 AH-1G/J AAFSS?			벨 AH-1J	
중수송, 보급	보잉바야틀 CH47A/B/C 시콜스키 CH-54 A/B	시콜스키 CH-3C/E 시콜스키 CH-53C	보잉바야틀 CH-46A	보잉바야틀 CH-46A/D 시콜스키 CH-53 A/D	
대잠 초계			시콜스키 SH-34G /H/J 시콜스키 SH-3A/D		
구조		가만 HH-43A/B/C 시콜스키 HH-3C/E 시콜스키 HH-53B/C	가만 HH-2C/D 벨 HH-1K	시콜스키 HH-52A	시콜스키 HH-52A 시콜스키 HH-3F



<조옥찬>

1. 서론
2. 무기체제 개발의 기본 요건
3. 무기체제 개발의 방향
4. 무기체제 개발의 전개
5. 결론

1. 서론

독립국가의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방위력의 척도는 국제적인 세력 관련여건과 국내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 등의 기본 조성 조건에 따르는 제반 요소가 포함되겠지만 어떤 시점에서의 실질적인 요소로서는 국가의 안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이 핵심이 되고 있는 무기체제의 한계와 의존도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에 입각한 실질적

이며 독립 적인 방위능력을 발휘하는 무기체제를 완전한 국가 안보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의 제반 정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명확하고 면밀한 정책에 의해서 막대한 국가자원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므로 얻어지는 성과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무기체제는 방위력의 핵심이 되고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현 시점과 장차에 당면하여 대처하게 될 대외 및 대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여 이같은 상황에 적합한 자위성의 무기체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전개방법이 신중하게 제기되어 치밀하고 효율적인 해결의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무기체제를 방위상의 독립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현 방위력에 관련이 되는 기본 화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시간 내에 총동원적인 집중전개가 가능한 무기체제의 개발 방향이 확정되어야만 하며 이와 같은 단계적인 개발과 병행하여 장래의 국가목표에 입각한 전략, 전술에 적용된 무기체제의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방향이 국가적 차원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단가 및 장기: 두 방향의 개발은 연구 및 개발만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상의 능력 발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산업과의 체계적인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산군(産軍)협동 체계가 유기적으로 맺어져 방위산업의 효율을 성실하게 향상되도록 하는 개발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기체제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기체제의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기본 요건, 방향 그리고 전개에 대하여 몇 가지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무기체제 개발의 기본 요건

무기체제의 개발 성과는 국가의 방위력을 구하는 기본이 되고 유사시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며 또한 실제적인 군사력의 운용가치를 평가됨하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국가 안보의 최우선 요건을 갖고 있다. 또한 무기체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국가자원이 동원되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개발과정에 있어서 최소 투자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경제요건이 최우선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계 내에서 무기체제

의 선정 및 전개의 기준이 엄밀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명백한 장기 및 단기적인 군사 목표에 입각한 전략, 전술 개념으로부터 확립된 무기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연구개발의 초석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무기체제 개발의 군사요건인 것이다.

이 같은 군사요건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방위력을 실제 전개하는 과정 이므로 국가의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전략, 전술 개념의 수립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군사 요건은 현재와 앞으로의 가까운 시기에 있어서의 방위력을 유지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긴급한 무기체제에 대하여서는 집중적인 동원과 시한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적합한 효율적인 개발체제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 방위력을 유지하면서 한 편 장래의 전략 및 전술 개념상의 변화나 군 운용상의 성능 요구 및 그 시기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제와 장기적인 개발의 방향과 전개가 계속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것이 앞으로의 자위적인 방위력을 구성하고 무기체제의 자립성을 확립하게 되는 기본이 될 것으로 본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즉 최우선 요건, 경제 요건 그리고 군사요건에 적합하기 위한 전개 과정에 앞서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요건은 바로 기술 요건이라고 본다. 필요로 하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현 과학기술 수준에 의한 기술적인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르는 기술지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는 기술지원 체계가 총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무기체제의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 자원에 대한 보유하고 활용되어야 하므로 충분치 못한 환경을 갖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이 기술 요건을 한계 지우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또한 앞으로의 개발에 수반하는 미지의 분야, 불확실한 기술 요소를 탐지하고 예측하여 대처하는 과학적인 기술 예측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조직이 미흡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체계화된 연구 개발 과정을 택하고 활동함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관리 운용 그리고 평가에 관하여 선진국에서 얻어진 많은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이 적용이 되어 방위력 개발에서의 손실 즉 불실개발을 예방하는 문제까지도 신중히 기술 요건으로 포함시켜야만 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개발방법의 선정과 효과적인 개발 운용을 하므로 방위의 투자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요건을 갖도록 지적인 동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기체제의 개발은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요소가 되는 최우선 요건에 의거하여 경제 및 군사요건을 명백히 확보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 개발 체제를 수립해서 단기 및 장기 개발에 있어서의 불실적인 요인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제거되도록 진행 시키는 모든 기술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리라고 본다.

3. 무기체제 개발의 방향

첫째, 단기적인 개발의 방향은 앞서 언급된 기본 요건에 대한 엄밀히 검토된 무기체제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시기까지에 현 군사력을 유지하고 개선하여야 하는데 시급하고 불가피한 무기에 대하여 인력, 설비, 기술 등의 투입을 집중화하는 총동원 체제적인 개발체계를 확립하여 실제화 시켜야만 될 것으로 본다.

분산적이고 의존적인 주체성이 결여된 개발체계는 단기적인 개발에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불실요인을 갖고 있으며, 특히나 산업 협동체제에로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문제와 양산화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서의 기준과 평가의 기술요건에는 여러 곤란한 문제들이 개재하게 될 것으로 보아 한계성의 규정, 산업에로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된다고 본다.

아마 단기적인 개발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어느 기간 유지 운용하기 위하여는 모방개발의 방법이 제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 같은 개발에 있어서 일부분의 개발이어야 할 것인가 혹은 전체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이어야 할 것인가는 기술요건에 따라 명백한 한계가 정하여 질 것으로 본다. 한편 현용 보유병기를 모방개발을 함에 앞서서 군사요건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왜냐하면 군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의 군사적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의 군사적인 가치와 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정하여진 전술 개념에서 얻어진 것임에 틀림 없다고 보며 상대적으로 적의 병기체제와 전술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개발과정에 있어서 무기의 모방개발보다는 일부 성능 문제를 전술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개선하는 개발방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러므로 개발된 무기의 효과적인 군사적 운용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이같은 성능 개선을 위한 개발이 단순한 모방개발의 기술적용 기준보다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군사요건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만 한다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둘째로, 장기 개발의 방향은 단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병행하여야 할 국가의 장기 정책의 하나이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자료에 의거한 초대형의 기획이 되므로 국가의 제반 분야와 상호 연관되는 변수들이 작용하게 할 것이므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연구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장기개발에 대하여는 미국의 무기체제를 연구개발 하는 방향에 대하여 1968년 2월 1일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1967~1973년도 국방 계획 및 1969년도 국방예산에 관한 교서에 명시된 연구개발의 방향을 참고로 한다면 아마도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관한 방향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 교서에 밝힌 바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여섯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연구”, “탐구 개발”, “고도 개발”, “공학 개발”, “실용 체계 개발”, 그리고 “관리 및 지원”인 것이다. 첫째로 “연구” 분야의 노력의 지향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맥나마라 장관은 지적하고 있다. 「자연 현상 및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 즉 물리, 화학, 생물, 공학, 의학, 인간공학, 사회과학 가운데 장기적인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하는 기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구”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제 법칙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연구 사업은 현 시점에서의 국방기술 가운데서 기초적인 필요 사항 및 한계의 분석, 앞으로 10년간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있는 과학상의 기회를 선택하는데 있는 것이다」

둘째 분야인 “탐구 개발” 노력의 지향 방향은 「연구결과의 응용 및 새로운 군사적 병기와 장비로서의 유용한 재료, 구성품, 장치, 하부 체계의 개발인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시작품, 원형 구성품 하부 체계 등의 실용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특정의 군사적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이 같은 것으로 전자기계, 폭발물, 통신기구, 추진장치 등 여러 가지 기술 수단에 쓰이게 된다.」

이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바로 이 성과가 군사적 요구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초석”이 되는 것이며, 이 같은 “차대”의 초석이 없이는 공학 개발 또는 실용 체계 개발 등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10년 후의 보유하게 될 무기체제의 효과와 일반적인 기술상의 실력은 비약적인 결과가 아니라 연속적인 노력의 성과이므로

앞으로의 5년간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이 무시될 수 없으며 이들 분야가 여하히 잘 되었는가에 따라 장기적인 성과가 좌우하게 된다고 본다.

셋째로 “고도 개발” 노력의 지향방향은 「병기를 실제로 부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군사상에 사용하는데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실험용 병기를 만들어 실전용의 시험을 행하는 것이다. 제 구상이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여러 가지의 연구과제와 특정의 군사적 응용 또는 기술과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군사 이용의 점까지도 구명하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잠재적인 운영상의 이점에서 보아 그 이상 개발 생산 및 전개를 위한 경비를 들일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획의 경비에 대하여 상세한 구명이 시작된다.」

넷째로 “공학 개발” 노력의 지향 방향을 맥나마라 장관은 다음과 같이 교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부대의 사용 및 작전 기용을 위하여 특별히 생각된다면 (단, 생산 및 전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 병기체계 또는 장비의 설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여러 단일의 개발과제에 대하여 대폭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System을 전면적인 공학개발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의 특정 한 작전상의 요구를 결정하여 이의 비용 대 효과 비를 다른 가능한 대안과 비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체에 대하여 개발 방침을 주도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 있어서는 명백한 목표, 계획구분 및 계획 일정표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로 “실용 체계 개발” 노력의 지향 방향은 「생산과 전개의 허가를 받은 병기, 체계 또는 장비의 개발, 실험, 설계의 개량인 것이다. 또한 생산과 전개를 진행하도록 결정 되면은 그 후에는 임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위의 두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비, 군사적 효과 및 이의 타방향에 이용되는 대체 System의 비용 대 효과비를 감안하고 전략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문제까지도 판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실용체계 개발은 선정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적의 상대적 무기의 위협이 무엇이며 이에 대응할 다른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군사적 가치의 잠재적 예측까지도 포함하며 가능한 한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기체제의 개발방향은 단기적인 방향에서 모방개발이 일부에서 전체의 국산화율을 위하고 필요한 군사적인 효과에 따라 성능을 개선하는 성능개량 개발이 긴급한 병기선정 순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한편 장기적인 개발 방향은 기술의 기적이나 비약의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계적인 개발이 군사적인 가치를 증시하여 기획되고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무기체제 개발의 전개

무기체제를 국가 방위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국가의 군사목표에 입각한 전략 및 전술 개념이 국방정책적인 차원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단계의 전개 과정이며 여기서 무기체제의 개발과제 및 순위가 선정이 될 것이다. 제 2단계의 전개 과정으로 개발하는데의 기본 요건에 적합하도록 검토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중히 전개되어 단기 및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내용적인 사업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무기 개발의 기술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가능성 수행 방법 혹은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고 선정된 무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분석까지도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의 제 3단계의 전개 과정으로는 요구되는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의 제 조직을 동원 하여 지정된 일정표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종합 관리하는 개발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하는 개발진행의 단계인 것이다. 여기서는 실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실제로 생산이 되는 개발의 최종단계에 해당되는 계획들이 인력 설치, 자금을 대한 내용과 함께 집행되도록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나의 무기체제개발을 전개시키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단계에 있어서 이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주도하여야 할 조직의 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제 1단계에 있어서는 개발하여야 할 무기가 무엇인 가라는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전략 및 기술개념의 설정으로부터 유도하도록 하는 국방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국의 경우 국방성 내의 용병요구 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 본다.

제 2단계에 있어서는 선정된 무기체제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개발조건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전체적인 개발추진을 위한 기술요건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

마치 영국의 국방성 내의 기술 연구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 3단계에 있어서는 선정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 활동의 계획 관리 평가를 집행 전담하는 기능의 조직인 것으로 마치 특정된 연구 개발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영국의 경우 병기 개발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무기체제의 개발 전개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위하여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기 개발의 전개보다 어떤 특정된 무기의 개발을 가정하여 기술한다면 전개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전개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보기로 한다.

만일 무기체제의 하나로써 단거리 전술용 Rocket병기를 선정하여 개발을 한다는 가정에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전개를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 고려하여 몇 가지의 가상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제 1단계 : 무기 선정 과정

1. 정책 결정 : 무기선정의 정책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진 국방 관계수준에서 현재와 장차의 전략전술을 검토하여 ○○용 병기 및 전투 정면에서의 적 화력을 제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단거리 전술용 로켓의 군사적 가치를 결정한다.
2. 무기 선정 기준 : (가)현재보유 병기의 군사적 가치와 전술에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나) 적의 화력과 전술의 평가에 의해서 제어 가능한 병기이어야 한다.

3. 무기선정 : (가) A형의 로켓 병기는 현 보유용 병기로서 XX년도까지 모방 개발한다.

A형의 성능 ○병용, 사정 000m, 파괴위력 000, 무게 00kg,

(나) B형의 로켓병기는 A형의 전술상 성능을 향상시켜 XX년도까지 성능개선포로 개발한다.

B형의 성능

○○용, 사정 0km, 파괴 위력 000, 무게 00kg, 00발사방법

(다) C형의 로켓 병기는 전투 정면에서의 적화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신기 무기로써 XX년도까지 개발한다.

C형의 성능

○○용, 사정 00km, 파괴위력 00m² 00 및 XX 발사용 무게 00kg

제2단계: 무기 개발 조건 선정 과정

1. 정책 결정 : (가) A형의 병기는 현 보유 병기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개발 전개가 요구되고 총 동원적인 체계로 개발 수행이 되어야 한다.

(나) B형의 병기는 A형의 성능 개선을 개발함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요건을 갖고 있다.

00부분 및 탄두 부분의 기초 개발을 XX년도까지 해결하도록 집중개발한다.

(다) C형의 병기는 장기적인 연구개발과정을 거쳐서 XX년도까지 개발하기 위하여는 기술 확보 및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XX 부분과 유도 부분에 집중 개발을 한다.

2. 개발조건 선정 : (가) A형의 로켓트병기

A형의 00부분은 즉시 국산가능한 것이며, 00부분품 이외 0개는 기술지원이 요구되며

00부분품은 XX년도까지 개발 가능하므로 투자를 하며 완성하기까지는 수입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A형의 개발을 위하여는 00기관 외 00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나) B형의 로켓트 병기 A형의 성능 개선이므로 00 부분품을 개선하고 00 kg 만큼 무게를 증가시키므로 기술 가능하다. 여기서 A형의 00 부분품은 국산화를 A형의 경우로 계속 발전시키면 가능하고 00부분품은 XX년도까지 실험 개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성능 보장을 확인하는 시험은 000발하여야 한다.

(다) C형의 로켓트 병기

장기적인 계획으로 00 부분의 성능을 위한 개발이 XX년도까지 보장되도록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00 부분의 기초 문제는 00 연구 분야에 서 적용 가능토록 완성하여야 한다.

00방법의 적용을 위한 시험을, XX년도까지 설계 제작하여 시작무기의 실용 체계 개발을 00 기관이 전담하여야 한다.

C형의 개발에는 00분야 및 XX전문 기관의 00명의 연구팀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로 한다. 특히 기술요원의 훈련 교육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부 기술인의 확보가 연차적으로 요구된다. 이 요구 인원은 00 기관과 00 부에서 매년 00 명을 확보토록 한다.

3. 개발 기획 결정 : A형, B형, C형의 무기를 기술적 요건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 활동 전개를 위한 기획안이 결정하게 된다.

제3단계: 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1. 정책결정 : 제 2단계의 종합적 개발 기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동원되는 제 기관의 능력을 평가하여 업무를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결정한다. 참여되는 연구기관도 역시 자체의 개발 능력에 따라 집행의 세부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개발 업무 확정 : (가) A형, B형 및 C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제기관을 동원하고 기술 개발 내용과 진행 및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일정표에 의해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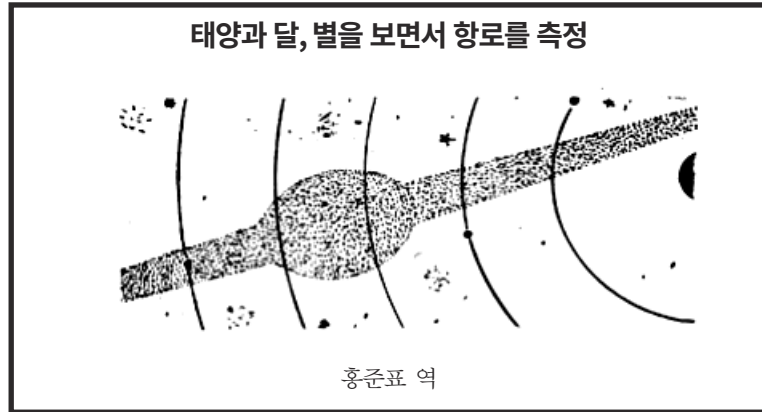
(나) 동원되는 인원, 장비, 설비에 따르는 자본의 투자, 운용에 관한 효과적인 집행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5. 결론

무기체제는 국가의 안전보장문제와 직결되는 최우위의 요구가 되고 있으며 이것을 개발함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논의하여야함을 재강조하고 싶다. 또한 무기의 개발이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는 전략 전술 개념에 입각한 무기체제의 개발이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개발에 있어서는 분산적이고 개별 기관에 의한 의존도가 있는 것보다는 우선 집중적인 총동원 연구 개발체제를 확정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가져 오도록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장기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신중히 요건들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무기의 개발은 고도의 기술 수준과 거대한 자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이론과 방법이 충분치 못하고 기술 요건이 미흡한 조건에 있어서는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투자 대 효과비를 향상시켜 방위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전개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미 선진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어 최적화한 무기체제의 개발을 가능토록 하여 방위의 불 실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국가적인 요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무기체제 개발에 관한 짧은 의견을 전문 지식이 없이 또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식적인 것을 기술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맺는다.

천측항법(天測航法)



천측항법은 지금도 유효

무선항법과 같은 편리한 방법을 생각해내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바다를 건너 왕래하고 있었다,

범선의 시대에도 항법 기술은 있었으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대보다는 더욱 중요한 생명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 기술이었다.

여러 가지로 우수한 보조수단이 완비되고 있는 작금보다도 훨씬 신중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항법의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것은 천측항법이다.

태양과 별을, 보면서 항해자들은 바다를 항해하였다.

결코 손쉬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의지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천측에 의한 위치 결정의 기술은 대단히 발달해 있었다.

천측항법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최근의 항공항법에서는 잔손이 많이 가며 불편한 천측항법도 그다지 환영 되지 못한다. 천측용의 장비를 갖고있는 비행기는 보기 드물 정도이며 사용법도 거의 잊다시피 돼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인간이 항법을 생각해 낸 기초가

그대로 포함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항법 수단에 비하여 전연 보조시설이 불필요한 특징이 있다. 유사시에는 최소한도라도 천측항법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무선항법은 아주 편리하며 쓰기 쉬운 수단이지만, 지상의 전파발사시설과 기상의 수신기계가 필요하다.

만약 그 어느 한쪽이라도 고장을 일으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상의 콤파스시스템에서 고장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상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만 만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야간에 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 「라디오·콤파스」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이로가 부조(不調)하게 되었을 경우 불시에 일어나는 불안감에 부닥친다. 「스텐바이·콤파스」(자기(磁氣)콤파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겠으나 불사의 한 일로서 아무것도 신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때에 천측의 지식이 있었다면 별이나 달의 위치를 확인하였을 때 안심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천측항법을 믿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군항공에 있어서는 반드시 천측 항법의 교육을 한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면 전연 모르는 적지에 깊숙이 진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다른 수단은 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적지에서 피탄되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기지까지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천측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전시 중이면 미지의 장소에 불시착하여, 별만을 의존하고 걸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것은 천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생긴 것이며, 인간이 최악의 경우에 처했을 때는 결국 의지하게 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옛날 수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북극성을 바라보며

북반구의 중위도지방(中緯度地方)은 만일의 경우에 별에 구조를 받기에는 가장 조건이 좋은 장소이다. 북극성(Polaris)이 있기 때문이다. 폴라리스가 있는 방향은 거의 정면으로 북쪽이 되며, 폴라리스와 수평선이 만들어지는 각도가 그 장소의 위도가 된다. 정확한 위도는 육분의(六分儀)가 없으면 측정할 수 없으나 그래도 목측은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향은 확실히 안다.

실제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북위 60도 정도가 되면 북성의 위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방위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북위 10도 정도에서는 지나치게 낮아 지므로 발견이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는 북반구의 중위도지방은 제법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Southern Cross)이 방위의 기준에 사용되나 북극성에 비하면 훨씬 불편하며 부정확하다.

여기서는 천측항법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천측력이나 천측표, 육분의 등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원리만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오로지 북극성만이라도 정확한 지식을 가졌으면 한다. 북극성을 보는 방법은 북두칠성 중 두 개의 별의 간격을 5배로 연장한 앞에 있는 2등성(二等星)이다. 이 연장선의 반대측은 사자좌(獅子座)의 헤규러스가 있다. 또 하나의 보는 방법은 가시오피아좌의 W성(星)을 사용하는 것이다.

북두칠성과 북극성과의 관계 위치의 바로 반대측에 W형으로 줄지은 가시오피아의 5개의 별이 있다.

그러므로 북두칠성과 가시오피아의 5개별을 보았으면 그 중앙에 북극성이 있는 셈이다. 천체는 24시간에 일주하므로 시간에 따라서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위도지방(低緯度地方)이면 지평에 가려져 있어 북극성을 찾을 때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반대측의 가시오피아와 함께 생각해서 언제라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연습한다. 북극성은 거의 정면 북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의 57분 정도 틀려 있으며, 이것이 적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 그러나 통상 인간의 눈으로서는 1도 이내의 오차에서는 판별할 수 없으므로 항상 같은 곳에 있어, 이를 중심으로 천체가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극성의 높이 각고도(角高度)가 그 장소와 위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오차를 일으킨 부분을 보정(補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천측력에는 반드시 폴라리스의 보정표가 붙어 있다. 더욱 이를 보정하지 않아도 차는 1도 이내이므로 지표면에서 최대의 경우에도 60mm 이하의 오차이다.

간단히 북위 30도의 곳에서는 30도의 높이에, 45도의 장소에서는 49도의 고도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과과 없다. 북극성이 보였으면 그 반대 측을 보라.

만약 위도의 얇은 지방이라면 붉은 별, 안테레스가 보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여름철에는 잘 보인다. 특히 비행기의 위에서는 지평 이하도 보일 것이므로 발견되는 율이 높다. 이 붉은 별이 있으면 그 쪽이 남쪽에 해당한다.

천동설(天動說)로 생각하자

간단히 별이 북극성의 주변을 돈다고 했지만 별로 코페르니쿠스 및 가레리오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항법을 위해서는 지구를 고정하여 하늘이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필요 이상의 말이긴 하지만 옛날의 항해자에 있어서 지구가 도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때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지구를 천구체(眞球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외측에 하늘이 구체로써 존재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2개의 구체는 지구의 중심을 축(軸)으로 하여 동심원(同心圓)이 된다. 그러면 지구의 표면상의 모든 점은 천구상(天球上)에 투영된다. 폴라네타늄을 생각하면 곧 알 수 있다. 지구의 중심에 천구를 놓고 지구의 외측의 커다란 구형을 스크린에 투영하면 된다.

반대로 천구상(天球上)의 모든 점도 내측에 있는 지구의 구체의 표면상에 투영할 수가 있다. 지구의 중심에 지표면의 어느 한 점을 연결하여 그것을 연장하면 천구상의 어느 한 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지구상의 점과 천구상의 점이 상호 투영하는 관계가 된다.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낸 선은 지표면과 직각으로 맺어진다. 그러면 천구상의 한 점이 지구표면상에 투영하는 것은 지표면상에 그 수선(垂線)이다.

이점은 하나 밖에 없다. 이를 서브포인트(Subpoint)라고 부른다.

지표면상의 서브포인트에 서 있으면 그 천체는 마치 직상에 있는 셈이다. 천구는 무한의 큰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켄타울스의 α 성(星))만 하더라도 지구에서의 거리가 43광년이 나 된다. 거리가 멀어 거기에 있는 항성(恒星)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비치는 점으로써 취급된다.

또한 이 점에서 지표에 도달하는 광선은 모두 평행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틀리면 그 내용을 모르게 된다. 천구의 반경은 무한함으로 이와 비교하면 지구의 반경 등은 무시된다. 지표상의 어느 점에 오는 항성에서 광선도 모두 평행하다.

지구와 천구는 동심이므로 천구상의 점(별로써 나타냄)의 상호 위치와 지표상의 각 점에 서브포인트의 상호 위치와 일치한다. 천구상의 두 점의 각거리(角距離)와 지표상의 두 점의 각거리가 똑같다. 또한 천구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에의 방향은 그 서브포인트에서 다른 서브포인트에의 방향과 동등하다.

관측점(觀測點)과 서브포인트

서브포인트에 서면, 그 별은 직상으로 보인다. 북극의 극점은 북극성의 서브포인트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북극에 서는 북극성이 직상에 있는 셈이다.

수평선에서 천정까지, 각거리(角距離)는 90도의 높이에 있다.

이를 천체의 높이라고 한다.

이 천구상을 연결하는 선이 지구표면과 교차되는 곳이 서브포인트이다.

이 위치에서는 별의 고도는 90도이다. 지표상의 어느 점에 서더라도 그 점에서 지구의 주변과 접하여 그은 것이 수평선이 된다.

또한 이 점과 지구의 중심을 맺는 선을 90도에서 교차되는 선을 그으면 이것이 여기서 보이는 수평선이 된다. 지구의 반경만 스쳐 간 평행선이지만 천구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는 차이일 것이다. 여기서 수평선에 대한 차의 고도를 측량한다.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별에서 지구에 달하는 광선은 모든 점에 대하여 수평행이다. 따라서 이 지표상의 점에서 측량한 별의 교도(수평선과의 각 거리)도 하늘의 수평선에서 별까지의 고도도 같다.

지구의 중심을 통하는 선이 지표면에서 교차될 때 그 각도 1도에 대한서의 지표면의 거리는 60nm이었다.

세 개의 별을 연속하여 측정한다

여하히 해서 관측점의 위치를 보느냐 하면 위치가 다른 2개 이상의 별을 계속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90도 관측고도) 60nm을 건 반경이며, 각각 원을 그을 수 있다. 그 원 안에 교차된 위치에 관측점이 있는 셈이다.

두 개의 원에서 같이 접할 경우 이 외는 교점(交點)이 두 개가 된다.

세 개의 별을 측정하여 원 세 개를 자리잡을 수 있으면 이론상 그 교점은 1점 밖에 없는 셈이 된다.

그러면 틀릴리는 없다.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측정오차가 생기므로 웬만해서는 한 점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 개의 별을 측정하면 각각 같은 비율로 오차가 생기므로 삼각형의 중심을 정하면 그곳이 관측위치를 측정하는 점이 된다.

시계와 시보전파(時計와 時報電波)

천측방법이 발달하여, 정확도를 높여온 것은 시계의 발달에도 한 원인이 되었다. 정확한 시계가 사용될 수 있게끔 되기까지는 대부분 별을 이용하여 방향을 정하는 등 별과 달의 관계 위치나 태양의 정중시(正中時:정오)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하히 정확한 세력(歲歷)이 있다 해도

시간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다.

천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요구된다. 만약 시각의 오차가 4초 있다면 측정이나 계산이 제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시각의 오차만으로 위치는 1mm이나 틀리게 된다. 1분이 틀리면 그 차는 15nm이 된다.

주로 천측의 필요에서 항해용이나 항공용에서는 이전부터 고급의 시계를 사용해 왔다.

각 비행장의 운항관리실에는 오차율 검정을 받은 클로노메타가 장치돼 있다. 그리고 조종사나 나비게타는 보통 스톱워치가 달려있는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행전에 반드시 마친다.

이전에는 항법이라고 하면 천측이 주이었으므로 거추장스럽게 대형의 천측 시계를 지참하였다.

작은 천측이 보조수단이 되었으나 그래도 시계만은 여전히 고급품이 애용되고 있는 듯하다.

여하히 정확한 시계라도 비행용 시계를 가지고 걸어 다니면 반드시 오차를 일으킨다. 오차가 있어도 그 치(值)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는 없다.

하루에 30초 더 가는 시계이면 4시간 마다 5초의 오차가 생기게 돼 있으므로 계산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곤란한 것은 더 가든가 또는 늦는다는 하는 불규칙한 시계인 경우이다. 정확한 시계를 알며 시계를 교정하기 위해 세계중(世界中)에서 방송에 의하여 시보를 보내고 있다.

중파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수신해도 시보는 알지만 시보 전용의 전파를 내고있는 방송이 있다. 항공이나 항해를 위해서 전용으로 시보를 방송하는 것은 미국의 와싱턴(WWV), 하와이(WWVH), 영국의 라그비(MSF), 이태리의 토리노(IBF), 남아프리카연방의 요하네스버그(ZRE21), 일본 동경(JJY)의 6개소이며 각기 국제 기준에 따라서 시보 전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1일 24시간에 걸쳐 매분. 의 시보를 보내고 있다. 이 중 몰스부호에 의한 식별 부호와 시보, 음성에 의한 식별 부호와 시보가 각국 말에 의하여 방송된다. 또한 이 시보 중 에서 몰스부호에 의한 전파경로도 송신된다. 이것은 12시간 이내의 전파의 전파상태(電波의 傳播狀態)를 전하는 것으로써 W(·)가 이상현상의 발생, U(·)가 이상현상의 발생불확실(불안정상태), N(·)가 이상현상 없이 정상을 나타낸다.

천측 「랜드 휠」법

야간의 천측은, 북극성이나 혹성(惑星), 거기에 달까지 사용되므로 3개 이상의 측정 대상을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를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주간인 경우는 태양 외엔 다른 아무것도 없으므로 천측에 의한 위치선(Lop)은 하나밖에 취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서서는 안점(安點·Fix)은 되지 않으며 추측항법이나 기타의 항법수단을 병용하여 MPP밖에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구해낸 Lop는 코코스 라인의 경우와 스피드 라인의 경우가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동서로 날고 있을 때는 코코스 라인에 가깝게, 남북으로 날고 있을 때는 스피드 라인에 가까운 Lop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즉시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쓸 수 없는 광막한 해상을 날아 적은 섬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섬을 지나쳐 버리면 큰일이다.

항법에 오차가 있어서 옆으로 벗어난 코코스를 날고 있었다면, 영원히 섬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코코스의 위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태양의 천측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Lop를 코코스 라인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 시각에 응하여 Lop의 방향은 결정된다.

따라서 섬에서 Lop의 마주치는 코코스를 그어서 우선 이 코코스를 타고, 그 후는 코코스상에 있는 것을 천측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한 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스피드 라인은 추측항법이 되므로 오차의 수정이 되지 않는다. 위치가 부정확하게 되므로 도착시간에는 대단한 오차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10분이나 20분 도착시간이 뒤틀려도 생명에는 별 지장 없다.

오로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돌아가면 되는 때문이다.

「랜드 휠」의 실례

「랜드 휠」법이라는 것이 옛날의 항해에 사용된 수단이었으나 이것은 범선 등으로 목적하는 항구를 발견하는 항법이다.

예를 들면 태평양을 횡단하여 로스앤젤리스의 항구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정확한 항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직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람이나 조류가 있으므로 오차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로스앤젤리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미국 대륙연안에 도착해서 어디로 향하여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어물 어물하는 사이에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조난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때는 최초에서 로스앤젤리스의 북쪽이면 북, 남쪽이면 남이라고 확실한 방위를 지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를 지목한다.

바람이나 조류를 예상하여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로스앤젤리스보다 남쪽으로 차지하지 않도록 북쪽을 지목한다.

그리고 미국 대륙에 도착하면 바른쪽으로 돌아 남하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로스앤젤리스에 도착한다. 언제나 태평양을 보오트나 뗏목으로 건너는 모험여행을 할 때는 이 「랜드 휠」의 원 측을 사용한다.

천측(간단한 방위 결정 정도)을 하여 확실히 북쪽에 따라서 전진, 대륙이 보이면 바른쪽으로도 가는 방법이 태평양 횡단의 원측과 같은 것이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항법수단이 불충분하다면, 범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하루와 1년의 길이

천측에 관한 것과는 좀 다르나 천측에 관한 필요한 지식이 되므로 설명해 둔다. 우선 하루와 1년의 길이이다.

보통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360도의 1회전을 하는 길이(자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항성(恒星)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공전) 데서 이다.

1년만에 태양의 주위를 1주 하는 것이므로 태양과의 관계는 자전의 1회전마다 조금씩 빗나가서, 1회전보다 약간 많지 않으면 똑같은 관계위치에 오지 않는다.

지구가 1회의 공전(1년)을 하기 위해서는 약 365회의 자전을 함으로 1회전시마다 약 1도의 빗틀림이 생겨 태양에 비하면 항성은 1일에 있어 1도씩 서쪽으로 이동한다.

하늘의 자오선(子午線)이 같은 위치에 오는 것은 태양이 같은 위치에 오는 시간보다 1회전에 있어 약 4분이 빠르다.

현재의 1일이라든가 1년은 태양일(太陽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성을 기준으로 한 항성일과 1일에 대하여 약 4분의 차가 있다.

1회의 공전이 끝나는 1년만에 지구는 365.24회 자전하지만 항성일은 365.24일이 되는 셈이다.

또한 1년에 있어 0.24회(5시간 48분 46초)의 자전의 단수가 나오지만 이것을 4년마다 다가오는 윤년(閏年)으로 가감하여 태양력이 돼 있다.

윤년은 400년간에 97회, 평년은 303회로 결정하고 있다. 다음은 하루의 길이이다. 하루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곳의 반대 측의 자오선을 태양이 통과하는 때부터 다음으로 통과하기까지의 길이이지만, 이 하루의 길이가 1년을 통하여 달라진다.

하나는 태양의 경로인 황도(黃道 : 지구의 公轉軌道)와 지구의 자전축과 직각의 면인 적도가 23도 27분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지구에 대한 태양의

운동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또 하나는 지구의 공전궤도가 장원형(長圓型)이며, 태양이 중심에서 기울어져 있으므로 공전의 각 속도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도 1일의 길이가 달라져 시간의 단위도 변해지고 있다. 이로써는 곤란하므로 하루의 길이를 1년을 통해서 평균한 평균 태양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일이 24시간이라든가 1시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 대신 1일의 길이는 +14분에서 -16분의 범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태양일은 등속(等速)이며 24시간에서 1회전이 되므로 1시간에서 15도, 4분에서 1도, 1분에서 15초씩 달라진다. 지구상의 각 위치는 경도(經度)에 응하여 이 시간차가 있는 셈이다.

이로써는 불편하므로 왼쪽으로써 경도가 15도 변할 때마다 1시간이 달라져 그 지대의 Zone Time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측에 사용하는 태양이나 별의 위치는 반드시 천측력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의 기준도 클리니치 표준시간(GMT)을 사용하여, 천체의 지방시각을 구하는 것은 클리니치시각(GHA)에 그 지방의 경도를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후에는 달이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므로 움직임이 전연 다르다. 달이 같은 항성과의 관계위치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1항성월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27.3127일에 해당한다. 이것은 1일의 각 속도로서 약 13도이다. 24시간에서 13도 움직이므로 달이 나오는 것은 매일 52분 정도 늦어진다.

달이 만월에서 만월까지에 요하는 시간을 1삭망월(1朔望月)이라고 한다. 이것은 태양과 달을 지구와의 관련이 되지만 공전을 계속하면서 더욱 지구의 자전에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성월(恒星月)보다도 2일 정도 길게 되어 1삭망월은 평균 29.5306일이 돼 있다.

이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일력이 태양력(太陽歷)이라고 불리 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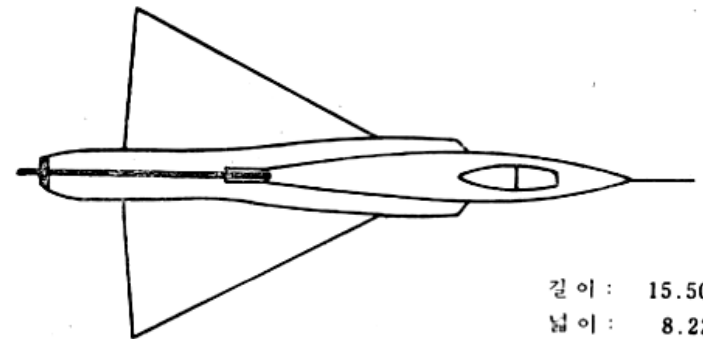


하늘의 승리

문무길

머리말

가장 최근의 "하늘의 승리"는 4년 전 이스라엘의 대 아랍 6일 전쟁에서 보았다. 오늘날 적어도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게 싸워 이기려면 "하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강력 한 공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항공기의 특성이 적 심장부 깊숙이 들어가 순식간에 상대에게 피해를 크게 가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간에 요구하는 규모의 화력을 자유로이 그리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가올 아랍과의 전쟁을 예견하였고, 소수로 다수를 물리치는 길은 더구나 주위가 적으로 뺨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공군력의 강화라고 결론지었다. 마치 온 바다가 적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위에 뜬 항공모함이라 생각하였고,



MIRAGE III S

길이 : 15.50m
넓이 : 8.22m
무게 : 7,050kg
속도 : MACH 2.2

<그림 1>

바다에 비해 작고 좁기 이를 데 없는 항공모함의 갑판에 탱크나 보병보다는 역시 항공기를 탑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중작전에 주동역할을 한 항공기는 프랑스제인 Dassault Mirage III라는 비행기인데 날개가 삼각형(Delta)으로 되어있다. 꼬지날개(수평 안전판=Horizontal Stabilizer 혹은 Flying Tail)가 없는 이런 델타형의 항공기는 그 특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속보다는 중간 속도나 저속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개인 의견으로는 당시 아랍의 MIG-21을 이스라엘의 Mirage 에 유리한 속도 및 고도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중결판을 넘으로써 양쪽의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F4E라는 개량된 팬텀기를 받아들여, 그들 자신 소련의 최신예 전투기인 MIG-23을 대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월남전에서 미국의 팬텀기들은 큰 공을 세웠다. 많은 폭탄을 적진에 쏟아 놓는 힘도 크려 니와 하늘에서 적기와 싸우는 능력도 크게 인정받았다. 나 자신도 팬텀을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일원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뿐 아니라 영국, 일본, 서독, 오스트리아 등등 많은 자유우방에서 팬텀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소련제 전투기들이다. 소련블록의 공군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MIG전투기들은 MIG-15로부터 MIG-17, MIG-21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엔진의 출력이 높아서 공중기동에는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힘을 잡는다면 이들 MIG는 침공기에 대한 요격에 주안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폭탄 적재량이 적고 전투행동반경이 짧다.

미국이 팬텀 등의 다목적 항공기 즉, 공중전에도 우수하고 대지공격용으로 도 훌륭한, 그리고 전천후(야간이나 운중에)요격도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든 데 비해 소련은 요격이나 지상목표공격 등 어느 한 쪽에 역점을 둔 항공기 제작을 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도 이제는 MIG-23이라는 다목적 항공기를 제작하여 작전부대에 배속시켰다. 재래의 소형, 경량에서 대형, 중량으로 방향을 일단 바꾼 소위 “전투폭격기”의 면모와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 MIG-23의 출현은 공중제패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더욱 자극을 주었다. 미국은 현재 F-14, F-15, B-1 등의 항공기 개발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중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항공기의 발달은 국가의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여건에 따라 항공기의 모양이나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이익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을 국방적 견지에서보다도 상품적 가치에 역점을 두는 국가도 있다. 어쩌면 위의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항공기 제작에 진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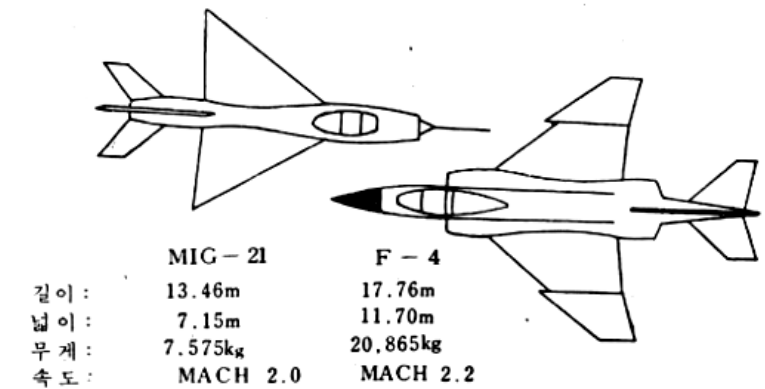
그러면 미국과 소련에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공중제패를 위한 전투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MIG-21.과 F-4(팬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MIG-21은 소련제 전투기로서 현재 복귀가 100여대 보유하고 있다. 복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는 가장 공중기동성이 좋은 것으로서 역시 복귀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소련제 항공기인 Su-7은 MIG-21보다 무장을 더 할 수 있으며 공중전보다 대지공격용, 특히, 근거리 대지공격용으로 알려져 있어 공중성능이나 전투행동반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MIG-21보다는 그 위협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MIG-21에 대한 미국제 항공기인 F4를 비교한다면 더구나 F4를 우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가. 모양과 크기 등 외형적 특징

MIG-21과 F-4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그림 2>

올려다 볼 때 그 모양이 비슷하다. 주익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미익은 재래의 기타 항공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MIG-21의 수평안전판이 수평인데 비해 F4는 약 20° 가량 밑으로 쳐져 있다. 그리고 공기흡입구가 기수에 하나 있는 MIG-21에 비해 엔진이 둘 장착된 F4는 동체(비행기 몸체)의 양쪽에 하나씩 있다. 따라서 분출구(Exhaust Pipe)도 MIG-21은 하나이고 F4는 둘이다.

이러한 항공기 형체에 대한 비교는 다른 항공기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개술하여 두는 것이다. 그런데 MIG-21과 F4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행기의 가격도 MIG-21이 30만불밖에 안 되는데 F4는 약 7배가 되는 2백만불을 넘는다.

앞에서 말한 가격의 차이를 보면 이 항공기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 다양성과 정확성을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급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고 그 사용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비싸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싼 것보다 좋다는 논리는 아니다. 비록 F4가 MIG-21보다 여러 목적으로 쓰여 질 수 있고 갖추고 있는 모든 장비는 공격목표를 바르게 찾아가는 일이라든가, 굉장한 화력을 운반하여 정확히 목표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일에 여간 좋은 것이 아니나 항공기 자체가 항공 역학적으로 갖는 특성 자체는 반드시 MIG-21보다 낫다고 속단하기에는 경솔함을 면치 못한다. 돈으로 치자면 F4 1대로 MIG-21 7대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그야말로 수치계산이 맞는데 과연 F4와 MIG-21이 하늘에서 만났을 때 F4쪽이 7대1로 유리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며, 문제이다. 여기에 조종사 기량의 우열이나 접전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의 불리 또는 유리함은 그 확률이나 조건이 대등한 것이라고 보고, 항공기 자체의 역학적 장단점을 논할 때 MIG-21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항공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특히 MIG-21은 증속하고 감속하는 성능이나 고공에서 선회하는 성능이 우수하다. 어느 특정 고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MIG-21이 F4보다 공중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MIG-21과 직접 대결하여 본 조종사나 기타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모든 조종사는 자기가 타고 있는 항공기가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서 자기에 유리한 영역으로 적을 끌고 들어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한데 F4에 과신한 나머지 자기 영역을 벗어나 MIG-21의 영역에 들어가

거기에 휩쓸린다면 고전이 아니라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모든 고도, 모든 속도에서 우세한 항공기라면 별문제이나 MIG-21과 F4의 경우 F4에게 유리한 고도 및 속도는 그 범위가 넓지 않다(그 고도와 속도가 무엇인가는 보안상 여기서 밝힐 수 없다).

항공기의 공중기동성을 개괄적으로 볼 때; ① 항공기의 속도범위(최저속도에서 최대속도까지) ② 항공기의 출력 대 무게의 비율 ③ 익면하중(쉽게 말하여 날개가 크면 익면하중이 크고 작으면 하중이 낮다. 날개가 후퇴각을 많이 가지면 익면하중이 낮아진다) 이상의 세 가지를 상호 관련하여 항공기의 공중 성능을 생각하게 된다.

첫째; 최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항공기 자체의 기존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빨리 달린다는 것은 기수만 들어주면 곧 속도에너지를 고도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것이며, 보다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공중전에 돌입할 수 있어서 상대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과 속도 속에서 싸움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빠른 것에도 한계는 있는 것이어서 실재상 공중전이 벌어져 서로 얼버무려 돌아가려면 너무 빠른 속도가 필요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음속의 3배로 접전을 개시하여 일단 교차 후 다시 교차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도는데 필요한 지역이 경기도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 더구나 음속 3배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4만 피트 이상의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것만이 좋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막힌다.

둘째; 항공기 출력과 무게의 비율인데 무게가 가벼우면 다시 말해서 출력 대 무게의 비가 크면 증속과 감속이 빠르고 빠른 상승률을 갖게 된다. 출력을 많이 내기 위해선 엔진의 용량이 커야 하며 엔진의 용량이 크면 연료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연료를 많이 싣고 다니려면 항공기의 전체 무게가 무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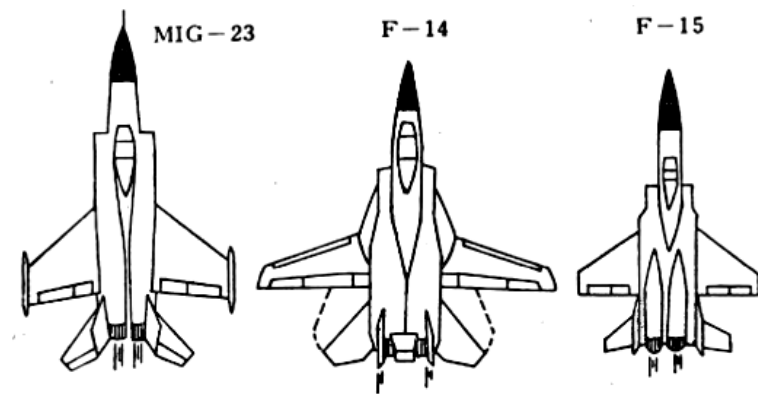
이렇게 출력과 무게와의 관계는 항공기 성능면에서 볼 때 상호 이율배반적인 위치에 놓인다. 미국이나 소련이 각기 전투기 제작에 있어서 출력 대 무게의 비율을 다른 부분의 큰 희생없이 높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항공기 공중기동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째; 익면하중이 큰 것이면 고속에 부적합하나 고공성능이 우수하고 선회율이 우월하여 작은 선회반경으로 공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속도를 유지하며 기동할 수 없고

증속이 늦기 때문에 경쾌한 속도로 수직기동하는 항공기에 조우하면 불리하게 된다. 여하간 이상의 3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공중전 상황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조절되어 항공기가 제작되었을 때 그 항공기는 가장 우수한 공중기동성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① 공중전은 대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싸움의 대부분이 4만피트 이하 해면고도에 이르는 공간에서 일어난다. 4만피트 이상에서는 어느 항공기 이건 그 기동성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비교적 소련제 항공기들이 고공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 항공기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가하여 온다. ② 공중전(Dogfight)은 대개 Mach 1.6에서 Mach 0.4의 속도 범위에서 행하여 진다(Mach 1.6이란 음속의 1.6배란 뜻이며 따라서 Mach 0.4는 음속의 0.4배란 뜻이다) Mach 1.6은 시간당 1,000마일을 넘는 Mach 0.4는 속도이며, 약 300마일의 속도이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의 싸움”은 지상에서 4만피트에 이르는 공간을 약 300마일에서 1,000마일에 이르는 속도를 가지고 교차하는 상태인 것이다. 나중에 추가 설명할 것이나 속도 음속의 2배나 3배나... 선회반경이 아주 적으니 하는 것이 위에 말한 고도와 속도의 범위 밖에서의 일이라면 사실상 공중전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치명적일 정도로 해로울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MIG-21과 F4는 공중 기동성능면에서 오히려 MIG-21에게 유리하다고 보며, F4는 MIG-21이 못 갖는 높은 폭탄 운반 능력



<그림 3>

이라든가, 원거리의 적기도 정확히 포착하여 공격할 수 있는 레이더 및 무기 계통을 충분히 이용하는 임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중에 있어서도 F4의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싸우는 전기가 응용되어야 한다.

2. MIG-23, F-14 및 F-15

가. 외형, 크기

1965년 이래 소련이 MIG-23에서 시도한 것은 대형의 다목적 전폭기의 성능이다. 재래의 단발 엔진에서 2개의 엔진을 장착하였고, 소위 가변익의 적용을 고려하여 Su-7B에 시험하였다가 결국 고정익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가변익의 시도는 미국의 F-111이 최초이며, 미국은 F-111에서 큰 수확을 얻지 못하였다. 현재는 FB-111이라 하여 F-111을 폭격 기화한 것이 일선에 배속되어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Mirage 8G가 가변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익은 미 해군에서 개발하여 금년말까지 3,600시간의 시험비행을 마치면 내년(73년) 중순에는 항공모함에 취역하게 될 F-14 톰캣(Tomcat)에서 볼 수 있다. 가변익을 영어로는 Variable Geometry Wing 혹은 Swing Sweep Wing이라고 하는데 이 가변익의 장단점이 논란되고 있다. 그러나 미 해군에서는 F-14의 특성이 함재기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험비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가 공중우세를 장악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미공군에서는 현재의 팬텀 기도 미 해군에서 개발한 것을 받아들여 왔고 최근 20년 내에 미공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기 없다는 데에 수치감이 나 혹은 무엇인가 공군에 맞는 항공기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사명감에서인지는 몰라도 F-15라는 그 모양이 F-14와 비슷하나 날개의 구조 및 크기, 무게가 다르며, 성능이 조금씩 다른 항공기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예산을 FY-73에 반영하여 F-15의 취역은 1974년이나 1975년에 가능할 것이다.

나. 성능

MIG-23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으나 외지에 의하면 MIG-23의 최대 속도는 음속의 3.2배라고도 하고 3배라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전문가는 음속의 2.4배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여간 MIG-23이 MIG-21보다 빠르며 복잡한 전자장비, 무기 및 화력계통장비를 가지고 있고 폭탄 운반량도 많을 뿐 아니라 공중기동성능도 대단히 우수할 것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MIG-23은 그의 가변익을 이용하여 폭넓은 속도 범위에서 고공이나 저공을 막론하고 자유스런 기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공기 요격을 위한 공대공 유도탄이나 지상목표 공격을 위한 공대지 유도탄의 탑재는 물론 공중전에 유익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구경 30밀리 이상의 기관포도 장착되어 있다.

미 해군은 1969년 이래 MIG-23에 맞서는 항공기 제작을 위하여 그라만(Grumman) 항공기 회사와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시험용으로 과대를 생산하여 각종의 시험을 하여 왔으며, 또한 금년말까지 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MIG-23	F-14
길이	21m	18.86m
넓이	12.m	19.54m(10.05m) 뒤로 젖혔을 때
무게	15,425kg(29,120kg)	16,330kg 이륙시(24,040kg)
최대속도	Mach 3.2	Mach 3.0?
실용 상승 한도	22,250m	23,000m
상승률(11,000m 까지)	2분 30초	2분 40초
전투행동반경	610NM	500NM
주: F-15는 F-14보다 작고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속도는 Mach 2.5, 전투행동 반경이 큰 것으로 되어 있음		

해군은 F14를 처음부터 다음 세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개발하여 왔다.

첫째 : 공중엄호 즉 적기의 출현을 억제하고 이군기들이 자유로이 비행활동을 하도록 하며 따라서 지상군도 작전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 항공모함 및 부수함대를 보호하는 것

셋째 :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는 것

이상 세 가지 임무는 공중작전에 가장 중요만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한 마디로 공중전에 우수한 비행기로 개발된 항공기이다. F14가 소련제인 MIG23에 비해 우수하나 열등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공중에서 한 번 대결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MIG23의 속도나 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수직 기동이 극히 우수할 것이라는 것과 그 날개가 고정익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중전에는 가변익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가변익을 가지면

저속에서는 날개를 옆으로 펴 보다 많은 양력을 얻을 수 있어 상대방의 비행기 보다 짧은 선회를 하여 쉽사리 상대의 후방에 위치하여 공격에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변익은 각 속도마다 그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어서 즉, 저속에서 날개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 실속의 염려가 있고, 고속에서 날개가 펴져 있으며, 기체를 무리를 가하여 해당계통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원하는 속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가변익을 가지고 공중전에 임하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속도, 고도 및 기타 여러 상황에서 날개를 적합한 위치에 놓아야 그 날개가(가변익) 주는 이점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날개가 그렇게 빨리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맞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종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도나 속도를 계속해서 지켜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공중전시에는 그 속도가 Mach 1.6에서 Mach 0.4 사이의 영역에서 움직인다고 하였으니까 여기에 맞는 날개의 위치를 미리 잡아주고 그 외의 변경은 꼭 필요할 때, 즉, 최고속도를 내야 할 때나 최저 속도를 유지해야 할 때에만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공중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항공기가 공중전에 필요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가변익을 적용하였다면 가변익을 적용하는데 부수되는 복잡한 계통으로 인해 항공기 하중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여간 손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불리점을 안고서도 FM가 MIG23보다 우수한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그것은 날개를 폼 때의 이착륙 거리 단축이나(함재기로서 꼭 필요한) 날개를 접었을 때의 고속 기동성능이 비할바없게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하여 미 공군에서 착안하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F-15이다.

미 공군은 팬텀기를 제작한Douglas Medonnell회사와 협동하여 F15의 개발을 1970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과 내년 사이에 시험용 항공기의 다수 제작과 아울러 각종 시험에 열을 가할 생각인 것 같다. 우선 미 공군이 생각하는 F15의 성능은 FM의 엔진을 사용하되 좀 변형된 것으로 하고 날개는 가변익이 아니고 고정익으로 하여 익면하중이 낮은 것으로 하며(이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중전에서 날개의 위치를 바꾸는 어려움과 이의 불가능성을 제거하고 또한 항공기를 가볍게 하는 것임) F14는 조종사가 2명 타게 되어 있으나 F15에서는 조종사를 한 명만 타게 하며, F14보다 조금 작고 가볍게 함으로써 멀리 날 수 있게 하며

최대속도는 Mach 2.5 정도로 하여 구태여 Mach 3.0 정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의 출력이나 항공기 기체역학, 항공역학적인 문제를 부가시킬 필요를 없게 한다는 것이다. 공중전이 일어나는 속도의 영역이 대략 Mach 1.6에서 Mach 0.4라면 Mach 2.5 이상의 속도는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항공기가 빨리 달리자면 항공기 기체의 재료가 특수해야 되고 엔진의 출력이 높아야 하며, 상대적으로 출력에 대한 항공기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또 높은 출력의 엔진이란 그 엔진의 크기가 크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멀리 갈려면 항공기가 비효율적으로 무거워진다. Mach 2.5로 이의 적정선을 미 공군은 Mach 2.5로 잡고 최대속도를 제한하므로 생기는 무게의 경감을 다른 곳에 이용하자는 이론이다. 이것도 역시 두고 보아야 할 일이고, 실제 공중전을 통한 경험이 있어 보아야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겠으나 여하간 미 공군이 장담하고 있는 공중전의 패자가 F-15인 것이다.

MiG-23, F-14 그리고 F-15가 그 형태면에서 너무 비슷하며 항공기 제작사상 미·소의 항공기 형태가 이렇게 접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F-14가 가변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앞모양이나 뒤의 수직 안전판(Vertical Stabilizer)이 두 개라는 것 등 일른 보아서는 분별조차 힘들다. 이들 항공기는 1970년대의 하늘을 지배할 하늘의 왕자들이며, 이들의 역할과 그 후의 일들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모어 산책

세계에서 제일 짧은 편지
 유명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유고」가 소설 「레·미제라블」을 출판했을 때의 이야기다.
 출판사에 「?」라고만 적힌 편지를 보냈다.
 그랬더니 출판사로부터 보내온 답장에는 「!」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 두 통의 편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책이 팔리는 형편은 어떻습니까?」라는 것이 유고의 편지 뜻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잘 팔립니다!」라는 것이 출판사의 답장의 뜻이었다고.

용	기	의	열	정	은	가	진		
						군	인	이	되
									기
									를

- 공군 신병후련 중인 동생에게 -

최홍길

베드루!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네가 군문에 든지도 벌써 열흘. - 유수같은 세월의 흐름을 본다.

연일 계속되는 기본 군사훈련에 수고가 많겠구나. 늦추위 탓에 견뎌내기에 더욱 힘들고 어렵겠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다져진 우리 착한 베드루는 용감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순간 순간을 잘 견뎌나갈 것으로 믿어 자위해 본다.

고향의 부모님, 서울 형제들 모두 별 일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이곳의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군대생활에서 마지막 보람을 찾고자 분투노력하고 있다.

베드루! 오늘 나는 혈육으로 맺어진 형으로서 라기 보다 공군의 푸른 제복을 먼저 입은 군대 선배의 정리로써 한가닥 소망과 다짐의 격려를 보낸다.

이제껏 부모님 슬하에서 곱게 자라다가 「군대」라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특수 조직사회에 혼자 머물게 되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

베드루! 바라건대 용기와 열정을 가진 훌륭한 군인이 되어다오.

대학에서 논리를 추구하고 인간정리를 운위하던 네가 지금 「군인」이 되기 위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못 걱정이구나!

군인. - 낱말 자체에서 군대와 군대의 존립근거를…… 그리고 「군인」이 되기 위한

네 나름의 결단과 자세확립이 강구되어야 하겠지. 사람 「人」자 앞에 군인 「軍」자가 붙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신분상의 제약과 구속을 더 받지만 국방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무겁고 뿌듯한 사명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적에 우리들대로의 참다운 「군인상」을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와 우리들 세대가 군문에 들어있지만 나 이전에도 군대가 있었고 나 이후에도 군대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군문에 들어있겠지만 인생에 있어 꽃봉오리같은 젊음의 황금 시기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찬 것이 되겠는가.

베드루! 나는 네가 훈련받고 있는 항공병학교를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같이 Seminarium(못자리)으로 풀고 싶다. 항공병학교 시절에 제대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기술병은 실무부대에 나와 일등병이 되고 상등병, 병장이 되어도 결단코 훌륭한 일꾼일 수 없고 사회에 나가서도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없다 함은 4년여 군대생활을 하여 오면서 나대로 품어온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다. 눈에 못자리가 잘 잡혀져야 몸쓸 가라지도 가려낼 수 있고 가을에 보다 많은 결실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루! 지금 훈련 중이지만 제복을 입은 너는 군인이다. — 오로지 「군인」이 되기 위해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맹훈련을 받고 있는 너는 진실로 군인이다. 매일처럼 무장을 하고 구보를, 때로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군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네 장한 모습이 보고 싶구나!

지금 이 순간에 복讎 하늘 아래서도 너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우리들, 그리고 너를 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면, 베드루! 너의 정신무장상태는 대체 어떠하여야 할까?

이념과 주장이 서로 달라 동족끼리 서로 총 뿌리를 맞겨누며 대치하고 있다는 「한국적 비운」을 한탄하기 전에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절감하고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물론 매사에 성실하게 분투노력하고 있는 베드루라 믿고 있지만 한가닥 노파심에서 몇 마디 당부를 하여야겠다.

요즈음 결혼적령기의 총각들이 흔히 결혼조건으로 처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A(Age), B(Beauty), C(Character)가 군인인 네게도 갖추어졌으면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내 나름의 ABC론을 전개하자면,

첫째, Age

베드루는 스물 셋 나이가 될 터인데 몸과 마음이 함께 그 연령에 맞아야 하겠다. 아직 젊고 활달하고 의기있고 용기백배할 나이인데 주어진 여건이 불만이라 하여 분위기에 젓지 못하거나 마음이 늙어진다면 어떻게 제대로 군대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겠는가? 같은 연배의 전우들과 어울려 젊은 병사로서의 꿈과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간직하기 바란다.

둘째, Beauty

우리 여성들은 미. 아름다움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외적인 용모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속으로부터 흘러 나보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풍길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신으로서도 좋은 것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즐거운 마음을 더욱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다. 아름다움은 스스로 다듬고 아름다워져야겠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단정한 복장, 절도있는 언어 동작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여지게 한다.

미학에서도 그것 자체로 사실상 아름다운 것(순미 Schone)도 좋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것(우미 Aesthetische)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 대학 재학시 모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현인, 철학자는 미남(?)이어야 한다. 외적인 용모 차체보다도 평소 연마해온 학문과 덕성이 밖으로도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이,

또 언어동작 모두가 아름답게 비쳐진다.»고 했는데 베드루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군의 푸른 제복을 입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 주면 좋겠다.

셋째, Character

사람은 모두들 인격·품성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선천적으로 공자나 예수와 같은 성인군자는 예외가 될는지 모르지만 범속한 우리로서는 모두 스스로 연구·노력하는 가운데 후천적으로 인격 혹은 품위를 굳혀나가는 것 같다. 사람에게 있어 그 품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때처럼 괴롭고 슬픈 일이 또 있겠는가?

군대란 「마지막 교육단계」란 말을 듣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영역에서 아직 미성숙한 우리 젊은 군인들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혈혈단신의 고독한 조건하에서 자기 분수에 맞고 남에게, 사회에 해악을 주지 않는 바른 사람 삶의 길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다. 군대에서처럼 그의 1백 프로테이지에 가까운 신분과 행동의 제약을 주며 친절한(?) 인간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방종이 아닌 자유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 누릴 수 있듯 군대생활에서도 스스로 연구·노력 하면 군대 생활 전부가 자기 인생에 얼마만한 보탬이 될 수 있겠는지? —3년 군대생활을 마감하고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이었다면 이에 더 값진 무엇이 있겠는가?

……베드루! 하루 한 순간이라도 성실한 군인으로 열심히 살아라. 우리들의 미래는 오늘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군인으로서 사회인으로 서도 건강하게 커날 수 있도록 착실한 인간수업을 장만하여라.

너무 지루한 이야기만 하였구나! 아무쪼록 추억에 남을 보람된 병영생활, 훈련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천주님대전에 베드루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바친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 -형 레오로부터 -

■ 디스 오페라 감상

토스카(TOSCA) 1막

「자코모·뫼치니」작곡

Giacomo Puccini(1854~1924)

☆ 나오는 사람들

- 안제롯티·Cesare Angelotti(도망친 정치범) 베이스
- 성당직이 바리톤
- 카바라돗시·Mario Cavaradossi(화가) 테너
- 토스카·Floria Tosca(유명한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 스칼피아남작·Baron Scarpia(왕당의 경시총감) 바리톤
- 스포렛타· Spoletta..... 테너
- 샤로네·Siarrone(헌병)..... 베이스
- 옥리(獄吏)..... 베이스

그 외에 추가경·유언집행인·로베르티·재판관·서기·하사관·병졸·경비병
오페라 「토스카」는 1800년 6월 「로오마」시대의 「나폴레옹」
파와 왕당파간의 정치적 암투를 그린 「빠티리안·살도우」의
희곡 「토스카」를 「뫼치니」가 그의 독특한 표현과 정서로써
오페라화 한 유명한 작품이다.

가사는 「L·일리카」와 「G·자코사」가 작사하였고 이탈리아어로 되어있으며
1900년 1월 14일 「로오마」의 「콘스탄틴」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해설

제1막

〈「로오마」의 성 「앙드레아」성당 내부〉

한쪽에는 「아타반티」가의 특별 예배당
으로 들어가는 문이 번쩍거리며 닫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모상과 같은 여
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서가와 바스켓이 흩어져있다.

서곡이 없이 음험한 경시총감 「스칼피아」의 주제가 연주되자 막이 오른다. 탈옥한 「안제룣디」가 옥의를 입은 채 혈떡이며 등장 무언가 찾는 듯 성모상이 있는 곳을 두리번거리다 거기 숨겨둔 열쇠를 찾아 「아타반티」가의 특별 예배당 문을 열고서 그 안으로 사라진다.

흥겨운 멜로디에 맞추어 성당지기가 화필을 한손 움켜쥐고 들어온다. 신경통으로 가끔 고통을 당하는 듯 화가에 가까이 가면서 화필이 많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불평의 표정을 짓는다.

화가 「마리오」가 거기 없음을 알고 깜짝 놀라며, 식사바구니를 들여다보고는 식사가 그대로 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도고종(禱告鐘)소리. 성당직이는 무릎을 꿇고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운다.

「마리오」가 들어온다. 화가(書架)에 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 성당지기는 금발과 푸른 눈동자의 미녀의 초상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막다테」의 「마리아」상 아래에서 매일 기도하는 여인과 똑같다고 한다.

「마리오」는 웃으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영감을 주었노라고 말한다.

그는 화필을 놓고, 주머니에서 「토스카」의 작은 초상화를 꺼내 다시금 아름답다고 느낀다. 「마리오·카바라ட்ச」의 아리아 「조화의 묘미」, 여기서 그는 「토스카」는 흑발, 「막다테·마리아」는 금발, 「토스카」는 검은 눈동자, 「막다테·마리아」는 푸른 눈동자라고 두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

이어 성당지기는 속세의 감상적인 생각들이라는 듯 경건한 표정을 짓는다. 화필을 깨끗이 씻어놓고 바쁜 듯 나가며 익살스레 『왜 식사를 안 했느냐고』고 한마디 한다. 「마리오」는 다시 그림을 계속한다. 그때 「안제룣디」가 조심스레 예배당에서 나와 가까이 온다.

「마리오」는 한참 쳐다보다 그의 친구임을 알고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리 고는 재빨리 성당문을 잠근다. 「안제룣디」는 「쌍·안제」로 감옥에서 도망해 왔다고 말하자 「마리오」는 힘껏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때 밖에서 「마리오」를 부르는 「토스카」의 목소리가 들린다. 화가 「마리오」는 급히 식사바구니를 「안제룣디」에게 주고 다시 예배당으로 밀어 들어가게 하고는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마리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당을 열어 「토스카」를 맞이들인다. 오래 기다리느라고 지쳤기 때문인지 「토스카」는 「마리오」의 포옹을 냉정히 거절하고, 혹시 초상화의 주인공이 여기 있거나 없었나 하고 의심스레 주위를 두루 살핀다.

「마리오」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며 그림을 계속한다. 「토스카」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마리오」는 「안제룣디」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엉뚱하게 대답한다.

「토스카」는 초조해 하나 정열적인 「토스카」의 아리아 「사랑의 보금자리에서의 즐거움」에서 그의 의심을 다 잊은 듯 「마리오」도 이 열정에 끌려 꼭 만날 것을 약속한다. 걱정되는 듯이 예배당을 힐끔 힐끔 쳐다보며 일을 구실로 「토스카」에게 돌아가 줄 수 없느냐고 말한다. 막 돌아가려다 「토스카」는 심술궂게 『막다테 마리아」는 너무 아름답다』고 초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하다가 갑자기 그가 금발 벽안의 「아타반티」부인임을 안다. 질투에 찬 「토스카」는 아무래도 잠긴 예배당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라고 「마리오」에게 퍼붓는다. 「마리오」는 쓸데없는 의심이라고 조용히 「토스카」를 달랜다. 「토스카」는 사랑스레 그의 의심을 풀겠노라고 대답하고는 「막다테·마리아」의 눈을 자기 눈처럼 검은 눈동자로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겠다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서는 나가버린다. 「마리오」가 「안제룣디」를 예배당에서 불러낸다. 「마리오」는 그의 탈옥과 또 그것이 그의 누이 「아타반티」부인의 도움이 컸으며, 그는 또 무시무시한 「스칼피아」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변장복을 성모상 밑에 숨겨두었다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란다. 「마리오」는 「안제룣디」를 그의 별장에 가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열쇠를 주고 지하실로 해서 나가는 비밀통로를 가르쳐 준다.

「안제룣디」가 성모상 아래에 서 옷다발을 꺼내들고 막 나가려 하자, 이때 몇 발의 포성이 울린다. 탈옥이 발각된 것이다.

「마리오」는 「안제룣디」를 그의 집으로 안내하기로 마음먹고 급히 나간다. 성당지기가 뛰어 들어와서는 「마리오」가 없어진데 깜짝 놀란다. 뒤따라 합창대의 소년들과 시종들이 웅성대며 들어온다. 성당지기는 그들에게 「나폴레옹」의 패주와 왕당의 대승리를 알리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저녁 홀륭한 떼데움(Tedeum)이 있을 것이며 「토스카」는 새로운 간파따를 노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소년들은 더욱 소리치며 노래를 부른다. 돌연 「스칼피아」가 그의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오자 웅성거림이 그친다. 『성당안에서 무슨 야단들이냐』고 「스칼피아」가 소리를 지르자 하나둘씩 다져 나가 버린다. 「스칼피아」남작은 성당직이에게 「쌍·안제로」감옥을 탈출한 정치범이 이 성당 안에 들어와 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범인과 관계가 있는 「아타반티」가의 특별 예배당을 뒤지다 「아타반티」부인의 문장(紋章)이 있는 부채를 발견한다.

그는 「마리아」의 초상화가 「아타반티」부인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자 깜짝 놀란다. 성당지기는 그 초상화는 「카바라ட்ச」가 그린 것이라고 말한다.

「토스카」의 연인으로서, 또 「나폴레옹」지피파로서 「카바라돗시」라는 이름을 「스칼피아」는 알고 있던 것이다. 누가 예배당에서 빈 음식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카바라돗시』는 예배당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안에서 식사하지는 않았을 텐데……』하고 우둔하게도 성당지기가 중얼거린다. 이 중얼거림을 주의깊게 듣고 있던 남작은 그 식사는 「안제룻디」가 먹은 것이며 「카바라돗시」는 「안제룻디」의 탈옥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을 내린다. 「마리오」가 암만해도 이상했던지 「토스카」가 성당으로 되돌아 온다.

「스칼피아」는 재빨리 숨으며 화가결에 서 있는 성당지기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한다. 「토스카」가 성당지기에게 「마리오」에 대해 몇 마디 묻자 성당지기는 우물쭈물 몇 마디 대답을 하고서는 나가버린다. 그러자 「스칼피아」가 조용히 「토스카」에게 다가와 입에 발린 말로 아침을 떨며 그를 칭찬한다. 계속해서 「스칼피아」는 성당을 밀회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성함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심히 쥐고 있던 부채를 들어 보이고는 어느 점잖은 숙녀가 밀회하다 급히 달아나면서 빠뜨리고 간 것임에 분명하다고 덧붙인다. 「토스카」는 그 부채가 「아타반티」부인의 것임을 알자 그의 연인 「마리오」가 정부와 밀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투심에 몸을 떠난다.

「토스카」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질투에 가득 찬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 하나 「스칼피아」가 넌지시 약을 올리자 그 화가 폭발되어 연적에게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날카로이 소리 지른다.

「스칼피아」는 사람을 녹일듯한 모양으로 「토스카」에 다가가며 거룩한 장소에서 화를 내셔야 되느냐고 한다. 모욕을 당한 분함을 참지 못하여 「토스카」는 울며 나가자 동정하는 체 「스칼피아」가 문까지 바래다 준다. 「스칼피아」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숨어 있던 「스포렛타」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스칼피아」는 그에게 명하여 「토스카」를 따라가서 그의 동정을 살피고 뒤에 「파르네스」궁전으로 와서 보고하라고 한다. 성당의 일반석에 혼자 서서 약빠른 「스칼피아」는 그의 계략이 성공되어 감을 만족해하는 듯 빙그레 웃으며 그의 잔인한 공상을 하고 있다.

추기경을 선두로 의식을 위한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우며 들어오자 사은기도가가 불려진다. 「스칼피아」는 엄숙하고도 장대한 반주에 맞추어 떼데움을 혼자 소리높여 부르며 「토스카」를 얻고 「카바라돗시」를 거꾸러뜨린다는 그 중의 승리의 기쁨에 벅글거리고 있다.

막이 내린다.

제2막

〈「파르네스」궁전「스칼피아」의 방〉

궁전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식탁에서 「스칼피아」가 혼자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카바라돗시」와 「안제룻디」가 같은 교수대에서 곧 처형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겨있다. 아래로부터 「나폴레옹」 군을 패주시킨 「멜라스」장군의 전승축하회의 무곡이 들린다. 「토스카」가 독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칼피아」는 「사로네」를 호출시켜 『「스칼피아」는 「토스카」를 기다리고 있노라』는 편지를 「토스카」에게 전하라고하며 내어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백 속에서 점잖은 사람보다 무리로서 차지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노래한다. 「스포렛타」가 들어와 보고한다.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스포렛타」는 그의 부하와 함께 「토스카」를 미행하여 그가 다달은 「카바라돗시」의 별장을 수색하였으나 「안제룻디」는 거기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스칼피아」가 화를 낸다. 그러나 「스포렛타」가 그 대신 거기 있는 괴상한 화가를 붙들어 왔다고 하자 「스칼피아」의 분노가 좀 수그러진다. 「스칼피아」는 「마리오」를 당장 끌고 오라고 명하고 유언집행인 「로베르티」와 재판관, 서기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한다.

「스칼피아」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문밖의 합창소리는 「토스카」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크게 들려온다. 「마리오」가 붙들려 들어온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마리오」는 화난 음성으로 소리친다.

은근히 위협을 가하면서 「스칼피아」는 「안제룻디」에 관한 것을 묻기 시작한다.

「스칼피아」가 「마리오」에게 「안제룻디」를 별장에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자 「마리오」는 이 모든 것을 단호히 부인한다. 웅장한 깃따파의 합창 가운데서도 「토스카」의 노래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반주하는 듯 들린다. 「마리오」의 반항적 태도에 화가치밀어 「스칼피아」가 창문을 닫아버리자 노래소리는 갑자기 들리지 않는다.

더욱 냉혹한 신문을 계속하나 「마리오」는 모른다고 한 마디로 끝내 반항으로 나온다. 「토스카」가 매우 흥분되어 뛰어 들어와 그의 애인 「마리오」의 품에 안긴다. 이때 「마리오」는 그의 별저에 관한 일체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스칼피아」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마리오」가 자백하도록 옆방으로 끌고 가라고 말한다.

「마리오」가 끌려나가고 「스포렛타」는 고문실 문 밖에서 혼자 서 있다.

「스칼피아」는 「토스카」를 향해 「마리오」의 별저에 관한 것을 묻기 시작한다. 「토스카」는 「마리오」외에 아무도 거기있지 않았다고 고집한다. 그러자 「스칼피아」는 「사로네」를 불러 그간의 경과를 묻는다.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대답하자 「스칼피아」는 조용히 「토스카」를 타이르며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애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토스카」가 문에 다가가자 「마리오」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무서운 신음소리가 들리자 「토스카」는 정신을 잃고 「안제룻디」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하고 만다. 못 견디게 아프고 분한 가운데서도 「마리오」는 배반했다고 「토스카」를 책하며 저주한다. 그때 「샤로네」가 달려들어와 「마렝고」에서의 대패전, 「멜라스」장군하의 왕당군의 총퇴각을 보고한다. 짝막하나 웅장한 3중창 「승리의 날은 가까웠다」가 시작, 통증도 잊은 듯 「마리오」가 기뻐 날뛰며 그 총리를 찬양한다. 「스칼피아」는 공공연한 반항자에게 증오를 퍼부으며 감금시키라고 명한다. 기를 쓰며 대드는 「토스카」를 밀쳐버리고 경비병이 「마리오」를 끌고 나간다. 「토스카」가 돈으로라도 애인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 값을 묻자 「스칼피아」는 영창 “Midicon venal”로써 일소에 부치고 만다. 그리고는 흥분하여 『그 값은 바로 「토스카」 자신이다』라고 한다. 「토스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선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칼피아」는 『얼마 후 「마리오」는 죽을 것』이라고 한다. 「토스카」는 이때 유명한 영창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에서 그의 번민을 나타낸다. 「토스카」는 『늘 그의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살았으며 아무도 해친 일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신적으로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말았다고 슬퍼한다. 「토스카」는 「스칼피아」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하나 「스칼피아」는 음란한 요구를 되풀이할 뿐 태도를 변치 않는다. 그때 갑자기 「스포렛타」가 뛰어 들어오며 「안제룻디」가 체포되자 음독자살하고 말았다고 보고한다.

「토스카」는 그와 「마리오」가 이 나라를 떠나도록 패스포드를 달라고 간청한다. 「스칼피아」가 패스포드를 쓰고 있을 때 「토스카」는 테이블에서 조심스레 식도를 집어들어 힘껏 「스칼피아」를 찌른다.

「토스카」는 죽은 「스칼피아」의 머리 왼쪽과 오른쪽에 촛불 하나씩을 갖다 놓고 벽에서 십자가를 떼어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급하고 맹렬한 「끄레센도」가 연주되며 막이 내린다.

제3막 〈「쌍 · 안제로」감옥의 옥상형장〉

테이블 위에 등불 하나가 켜있고 그 옆에 죄수등록부가 있다. 「카바라돗시」의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동트기 직전 무대에는 아무도 없다. 조용한 전주곡이 들린다. 멀리서 양떼를 모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고 슬픈 듯이 목동의 노래가 들린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등장, 병사들이

「카바라돗시」를 데리고 들어온다. 「마리오」가 마지막 고별의 편지를 쓰게 해 달라고 말한다. 우리는 「마리오」를 혼자 남겨두고 퇴장한다. 「마리오」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1막에서의 사랑의 주제가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된다. 「마리오」는 펜을 놓고 뼈에 사무치는 영창 「별은 빛나고……」로서 「토스카」와 함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그때 「토스카」가 들어오고 그는 「패스포드」를 「마리오」에게 보인다.

「스칼피아」가 서명한 것을 보고 「마리오」는 우울한 표정으로 「토스카」를 쳐다본다. 「토스카」는 그의 영창 『피 끓는 당신,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로써 「스칼피아」를 죽인 경과를 얘기한다. 「마리오」는 그의 불타는 영창 『오! 이 아름다운 손이여……』로써 「토스카」를 위로한다. 이때 「토스카」는 사살대가 형식상 공포를 쏘 테니 그때 죽은 척 넘어져야 한다고 「마리오」에게 설명한다. 망명한 후 새로운 희망에 찬 미래의 행복할 생활을 그리며, 높이 노래하는 마지막 2중창이 뼈에 스며드는 듯 무반주로 끝나자 「스포렛타」가 사살대와 함께 등장한다.

「카바라돗시」가 벽쪽으로 가 서게 된다. 웃으며 그는 눈가림을 못하게 한다. 「토스카」는 얼마쯤 떨어져 그와 마주선다. 사살대가 한 줄로 정렬하고 「스포렛타」가 그의 칼을 높이 쳐든다. 「토스카」는 손으로 그의 귀를 막는다. 「스포렛타」의 쳐든 칼이 아래로 내리자 일제히 사격한다. 「마리오」가 쓰러진다. 하사관이 마지막 한발을 쏘려고 앞으로 나아가자 「스포렛타」가 이를 제지시킨다. 시체를 덮고 병사들이 퇴장한다. 「토스카」는 조심스레 다가가 움직이지 말라고 「마리오」에게 말한다. 병사들이 다 가버린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마리오」를 부른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자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부른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덮어 둔 것을 벗기고서야 「마리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체에 엎드려 소리내어 운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스포렛타」와 「샤로네」가 황급히 들어와 「스칼피아」를 죽였다고 외친다.

난간에 선 「토스카」는 『「스칼피아」? 곧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고 외며 떨어져 죽는다. 거치른 곡이 연주되면서 막이 내린다.

<군중코너>

- 군인의 인격과 생활
- 군인과 종교
- 빛진자
- 불교와 호국사상



1. 민주주의 군대의 사명에 비추어

가. 민주군대의 사명

민주주의 군대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고 인간의 자유가 향유되는 자기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각개 민족이나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

군대란 곧 인류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 민주군대의 성격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 군대의 성격이 제국주의 군대나 기타 어떠한 전체주의 군대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 군대는 자기 제국의 판도를 확대하고 식민정착을 실현하는 도구였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군대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한 권력의 도구 이어서 그것이 모두 패권을 노리는 한 영웅이 나 한 민족이 나 한 계급이 나 어떠한 한 총파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군대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사명 이 부여 되고 있다. 물론 세계질서의 한 단위인 국가를 수호하며 세계질서를 수호한다. 여기에서 판명되는 민주주의 군대의 사명이란 곧 어떠한 특정 인물이나 권력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의 인권 은 신성시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의 자유는 존엄시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군대 란 이와 같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며 이것에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 무엇이 인간에게 봉사하나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인권과 그것의 움직임인 자유를 수호할 것인가. 창검 인가 총포인가? 그렇다.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어떠한 세력이 군세를 몰아 침입하여 올 때 민주주의 군대는 장검과 총포로써 과감히 이를 물리 쳐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명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사명 완수의 힘이 총검에 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인간의 인권과 자 유를 수호하는 힘은 민주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인 그 사람에 게 있 는 것이다. 즉 그 인격(人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 르나 군대의 조직도 위대한 화력(火力)도 우월한 전술(戰術)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자유는 수호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모두 인격의 지배하 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인격만이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군중장교는 군 교육의 근본이 되는 인격 지도(도의)교육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알고 수행 중 에 있는 것이다.

라.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말한다면 비기계적 관념의 명사 로서 생활하고 운영하는 본체를 이룸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생활하는 본체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그 생활과 능력이 훌륭한 사람을 위대 한 인격자라는 의미에서 위인이라고 하고, 그 생활이 나쁜 사람을 가리켜 인 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니 비겁자니 색마니 식충이니 하는 호 칭으로서 그 나쁜 생활의 습성을 지탄하며 그 인격을 추하게 여기는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 군대는 그 자신의 생활로써 인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이상 일시적 전투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주주의 군대로 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어떤 군인의 사생활이 영망이고 인격적으로 심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도덕 생활이 불순결한 경우 타 인의 순결성의 침해자가 될 것이며, 물질생활이 부정 결한 경우 재산의 침해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정조나 재산의 침해자가 되고 양심의 억압자가 되어서는 민주 주의 군대로서는 완전한 결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군대란 그 사명에 비추어서 모름지기 그 생활 자체가 타인의 도덕생활과 양심의 수호자가 되어 야 하며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군대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생활을 완전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2. 완전한 생활의 추구

가. 생활문제는 즉 인격문제

민주주의 군대의 성격에 비추어서 우선 그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 개개인의 생활이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향에서 논술하였다.

인격이라는 말에 대한 정당한 개념을 위하여 전향에서 인격은 비기계적 개념의 명사라고 말하였다. 인격의 내용을 알려고 할 때 먼저 이 말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다.

18세기 불란서에 있어서 세칭 계몽 철학자 중에 「라·메트리」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소위 「기계론」을 제창하여 유신론적 우주관에 대치하려고 과감히 논증(論證)을 편 자이다. 그의 소론에 의하면 우주는(인간까지 포함하여)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는 그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그 품성을 논할 때 「인격」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의 요리문답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 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느니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총론인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公義)시며, 또한 인자이시다. 사랑으로 용서도 하실 수 있고, 공의로 형벌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공식(公式) 대로만 돌아가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시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형(模倣)에 의하여 특수한 창조를 입은 인간은 피조물인 관계상 그 능력에 있어서 신적 능력 즉 신성(神性)이 없을 뿐 역시 인격성의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근본적 사실을 이해함으로써만 인격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격의 내용

인격에는 삼면이 있다. 인간성정(人間性情) 즉 지·정·의(知 情 意)는 이 삼면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다.

인격삼면이란 관계의 면과 내용면(內容面)과 표현면(表現面)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생활의 일치성

전향에서 생활의 구성면(構成面)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이 구성삼면의 내용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관계의 면을 보면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이 삼관계(三關係)에서 언제나 부딪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생활이 이 삼관계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 만일 일치 하지 못한다 말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가 있어서 자기에게 싫은 것을 이웃에게 씌운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태도와 이웃을 향하는 태도가 180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생활은 벌써 그 자체의 인격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마태 7; 12)하셨고,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원치 않는 바여든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與人)고 하셨다. 표현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표현면에 세 가지가 있다. 언·행·사(言 行 思)가 그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일치해야 한다. 생각하는 바와 말이 다르고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면 이는 완전히 분열된 인간이다. 인간이 부당한 소욕(所慾)을 가졌을 때 그 관계면에 일치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표현면에 일치성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자를 믿고 명령할 수도 없으며 명령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생활의 일치성 이란 인격자의 필연적인 생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있는 인간이므로 생활의 일치성을 강조하여야만 된다는 슬픔을 가지게 된다.

라. 생활의 표준

우선 그 생활이 그 관계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 일치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향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치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선의 생활이겠느냐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요는 그 내용이 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고 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생활의 표준준이 논의된다. 우리는 생활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향락이나가 인간의 보편적 욕망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표준일 수는 없으며 또한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활의 표준을 모든 인간들에게 최대의 유익을 끼친 살아계신 인격에다 그 표준을 두어야 한다.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그 이 유가 그의 이름이나 명성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다. 그의 생활 때문인 것이다. 즉 십자가로 표현된 생활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중으로는 순종, 횡으로는 사랑, 그것이 곧 자아에게 있어서는 정의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선(至善)한 내용이며, 예수께서는 이 내용으로써 표현면과 관계 면에서 일치하였다. 그 참된 생활의 세상 형태는 십자가였으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 인류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절대적 봉사자가 되었다. 실로 예수의 희생과 봉사로 채워진 생활이 우리 모든 군인의 생활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나타나신 완전한 인격자이시며 완전한 생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니와 그는 과연 하나님의 현현(顯顯)이었다. 예수의 품성, 예수의 생활은 곧 우리 모든 인간의 생활목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삼아야 할 것이다.

3. 싸운다는 것과 생활한다는 것의 거리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승패가 결부되어 있다.)

가. 인생전장(人生戰場)의 의미

“마귀의 꾀계(詭計)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6: 11)

이 말씀은 사도바울을 통하여 모든 믿는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인생전장(人生戰場)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된다고 하신다. 물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신앙을 저해하는 사탄과 대결하여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사탄과 대결하는 싸움은 어느 지리적 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활하는 생활내면 즉 심리적 전선에 있는 것이다. 인생전장의 의미는 곧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만 적용될 것인가! 결코 성서는 그렇게 협의적(狹義的)으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부단히 면학생활을 저해하는 좋지 못한 생활습성과 싸워 이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목표 있는 삶을 가지는 모든 인간은 부단히 자기의 생활을 격려하고 수습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목표있는 삶을 가지는 사람은 생활이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岐路)를 걸고 있는 것이며, 자기에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떠한 힘이 항상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목표도 없는 인간은 벌써 패한 인간이겠지만 목표 있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생활 자체가 전장(戰場)에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싸운다는 것과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거리간격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곧 싸움이요, 싸움이 곧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 군인의 경우

일반인의 생활도 목표 있는 삶일진대 그것이 곧 싸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군인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연 군인의 생활이야말로 그것이 곧 싸움이 아니면 안 된다. 결코 군인에게 있어서 싸움이란 적과 더불어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싸움이 아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생활면 즉 도덕생활면인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말하기를 사탄 또는 죄악과 싸우는 생활이라고 한다. 군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생활에 있어서 즉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여야 한다. 도덕생활에 있어서 전선에서 부딪치는 적보다 단연 우월하여야 할 것은 물론 그 생활 스스로가 국가나 민족의 실정을 이해하는 애국애족의 생활이어야 하며 맑고 깨끗한 생활이어야 한다. 이로써 싸운다는 것과 생활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분리된 문제가 아니요, 동 시점, 동 시각, 동 논리의 한 포인트에 놓인 문제임을 알게 된다.

진실로 개개 국군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전쟁의 승패는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생활이 즉 싸움이요, 싸움이 즉 생활이다. 군인의 부패한 생활은 전쟁에서 패전을 초래할 것이요, 군인의 경성(警醒)한 생활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4. 결론

생활이란 생활의 중량을 평가하는 도덕적인 면과 생활의 형태를 구성하는 습성(習性)의 면으로 성립되어 있다. 도덕적 면은 생활의 내용이요, 습성의 면은 생활의 형식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내용과 형식은 생활의 기본적 성격으로 서로 연합병진(聯合併進)하여 그 삶을 운영하고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활의 기본성격인 내용과 형식의 상호영향력을 보면 도덕적인 면이 주동성(主動性)을 띠고 있다. 즉 도덕적인 자로서 나쁜 습성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성격이 비도덕적인 자로서 좋은 습성을 가지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로써 그 사람의 도덕성 여하가 습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그 습성을 수정하는 데는 종교 이상으로 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사생활의 보다 더 놀라운 변혁을 위하여는 종교를 권고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며, 종교를 권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권하게 된다. 우리 인간의 생활은 종교적인 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방향과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1. 개념과 의미

인생은 모름지기 종교적 동물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더욱 종교적이 되란 법은 없으나 군인이란 그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악과 종교는 좀더 가까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다.

기독교는 구약시대부터 호전적(好戰的)인 종교다. 예수님은 희생적이었으

나 중세의 십자군과 같은 역사는 기독교와 전쟁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종교다. 불살생(不殺生)의 진리만 해도 그렇고 윤회 전생설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할 자기의 적이 그의 몇 대 전 할 아버지인지 자기 할머니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종교의 전쟁관에 관해선 각양각색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군인과 종교라는 제목을 상고하기 위하여 공통된 문제를 찾아내야 얘기가 되겠기에 다음과 같이 국한된 범위의 개념 설명을 해보고 싶다

군인은 다른 모든 것은 간과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자기만의 영리가 아닌 겨레와 나라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대전 훈련소 시절에 유수 담당자를 쓰라는 건강기록부를 받아본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유수 담당자를 쓸 때 이젠 집에서 내 시체나 찾아가게 되었으니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으시시해지던 일이 기억된다. 종교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종교란 인생 곧 생명에 관한 해결을 얻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인과 종교의 관계는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로 한자가 그 생명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상관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종교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관심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고자 한다. 비종교인은 생명의 평상적 요구(진급, 봉급, 출세, 행복)에 급급한 나머지 생명의 미래에 관한 문제와 그것을 위한 생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반면에 종교인은 생명의 평상성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존재의 가치와 그 궁극적 문제 즉 죽음 이후의 영생에 관한 문제에 그의 전 생애를 걸 때 Ultimate Concern(궁극적 관심)이란 말을 이용했다.

생명의 평상성과 미래성의 질서가 균형을 잃을 때 인생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삶은 타락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그들을 일러 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미래, 영생 운운하는 종교만을 위해 산다고 해서 그들을 거룩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타락한 종교란 두 가지로 인생의 일상성은 무시하고 내세와 미래성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종교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이상과 신념이 없이 일상성에의 욕망만을 추종하는 것이다.

얼마 전 입적하신 불교계의 지도자이실 뿐 아니라 한국 종교계의 지도자이시던 거성 청담스님은 “불교”를 산 속에서 거리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것이 미래와 영생만을 위해 일상성을 무시한 종교인의 반성을 촉구한 일침이다. 기독교인들도 요즘은 소위 세속화운동이라는 슬로건 밑에 도외시되었던 일상성에의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청담스님은 “설령 내가 금생의 성불을 이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건져 놓고 부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종교인의 세상을 위한 사명을 얘기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은 미래만을 위해서 현실을 지나치게 등한시했던 경향을 지양하는 종교운동의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종교인은 미래의 영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일상생활만을 위해서 미래와 영생을 외면한 채 이상이 없는 노력에 허둥대는 대중에게 종교적 일깨움을 주는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일례로 내가 언젠가 감명깊게 들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들은지 오래되어서 주인공의 이름과 그 유명 한 학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잊었으나 그 줄거리만이라도 소개하겠다.

한 법학도가 졸업을 앞두고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 변민하다 마침 어느 신부에게 찾아가 그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신부는 서슴치 않고 금고를 열어 그에게 등록금 될 만큼의 돈을 선뜻 내 주었다. 그 법학도는 너무 고마와 어쩔 줄 모르고 인사말 몇 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 신부는 “학생! 그 돈을 갖고 가서 무엇을 한다고 했지?” 그 학생은 영감받 건망증도 심하군” 생각하면서 “예 등록금을 납부할 작정입니다”고 했더니 그 신부는 “그리고 그 다음엔?”

“아,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

몰락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힘써서 신부님의 이 은공에 보답하며 국가공익에 기여하겠습니다.” “거참 좋은 생각이로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저 개인 생활로서 돈을 저축했다가 결혼도 하고 마차도 사서 유람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 참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엔?”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아마 늙겠고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을 것 같습니다.” “쫄쫄..... 거참 안 됐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절세. 그리고 그다음엔 영원이란 게 있네” 신부는 자기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일세,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야” 어리둥절해 있던 사이에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데 발자국을 옮겨놓을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일세, 영원일세”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자기 기숙사 방에 와서 잠을 이루려해도 계속 그 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왔다. 그는 등록금을 마련한 기쁨도 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튿날 그는 다시 신부를 찾아가 번민을 고백하고 신부의 충고에 힌트를 얻어 신학으로 학적을 옮겨 공부한 후 유명한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 역사적 일화 때문에 그가 다니던 학교 정문 아치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일세 영원일세”란 글이 쓰여져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군인은 생명의 가치를 자신이 알건 모르건 간에 그것을 대의를 위해 기여하는 자라고 한다면 종교는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2. 생명의 가치인식

종교가 생명의 가치와 의의를 탐구하는 노력이라고 전제 한다면 군인은 종교적일 때 비로소 그가 던져주어야 할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희생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하는 것도 상식의 문제이다.

자기가 주어야 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는 자라야만이 신님이 있는 군인으로서 그 민족과 인류의 번영에 기쁜 마음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제 하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토록 하고 있다.

신과 대면하는 성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여 그의 행동할 바를 깨닫게 된다. 불교는 정심하여 잃었던 자신의 마음을 찾아

그 스스로가 부처(神)가 되고 각(貴)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청담스님은 “아 나는 무엇일까? 나는 내가 완전히 상실된 자리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나의 주인임을 잊고 환경이나 이데올로기의 종이되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가사(假死)상태”라고 절규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임을 되찾아 선포하는 자유인의 신념과 긍지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

과연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서 살다가 죽는 것, 나는 것은 숙명이다. 본인의 자의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얽매어 허둥대다 빈손으로 죽는 것 뿐이다. 성서는 인생이 얘기하는 것 같이 바르다고 한다. “어머 앞집에 옥동자가 태어났대” “원 저런” “뒷집에 귀공녀가 태어났대” “원 저런” “무럭 무럭 잘도 자란대” “원 저런” “이젠 그들도 늙었대” “쫄쫄 원 저런” “죽었대” “원 저런”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죽어가는 것이다. 판도라 상자의 얘기같이 희망이란 느낌보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비참상을 깊이 느끼기 시작하면 빈민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각인지 체념인지 면역 상태에 빠져서 백치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예수님의 일화중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어떤 부자가 풍작을 기뻐하여 곡간을 더 짓고 가득 쌓아 놓은 후 내 영혼이 이젠 편안히 마시며 즐기라 하나, 신이 오 늘밤 그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의 모든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신 말이다.

여러분은 고민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 못 이루는 돼지를 본 일이 있는가? 주인이 맛있는 죽을 자주 갖다 준다. 돼지가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왜 내게 이렇게 친절할까” 오호라 내가 살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결국 나의 운명은 살이 잘 찌면 잘 찢수록 비참한 죽음을 하겠구나”하고는 입맛을 잃고 불면증에 걸려 아랫목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번민하는 돼지의 꼴을 상상해 봤는가?

생명에 관한 번민 없이 살려면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의 문제에 관한 번민을 모르면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회의를 가지는 동물이며 해결책을 얻으려고 탐구하는 존재다. 따라서 번민하며 불안해하며 무한한 고독의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불안의 심연 위에 떠있다. 그 불안의 근처에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의 얘기를 좀 더 소개하면 도대체 죽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어보고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Pascal은 “인생은 하나의 도박”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죽음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대신 죽을 수도 같이 죽을 수도 없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만의 죽음일 뿐 타인의 죽음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그것은 고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다가야 하는 확실한 것이다. 죽음에서만은 열외자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33년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의식하고 그가 사랑하던 제자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한 채 자기를 등지고 떠날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때가 벌써 되었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털일 곳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그의 고독한 심정을 피력하신 후 이어서 “그러나 그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神宗敎)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종명(終命)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역설하셨다. 생명의 문제는 썩어질 오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미래성,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는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생명에 관해서 종교적 해결을 얻은 자는 뜻을 위하여 신념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값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자는 생의 모든 영역에서 억울하고 무의미한 생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은 곧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3. 생명의 목적

생명은 죽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이 땅에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하여 부단히 던져지는 것이고 소모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값있게 소모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내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보다 더 치사스러운 삶은 없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깊이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만의 크나큰 희열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 성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교는 중생에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생명은 자기 자신의 내일을 위해 소모시킬 뿐 아니라 후대와 이웃을 위해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지상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 군인의 사명인 것이다. 우리는 겨레와 인류의 번영과 그 후예들을 위해서 엄숙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우리 민족은 내일을, 후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현명한 조상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오늘의 형세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피노자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만일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면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고 물었을 때 유대인으로서 조국을 상실한지 1,600여년이 가까워오는 망향의 스피노자, 결혼도 하지 않고 후에도 없이 고독한 그는 말하기를 “만일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민족의 후예를 위하여 나의 정원에 능금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라. 망국시절의 그의 조상들이 심은 그 능금나무의 열매를 오늘의 그 후예자들은 풍요하게 거두어 들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은 겨레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번영 그리고 그 후예들이 누릴 풍성한 유물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값있고 보람있게 내던질 수 있어야겠다. 예수의 3년간의 공적생활이 2,000년 역사의 인류 구원의 핵심이 된 것이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의 인생을 위한 교설들은 모두가 그들의 생명을 인류와 그 후예들을 위해 값있고 아름답게 버린 숭고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종교의 핵심이며 멋있는 군인의 자유로운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4. 마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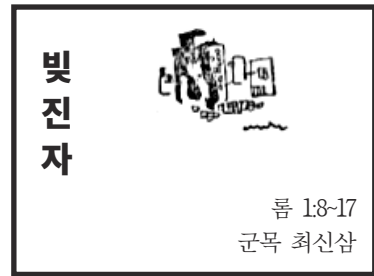
군인과 종교의 공동과제로 “생명”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개인의 현실문제뿐 아니라 죽음과 그 이후의 미래성의 해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겨레와 인류와 그 후예들의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 값있는 생명의 기여가 있어야겠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다.

기독교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불교는 자신의 성불과 중생 구원을 모토로 종교 생활의 의미를 천명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인은 자신의 역사적(탄생-현실-영원) 가치 인식과 그 해결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 그 생명을 조국과 세계의 영구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교의 소극적이고 추상적 진리가 군인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설혹 종교를 몰랐다 하더라도 종교적 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논의한 문제에 관심과 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신념 있는 군인, 열 있는 군인이 될 것이며 사소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하잘 것 없는 번민은 보다 높은 헌신의 질서에서 승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1910년의 한·일합방 때에 있었던 그 불행한 합바지 군인이나 6·25 때의 그 얼마나 군인이 되지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충일을 위해 깊은 사색과 기원을 게을리 말 뿐 만 아니라 후예를 위한 생명의 헌신의 결의를 또한 굳건히 해야 될 줄 믿는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자라”고 되어 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읊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빛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빛진자라는 말이다. 채무자와 채권,

의무감과 권리, 개인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대(大)가 큰 것이냐? 소(小)가 큰 것이냐? 대가 소를 위할 것인가, 소가 대를 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약육강식의 때가 오늘날인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것만을 절대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적다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인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행동의 달성에 있다고 말했다. 행동을 달성하기

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아테네를 두루 다니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플라톤의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보이는 세계는 현세다. 물질의 세계요 변화무쌍한 세계이다. 잘못된 세계라고 했다.

다른 하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내세를 가리킨다. 이데아의 세계요, 불변의 세계이다. 좋은 세계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참된 세계는 이데아, 상상의 세계라고 말했다. 이데아의 세계가 인간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위대한 세계에 서 있다. 정욕과 욕망이 인간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의 사상은 애매하다. 스토아에피쿠리안파는 인간 향락을 부르짖고 있다.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향락을 말한다. 예컨대 간음죄를 범했어도 마음에 거리낌(불안)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다. 무신론자들로서 물질 본위로 인간정신은 물질에서 왔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기름부은 한 사람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선-유죄-대상이 있다.

속죄의 필요가 있으며 속죄한 분이 계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자기의 가진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싸움을 주고 전쟁을 주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희생당했다. 강한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희생당한다. 대(大)가 소(小)를 위하여 희생될 때 모두가 살 수 있게 된다. 「헬렌켈러」를 위하여 고심하며 물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일주일동안 애를 썼던 「엔」선생은 마지막 소경이 되고 말았다. 의사가 병자를 위하여 희생당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희생당할 때 천국이 지상에 건설된다. 내가 바로 빛진자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채무자가 되자. 루이 14세는 벨사이유 궁전에서 밤낮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 제왕이 죽고 왕후가 죽고 폭동이 일어나 망하고 말았다. 루이 14세는 채권자로 빛진자로 권리를 부렸기 때문이다.

프레드릭왕은 말했다. “나는 독일 인민의 종이다”라고 그는 채무자로서 빛진자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에게 종(신복)이 되었다. 이때 독일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가장 무서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아름다운 역사의 최고봉이 되었다. 남을 돕고 희생할 때 인류역사는 아름답게 된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하심은 자기를 희생하는 빛진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어 예수님의 속죄자의 피를 본받아 계승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속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채무자의 의무감이 넘치는 빛진자가 될 때 우리 교회와 사회 국가는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불교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념구현을 우리 민족과 더불어 어떻게 했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여 타개책을 마련했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불교의 호국사상은 우리 조상들의 얼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은 이를 가볍게 스쳐 버리는 예가 많은데 이 글이 조금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불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하면 우리 나라의 운명과 함께 고탁을 같이했고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불교는 힘차게 서슴없이 구국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명산을 보아도 우리 조상의 얼이 서려 있고 우리 민족의 철학과 사상이 담긴 문화재는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방에 곳곳에 세워진 사찰이며 탑들은 오늘의 문화재를 남기고 싶어서는 결코 아니요, 큰 국운과 직결되는 밑거름이 담긴 조상들의 숨결이 식지 않고 맥박이 멈추지 않음을 후손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장을 해 국운을 불교에 빌었고 또 전 국민을 혼란에서 안정으로 이끌고 총화정신으로 국민을 묶어 국력을 키워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곤 했다는 것은 호국과 직결된 것이다. 불교는 우리나라의 운명과 함께 천 육백년을 살았다는 결론이다.

위기에 국가를 건진 유물들엔 조상의 얼이 담겼고 오늘날 후손들은 조상의 얼을 높이 취하려는 뜻에서 국보로 정하고

문화재로 관리함은 당위적인 것이다.

신라의 화랑정신의 비조인 신라승원 광법사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인 총화로 젊은이들의 싱싱한 마음을 묶었고 묶어진 마음은 신라를 통일하는 위업을 남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고려 때에는 몽고란을 만나 국민들이 혼란하여 국가가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되었을 때 고려 고종은 팔만대장경을 조각하고 국민들을 불전에 기원하게 하여 혼란에서 안정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아닌가. 근세엔 임진왜란 때의 사명대사의 승군 활약이 너무나 잘 살려진 사실에기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3.1운동의 주역으로서 활약을 했던 한 용운선생같은 분은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호국자들이다. 그럼 불교에서 호국하는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부처님의 이념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부처님은 하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후일 왕위에 오를 태자였다. 하지만 생각이 무척이나 깊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던 태자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그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짧고 좁은 생각의 눈을 넓혀 세계를 보라. 넓게 그리고 깊게 보고 싶었던 것이다.

석가는 모진 고행을 6년 동안 고뇌와 싸워 이기고 모진 고행을 감수, 세상의 이법(理法)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의미를 되찾았다. 좁고 막힌 자기 마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원용무애한 마음에서 자비사상이 잉태되었던 것이다.

자비사상의 소산은 총화사상인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았을 뻔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한다는 이타사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의 화랑 5계에서 「가려서 살생하라」는 생명이 있는자의 범주를 규정한다.

불타의 자비 사상은 활동하는 생명력이다. 자비는 상대를 떠난 전체를 이해하고 포용한다.

하나와 생명이 희생되고 백을 살릴 수단 있다면 희생하는 것이 자비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자비사상을 구현하고자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성을 모르고 인도를 짓밟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생명의 가치성은 지휘의 고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빈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가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생각이 이웃에까지 미치고 이웃이 사회에까지 미쳐야 한다.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물불을 가릴 여유가 없다.

민족의 생명 앞에 불이 떨어졌을 때 가차없는 지혜의 칼을 서슴없이 뽑았던 것들이 생명의 가치성을 제일주의로 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국이 아니겠는가.



(단편소설) 열외자(列外者)

최인호

『자 그럼 가보기로 하세』

장상사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묵직한 45구경 권총을 잠바속으로 비껴차면서 7발짜리 탄창을 끼었다. 비대한 몸에 권총을 감추려고 잠바작크를 올려 세운 후라 한결 그는 비만해 보였다.

『수송대에 연락해 두었지. 곧 1/4톤 차가 올걸세』

창밖으로 잿빛 겨울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가죽 파이프 담배 찜지같이 눅눅히 부대 안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한 차례 눈이 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은 찌푸려 있었고 곧 눈이 내릴 모양이었다.

디젤난로는 새 울음같은 소리를 내가며 잘 타고 있었다. 때문에 조그마한 조사계 안은 더웁고 그리고 갑갑했다.



『선임하사님 차가 왔는데요』

헌병 애 하나가 연료통에 기름을 붓다가 소리를 질렀다.

『오우케이. 알겠어』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 눈, 눈 이놈의 겨울엔 왜 이리 눈만 내리는 것일까. 파일럿 숙소 앞으로 창을 감은 탓일까. 아주 슬로우모션으로 1/4톤 차 하나가 털털거리며 닦아왔다.

『자 출발하세 이병장』

차 안은 히타를 틀었기 때문인지 따뜻했다. 우리는 묵묵히, 차가 체크 포인트를 지나 공항 활주로 끝을 우회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헤드라이트 앞으로 여름 하루살이 벌레처럼 비상하는 눈발을 쳐다보고 있었다. 활주로 위로는 또다시 제설작업이 시작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설 기구를 쥐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기름은 충분히 부어 두었나?』

『아. 예』

운전수는 하품을 했다.

『오늘 밤은...』

장상사는 팔짱을 낀채 나와 그리고 동시에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바쁠 거야』

『그렇다면...』

운전병은 차창으로 덤벼드는 눈발을 미친듯이 훑아대는 윈도우 크리이너가 그린 반원의 틈 저 너머의 어둠을 쳐다보며 맥 빠진 소리를 내었다.

『왜 헌병 두어명 무장시켜서 동반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이 병장에게 물어보게』

『그 새긴 전과 3범이죠. 아닌가요?』

『그래요』

나는 대답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더구나 그 새긴 성질이 흉폭하다 던데요. 전번에 그 누군가. 아. 고 광군 상병이 체포하러 나왔을 때도 날째게 도망친 놈이라던데요』

『.....』
차는 공항을 지나 김포가도를 접어들기 시작했다. 부대로 들어가는 귀대자 하나가 차를 기다리고 있다. 번쩍 손을 들어 경례를 했다. 장 상사는 묵묵히 경례를 받았다.

『제 생각엔 선임하사님, 그 새끼 오늘 밤엔 굉장히 발악할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글쎸 그런 건 이 병장에게 물어보라니까. 이 병장 자네 두 그렇게 생각하나?』

장 상사는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글쎸요』

나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웃었다.

『최선이라뇨?』

운전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형적인 촌놈 목소리를 냈다.

『저와 영우하군 동기생이니깐요. 어느 정도 우리는 친했었구……』

차 옆 말라빠진 황량한 논밭 위로 하얗게 눈이 덮이고 어둠을 감아내듯이 비듬같은 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장 상사는 나즈막하게 단정지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붙잡히길 바라고 있는거야.』

『겁 냅니까?』

운전병이 의아스럽다는듯 제 2 한강교 밑 이중도로를 따라 올라가며 물었다.

『글쎸. 그건 나두 모르겠어. 왜 그런 건지. 그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엔 언제든 아슬아슬한 길고도 긴 숨바꼭질이 끝나버린 안도감과 기쁨에 충만한 느낌을 받았을 뿐이니까… 아. 아. 이 병장. 인생이란 마 그런 게 아닐까? 무슨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말하자면 천편일률적이란 말이 아닙니까?』

『천편일률적? 헛하하. 맞았어. 이십여년 해온 군대생활 모두 천편일률이다. 천편일률.』

나는 새로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호철은 그의 작품에서 천편일률적인 군대생활 얘기를 젊은 장군이 조그마한 시골 읍내 교통순경에게 경례받는 장면묘사로 그리고 있다. 차는 제 2 한강교를 달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다리 양 옆에서 얼어붙은 납색강물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탈영병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다. 김 영 후. 그 이름은 나와 동기생이자 같은 부대 인사처에서 근무하던 사병이었는데 한달 전 한 밤중 아무런 말도 없이 작업복 입은채로 사라져 버린 녀석이었다. 그것은 그의 네 번째의 탈영으로 이제는 그저 탈영같은 것에 만성이 되어 버린 녀석인가보다라고 인사처장은 아침에 보고를 듣자 껄껄 웃었고 그날도 우리는 제설작업에 열중하다보니 까마득히 녀석의 탈영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모두 기억할 수 있다. 녀석이 핵대끈도 풀고, PSP.판으로 칸막이 쳐진 몽키 하우스 안에서 『9』란 남버를 달고 『인호야, 이제 군대생활에 익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면회갔던 내게 어설픈게 웃으며 이죽이죽이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그는 또다시 버릇처럼 탈영하고 만 것이었다. 나는 병장이었고 그는 아직 이등병이었다. 내가 무리에 끼어 큰 소리를



치는 잔소리꾼이요, 가끔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공과 사를 가려라라는 소리를 한 다음 엄연히 공(公)으로 위장시킨 사적 감정을 그들에게 분풀이도 하는 혼해 빠진 병장이었다면 그는 언제나 열외자였다.

가령 우리가 사역에 나가려 집합하였을 때 주변하사는 언제나 김 영후에게 약간의 조소를 입에 띠우며, 『열외』라고 명령을 했고 우리들이 모두 삼과 빗자루를 들고 땅을 파러 알러트 톱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기어가는 후미에서 영후는 큰 몸에 멍하니 이빨 빠진 유아같은 표정을 하고 우리들의 대오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천편일률적인 군 생활에서 열외하는 기분의 묘미를 알고 있다. 우리가 아주 하기 힘든 제설작업에서 모두 싫증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기질을 발휘하여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열외하였을 때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만큼 나는 내무반에서 디젤난로를 피우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전번 외출 때 만난 여인의 넉적다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기쁨, 열외의 기쁨도 알고 있다. 아니면 연합사열 때 주변임을 핑계대고 내무반에서 격납고 안 광장에서 울려나오는 군악대소리, 세워 총구령 소리, 이런 것을 들으며 밀린 빨래를 하고 있을 때의 기쁨, 열외의 기쁨.

점호판에 근무로 집어넣고 BX에서 술을 마시며 새로 들은 닭고기 통조림을 뜯으며, 빈 소리를 지껄이다 소등시간이 한참 지나 내무반에 들어왔을 때 그날 점호시간에 우연히도 화가 난 주변사관에 의해 전원 제일포복으로 연병장을 기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덜미로 기어올라오는 열외의 기쁨.

사병처럼 직선적인 유치하고도 낙천적인 기쁨.

나는 그러한 열외의 기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열외는 나와는 다른 열외였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거대하고 어쩔 수 없는, 삶기 전에는 제 색을 낼 수 없는 티셔츠처럼 때가 밴 군대 자체에서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나 같은 요령꾼이요, 시이(요령꾼)병장의 일시적인 열외가 아니라 언제나 그는 열외 그 자체였다.

언젠가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 집 앞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늦은 석양을 지고 앉자 직업야구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조그마한 아들을 데리고 언제나 해질 무렵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법을 씹기도 하고, 콜라도 마셔가며 거친 야구선수들이 잘못 강타한 다올 볼을 스탠드에서 받아 운동장 안 포수에게 던져주는 그 사나이가 왕년에 유명한 야구선수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놀라고 말았다. 그는 말하자면 은퇴한 야구선수였던 것이다. 그는 투수였었는데 시즌 업을 앞두고 왼쪽 다리와 왼팔에 이상한 통증을 느껴 진단을 해본 결과 신경통임을 알자 깨끗이 은퇴해 버린 왕년의 명선수로 그때 늘 야구의 룰(Rule)조차 모르는 자기 아들에게

『저 투수의 발은 느려』라든가

『저릴 맨 저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전문적인 자기견해를 해석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종점에서 작은 완구점을 내고 있었는데 그의 기쁨은 오리나 나팔을 팔아 돈을 버는 기쁨보다는 차라리 신경질적으로 생긴 여편네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해질 무렵 간단히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들의 고함소리나 볼이 배트에 부딪쳤을 때의 산뜻하고도 경쾌한 긴박감 같은 것을 들을 때가 더욱 행복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해가 지고 그 선수들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앉아서 어린아들에게 『저 타자의 몸은 엉망이군』 따위의 얘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그때 그의 눈빛엔 이상하게 자신이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희열같은 것이 번득이고 자신이 지금 긴 3루타를 때리고 3루를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번득여서 그가 해진 교외의 길을 아들의 손을 잡고 쫓락이며, 긴 그림자를 이끌고 걸어올 때 어딘지 모르게 탈진해 버린 사람처럼 쓸쓸해 보이고 소외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내가 김 영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기분은 바로 이 기분과 흡사한 것이었다. 아들에게 손을 잡히우고, 자기 완구점을 향해 돌아가는 은퇴한 야구선수의 분위기— 그때 그 아들은 하늘 높이 나팔을 불었었다.— 와 흡사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김 영후, 나의 동기인 이병 김 영후는 근본적인 열외자였던 것이다. 우리 인간들 마음 속 악랄한 잠재의식 속에 버려진 열외자였던 것이다.

차는 신촌 로터리에서 연대 입구쪽으로 급커브를 틀었다. 취객 한 사람이 얼핏 차도로 뛰어들자 운전병은 고개를 내밀고 『조심해. 개 새끼야』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몇장이 안내해』

장 상사는 은단을 몇알 깨서 물었다. 우리는 모래내쪽으로 완만한 커브를 틀어 어둠 속에서 칙칙히 잠들어가는 대학의 수풀과 웬 머물러 한 여인이 헤드라이트 속에서 눈을 맞으며, 마치우체통처럼 서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여인이 술집 작부임을 단정했다.

운전병은 갑자기 차를 세웠다.

『아씨. 어디까지 갑니까?』

운전병은 꺾을 뻔하며 불한당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 여인의 얼굴에서 얼핏 한 줄기의 눈물을 보았다.

『미친년이군』

운전병은 갑자기 악세레터를 밟았다.

『어찌된 판인지 모두 미친년놈 투성입니다. 선임하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나는 부탁했고 차는 출렁이며 섰다.

『어떡하시겠어요. 여기에 그냥 앉아계시겠어요?』

『아니 같이 들어가기로 하지』

장 상사는 가죽장갑을 끼며 뒤를 따랐다.

『저 사실은……』

나는 주저하며 말했다.

『저 혼자 우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장 상사는 다시 되돌아서서 아주 차 방향을 바꾸려고 쿨링백을 하고 있는 지프차에 올랐다. 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좀 이어 신발끄르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프레스」라고 써 붙인 틈새로 이쪽을 쳐다보았다.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을 꺼예요. 월부장사라면 주인이 계실 때 와주세요』

『아닙니다』 나는 웃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어색해져서 내가 군악임을 강조했다. 군인이다. 이 봐. 나는 군인이란 말이다. 친구여. 나는 군인이란 말이다. 유난스레 술값 떼먹고 도망갈 우려가 많아 감시의 눈을 게을리 않는 술집 아줌마야 나는 군인이다. 군인.

『그럼 뭇 댐에 오신거예요』

『김 영후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 영후는 나의 친구입니다.』

『기다리세요』

『프레스 구멍이 닫혔다. 나는 추워서 그리고 또 추워서 동코오트 깃을 세우고 군인답지 않게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마 후 다시 인기척이 났다.

『누구시라구요?』

『나는 군인, 군인입니다.』

짹짹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



『당신은 오빠를 잡으러 오신거지요?』

여인은 나를 올려다 보았다.

『허지만 난 맥을 증오하진 않아요』

『.....』

『언제든 올 것이 온 거니까요』

나는 그 여인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변명해 주려 했다. 허나 나는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사이의 오해와 변명같은 행위는 얼마나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한 처사란 말인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여인은 예쁘고 작은 입술을 재빨리 움직였다.

『오빠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럼』

『나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다.』

나는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럼 돌아가주세요. 오빠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요』

여인은 뒤로 책 돌아섰다. 그러다가 반사적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이내 난폭하게 내 동 코오트의 앞자락을 잡아 쥐었다.

『오빠는 자살할 꺼예요. 아.아. 오빠는 자살할 꺼예요』

여인은 울기 시작했다.

『왜 오빠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오빠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빠가 무슨 범죄자란 말이에요? 오빠가 탈영을 했다고 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지 않아요?』

『군기유해입니다.』

『군기유해라구요?』

『딴 사병의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군대생활을 하면서 탈영이라는 유혹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천편일률적인 군 생활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아버님은 이보다 더한 일본군 생활을 했고 우리들의 형은 이보다도 더욱 쓰라린 군 생활을 했고, 두분 다 나는 투구벌레처럼 몸을 세웠다.

『돌아가셨습니까. 그 댕가로 당신과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것처럼 어려운 말은 몰라요』

여인은 눈물 번진 얼굴을 제쳐 들었다.

『당신은 감히 내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혼해빠진 군인 중에 한 명인 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혼해빠진 군인임을 알면서 제게 설교를 하려 드는군요』

나는 한참이나 그 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은 잘 생긴 모습이고 있었다. 자그마하고 섬세해 보였고 신경질적인 모습에 지성적인 콧날과 오만한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텔리케이트한 여인 특유의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여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오빠가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

『오빠의 친구입니다. 군인을 떠나서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같이 훈련도 받았고 같이 질병생활도 했었습니다. 나는 영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녀석은 가끔 자기의 사랑스런 동생에 대해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자랑하고, 당신이 보낸 편지를 제게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김 영미 이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

『당신이 언젠가 영후가 두 번째 탈영을 했을 때 보낸 편지에』



추신으로 『강한 사람은 인생을 사랑한다』라는 하이네의 말도 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미씨 영후의 간 곳을 알려 주십시오. 정말 탈영이라는 것쯤은 인생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욕을 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김 영후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큰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같이』

나는 여인에게 다짐하듯 말을 했다.

『짧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겁한 방관자가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용감한 밀고자가 되는 편이 더욱 현명할 것입니다. 난 영후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럴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그를 자수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가 탈영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손치더라도 그를 자수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잡힌 것과 자수한 것의 별 차이로 또한 굉장한 것이니깐요...』



우리는 집 앞뜰에 서 있었다. 정원에 테라스 위로 눈이 내리고 어린이용 그네 위로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는 신과 세리프를 엮는 신인 연극배우처럼 딱딱하고 어색한 몸짓으로 서있었다. 눈과 함께 침묵이 내려 온 집안은 온 세상은 낮으막한 정적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여인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였다. 한순간의 격한 감정 이 지나간 뒤의 여인이 흔히 그러하듯 그녀는 담담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이윽고 여인의 얼굴이 오후의 별마당처럼 환해지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잠깐 응접실에서 기다려 주실테어요?』

『아닙니다. 전 여기에 있겠습니다.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 집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교회에 가셨거든요』

『괜찮습니다. 전 원래 군화끈을 풀었다 매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니까요. 요앞 행길에 군용지프차가 한대 서 있을 겁니다. 전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빨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약간의 여유를 부려 익살스럽게 말을 했다. 그리고 되돌아 골목길을 나서서 행길로 나왔다. 행길에 지프차는 서 있었다. 운전수는 핸들에 몸을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고, 장상사는

가까운 대문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뛰어 나왔다.

『어찌됐나?』

『좀 있으면 김 영후의 여동생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참았던 백조를 한 개비 뽑아 물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기로 하죠』

『오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여인의 스카프를 구른 얼굴엔 거리에서 비친 네온사인인 현란하게 명멸하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오빠는 오늘 오전에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좀 가지고 나와 달라는 것이예요』

『몇십니까?』

『8시예요』 시계는 6시 10분을 가리키고 죽어 있었다.

『선임하사님 지금 몇십니까?』

『7시 15분이군』

나는 시계를 맞추었다. 망할놈의 시계로군.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요?』

『시공관 앞 J 다방이에요』

『그 동안 영후가 뭘했는지 아나요?』

『모르겠어요』

여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저두 오빠가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최후로 만난 게 언제죠?』
 『한 일주일쯤 되었어요. 그때 오빠는』
 여인은 갑자기 시선을 떨어뜨렸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울기도 하
 고 웃기도 하고, 인호씨. 오빠는 기독교 집안의 외아들이
 예요. 그를 좀 돌봐 주세요. 무엇 때문에 오빠는 무엇을 괴
 로와하고 있는지 동생인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군용지프차 뒷 좌석에서 여인의 작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손을 스쳤다.

『군대란 곳이: 그렇게 괴로운 곳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강하게 부정을 했다.

『톨스토이는 군 생활을 꼭 겪어야 할 인생의 3대 요건이
 라고 말했지요. 재미있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빠만 왜, 오빠만 유독 낙오하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가 약한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회의를 품어서
 는 안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도에 덩벼들면 파도는 우리
 를 떠밀어 모래사장으로 내 던져버릴 것입니다. 거대한 것
 에 조그마한 영후가 덩벼들었다 해도 거대한 것은 변화하
 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어느새 차는 화신 앞을 돌아 명동쪽으로 회전하고 있었
 다. 눈은 그치고 거리의 쇼윈도우에서 비쳐나온 차가운 형
 광등 불빛은 눈이 쌓여 반들거리는 포도 위에서 얼룩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결 허리를 나이프처럼 굽히고 종종걸
 음을 하고 있었다.

영후의 첫 번째 탈영은 그가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로 막
 진급

하려던 순간이었다. 대대에서 소위 악명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덩벼들고, 그리고 술하게 매를 맞고, 그날
 저녁 탈영해 버린 것이었다니 이유는 아주 하찮은 것에서
 기인되는 것이었다. 가끔 실시하는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악명 랭킹 제 일위서 머무르는, 군대 들어오기 전에 전화
 기술자 노릇을 하던 사나이었는데 그 사나이의 취미는 즐
 병을 괴롭히고,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직위를
 얻었을 때 흔히 그러하듯 앞에 모두를 집합시켜서 입장 연
 설하기를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누구든 즐병들은 한번쯤은
 녀석이 제대한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면 마카로니 스타
 일의 무법자처럼 녀석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상상
 해 보았었고,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녀석의 비
 인간적인 요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어느날 그 녀석은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그녀석
 특유의 작란을 벌이기 시작했다. 즉 누구를 부르면, 그는
 대답대신 『삐약삐약』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었
 다. 일테면 『김 영후』라고 호명하면 영후는 대답대신 『삐
 약삐약』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병아
 리입니다. 나는 즐병입니다. 나는 「병아리때 뽕뽕뽕 뽕나
 들이 갑니다」의 뽕뽕아리 입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약간 굴욕적이고, 비애를 느끼는 작란이었다. 우리는 그때
 모두 충기를 닦고, 윤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녀석
 은 그 조용한 사역시간을 틈타서 녀석 특유의 작란을 서서
 히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자우리 병아리 놀음하자. 알겠어. 병아리 놀음말이야』

『좋습니다.』

즐병 중의 한 명이 비위를 맞추었다.

『박 수일』

『삐약삐약』

『왜 느그 누나한테서 답장 안 오노?』

『잘 모르겠는데요. 삐약삐약』

『이 인수』

『삐약삐약』



나는 웃었다. 헛헛히 웃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답게 행동하세요. 내 흥분하기 잘하는 껍질을 걱정한 경이는 군대가던 날 서울역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말하곤 울었다. 간다 면 영원히 가는게냐. 내가 뭐 학도병이나 끌러가는 줄 아냐. 울지마라. 나의 여편네여.

『년 자식 되게 건방져』

『주의하겠습니다. 삐약삐약』

『권 진원』

『삐약삐약』

『년 멧대가리 없이 키만 큰데 다음 외출 중에 같이 나갈 수 없나? 느그집 가정방문이나 해야겠어』

『좋습니다. 삐약삐약』

『그리구 전번에 너한테 200원 쯤 것 다음주로 연기하자. 이자부쳐 줄테니.』

『알겠습니다. 삐약삐약』

야 이자식이 200원쯤 잃어버린 셈으로 벌써 적정하고 있었다.

『김 영후』

『.....예?』

영후는 칫솔로 놀통 구석을 닦고 있다. 갑자기 자리를 피하려는지 주전자를 들고 마약 세면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김 영후』

『.....예?』

『일등병 김·영·후』

..... 예 ?』

『이 개 개 개새끼...』

누웠던 녀석의 몸이 순간적으로 김. 영후의 몸을 향하여 비호처럼 날았고, 이내 영후의 몸은 침대 위에 엎어졌다.



『김 영후』

『.....예』

『김 영후』

『예 일병 김·영·후 !』

『이 새끼жат !』

나는 멍하니 그가 어둡컴컴한 내무반 마루바닥에 뒹굴고 그리고 그 모자란 녀석이 그를 때리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변사관이 내무반 순서를 큰다는 연락이 있자 매질은 그치고 나와 영후는 세면장에서 세수를 했다. 그의 눈가엔 퍼렇게 멍이 들어있었고, 코피는 좀체로 멎질 않았다.

『영후야. 네가 어리석은 게다』

나는 그의 목 뒤를 가볍게 때리며 부드럽게 말을 했다.

『년 마땅히 삐약삐약이라는 대답을 해야 했다』

『난 그럴 수 없었어』

『년 지금껏 잘 해왔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로야. 우리 모두 잘 해왔지 않으냐?』

『그런데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왜 ?』

『최소한의 프라이드였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어』

『영후야』

나는 그의 코를 숨으로 틀어막으며 웃었다.

『네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지 마라. 년 마땅히 엑스트라일 뿐이니까』

『아니야』

영후는 강하게 부정을 했다.

『난 스물네살 살아왔지만 지금껏 비굴해 본 적이 없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비굴해선 안 되지. 그건 비굴한 생각이야』

『건 관점의 차이다. 이건 비굴이 아니야. 자기의 내면까지 비굴하지는 않았잖으냐?』



『네가 뭐래 두 난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다.』

그는 어리석은 녀석이었다. 그날 저녁 다시 이 해괴망칙한 문답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천주교리문답처럼 분명한 것이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천주교리문답은 「너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느냐」라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주제로 하고 있었고 이 문답은 박수가 짹짹 맞아 들어가는 응원연습 때처럼 역설적인 장단이 조화되는 문답이었다, 소동시간이 지난 어두운 내무반 안에서 은밀한 소꿉장난, 악의에 찬 소꿉장난이 다시 시작되었다.

『김 영후』

『.....예』

『대답해라. 넌 병아리다. 김 영후』

『.....예』

끈질기긴 매 일반이었다. 영후의 입에선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허나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우적 거리는 것은 오히려 고참 병장쪽이었다는 것이다. 『대답해 줘라 이 바보 쫄병 새끼야 뼈약뼈약이라고 한 번만 대답해 주면 된다』라는 듯한 애원의 눈빛이 그의 눈빛에 번득이기 시작했고 초조해진 것은 고참병장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때 나는 누군가 나를 깨우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불침번이 아니라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군대에서 가장 고마운 잠까지 에누리 당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져서 나는 화를 내며 눈을 떴다. 영후였다.

『인수야. 난 결심했다.』

『.....』

나는 아직 잠이 덜 깨어 있었다.

『월주로 타고 도망하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날 아침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탈영이었다.



내가 그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의 신념이 굳은 것 때문이라는 흔히 소설가들이 합리화시키는 미문화(美文化)는 그런 생각 때문은 아니었고 사실 나는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명동 입구에서 헤어졌다. 장상사는 영후와 그의 누이동생이 만나기로 한 다방 길 건너편 다른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그것은 장상사의 최대의 호의였다. 『난 이 병장의 소위 인간적인 설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일까 시험해 보기로 했으니까...』 하고 장상사는 술기 오른 얼굴로 씩씩 웃었다.

『허기야 오늘 못잡으면 다음에라도 체포할 수 있으니까... 만약 녀석이 반항하는 기세라면 내게 연락해 주게. 요앞 파출소에서 파견 나와 있는 헌병애들을 데리고 갈테니까, 그리고...』

장상사는 새끼 손가락을 들었다,

『잘해봐. 평장한 미인인데...』

우리는 헤어졌다. 밤 명동엔 잘 생긴 여인과 돈 많은 자식들 투성이었다. 여인들은 혼자선 쓰러지는 무골(無骨)의 액체들인 양 남자들의 어깨에 자신의 몸을 잔뜩 지탱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꺾꺾 웃으며 여인을 유혹하고 있었다. 여인들은 유혹을 피하는 것처럼 몸을 도사리다가 기회를 봐서 몸을 허락할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저 주간지가 나도는 명동에, 무교동에 자기 아버지를 계장에서 부장으로 승격시키는 거짓말하는 나의 동생들과 윤 정희가 입고 나온 스텍스를 맞춰입고, 자기를 영화의 주연쯤으로 착각하고 특징을 잃어가는 나의 여동생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한국의 명동을 히피들이 날뛰는 뉴욕쯤으로 오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슨 몸쓸 전염병에 걸려 격리되어야 하는 전염병 환자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그들의 짧은 바지와 그들의 가발 쓴 머리에게 어떻게 조국을 얘기해 줄 것인가.

우리는 다방으로 들어섰다. 다방은 시장바닥처럼 붐비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전 윗층에 있겠습니다. 아직』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5분이 남았군요』

나는 여인이 좌석을 잡는 것을 보고 윗층으로 올라섰다. 윗층에 빈 좌석이 없었다. 별수 없이 나는 남의 자리에 양해를 얻어 한 자리를 빌렸고, 내 자리 옆엔 커다란 식물이 놓여있었다. 다행히 내가 앉은 자리는 아래층 특히 그 여인이 앉아있는 자리가 환히 내려다보이고 있었다. 나는 만족했다.

나는 경아를 사랑하고 있다. 나와 그녀는 동갑내기 스물다섯이었다. 그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스물아홉에야 비로소 제대와 졸업을 둘 다 필할 것이다. 그녀가 스물아홉까지 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난한 나와 그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낭만과 사랑만으로 무턱대고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게 아닌가? 그녀는 이미 결혼했어야 할 나이인 것이다. 한달 몇 백원짜리 봉급쟁이인 나는 그녀를 정말 나의 이기주의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그녀를 언젠가 그녀 부모의 강권으로 선을 보았다는 32살 먹은 S무역 회사의 과장에게 보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 알고 있다. 나는 내게 투지와 불붙는 욕망이 있음을 안다. 나는 그녀를 지금 당장은 거드름 피울 그 자식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포부가 있다. 나보다 더 그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5년 동안 사랑해온 나와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나침반 바늘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김 신조 덕분에 6개월 군 복무 연한이 늘었다. 킬킬거리며 124군 부대나 육하면 되었을 시간에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묶어 나의 인감도장을 내가 자필로 쓴 맹세서에 찍기 위해서, 그녀의 순정을 빼앗았고 그녀는 내게 그녀의 슬픔과 기쁨, 부드러운, 속삭임, 교태, 어쩔 수 없는 체념, 여인 특유의 눈물이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야 난 홀가분하게 되었다. 이제 난 그녀를 기다리게 할 자격을 얻은 것이다. 스물아홉까지만 기다려 줄 안내심을 그녀 가장 깊숙하고 부끄러운 치부에 심어 준 것이다. 그것은 잡초의 뿌리처럼 그녀를 강인하게 하고 그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영후가 나타난 것은 여덟시를 조금 지나서였다. 원 사내가 그 혼잡한 다방 입구를 들어섰고 그는 경중이나 큰 키를 휘청거리면서 이내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정말 나는 그 사내가 영후라는 것을 알아차리기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정도였다. 한달동안에 그토록 초췌해 질 수 있을까?

둘은 고개를 맞대고 무어라고 얘기를 나누었고, 여인은 그녀의 지갑에서 돈처럼 보이는 무엇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자 곧 일어서려는 눈치였다. 나는 일어서서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랫만이군요』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때리며 웃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병자의 그것처럼 빛나고 그의 야원 손이 얼핏 내 손을 내리 막았다.

『누구신지요?』

『나야. 헛허허』

『잘 모르겠는데요』

『오빠』

여인이 달래듯이 영후의 팔을 잡았다.
『넌 비켜있어. 망할 계집이군. 혼자 나왔는줄 알았더니 너
마저 날 배신하고 있었구나』

『아니예요. 이. 이는...』.

『비켜. 자 말을 하시지 이 병장. 날 체포하려는 수갑을 가
슴에 품은 헌병들이 어디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가를... 자
주저하지 말래두』

『김 영후』

나는 비명같은 소리를 발했다.

『자, 누구야. 대답해 보게. 저기 앉아서 이쪽을 노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건장한 사내가 바로 헌병왕초인가. 자
네는 꼬나풀이구. 뭘 망설이고 있나. 빨리 신호를 하게』

『자넨 오해하구 있어』

『오해라구?』

순간 영후의 몸이 날쌔게 다방문 밖으로 총알처럼 튀쳐
졌다. 나도 빠른 동작으로 그를 따랐다. 허나 다방 입구의
흔잡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이내 내 손에 잡히어졌고,
그는 번개처럼 강렬한 어퍼컷을 내 턱에 명중시켰다. 나는
쓰러지며, 그의 후줄그레한 코트자락을 쥐었다. 재차 발길
질이 날아왔다. 허나 나는 그의 코트자락을 놓지 않았다.
차라리 나는 그 흔잡한 다방입구에서 쓰러지며, 흡사 태클
을 하는 기분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공을 놓쳐서는 안 되
는 것이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그것
은 나나 영후측으로 볼 때나 유리만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천천히 다방문을 나란히 걸어 나왔다. 꿇졌던 눈
발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쓸데없는 일에 간섭치 마라』

영후는 앞만 보며 말을 했다. 여인도 어느새 우리들의 곁
에 따라 걷고 있었다.

『난 동정심 같은 것은 원치 않는다』

『술이나 빨자』

나는 키 큰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어때 술은 내가 사지』

『.....』

우리는 어느 자그마한 술집에 들어섰다. 나는 막걸리를,
그는 소주를, 여인은 콜라를 시키고, 우리는 술잔을 마주
들었다. 희미한 불빛 밑에서 본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
로 여위어 있었고 안광만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들의 머리
칼과 외투 위에서는 쌓인 눈이 녹고 있었다. 우리 셋은 잘
못 뛰어들어 온 주객 같은 표정으로 그 곁걸거리며, 오줌
흘리며, 노래를 부르며, 술잔의 딸깍이는 소리, 지글지글
타오르는 돼지갈비의 냄새 속에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
기도 하고, 창밖으로 비듬처럼 내리는 눈발을 쳐다보기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하는
식의 괴로운 침묵 속에서 의무인 것처럼 술을 들었다. 술
맛은 맹랑하게 쓰고 환편 달았으며, 맵기도 했고 짠다. 침
묵을 먼저 깨뜨린 것은 영후였다.

『넌 내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게냐?』

『.....모르겠어』

나는 빈대떡을 찌개며 대답했다.

『자수하길 바라는 게냐. 아예,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도망
쳐 숨어있길 바라는 게냐?』

『.....글쎄』

『영미 년 어떤 편이나. 내가 자수하길 바라는 게냐?』

『.....그렇다면 네 자신은 어때? 네 생각은 어떠한 말
이다』

나는 되물어 그를 쳐다보았다.

『모르겠어』 그는 공허하게 웃었다.

『정말 모르겠어. 부끄럽게두』



다시 우리의 대화는 끊기고 술만 들었다. 술은 여전히 쓰고 달았으며 맵기도 했고 한편 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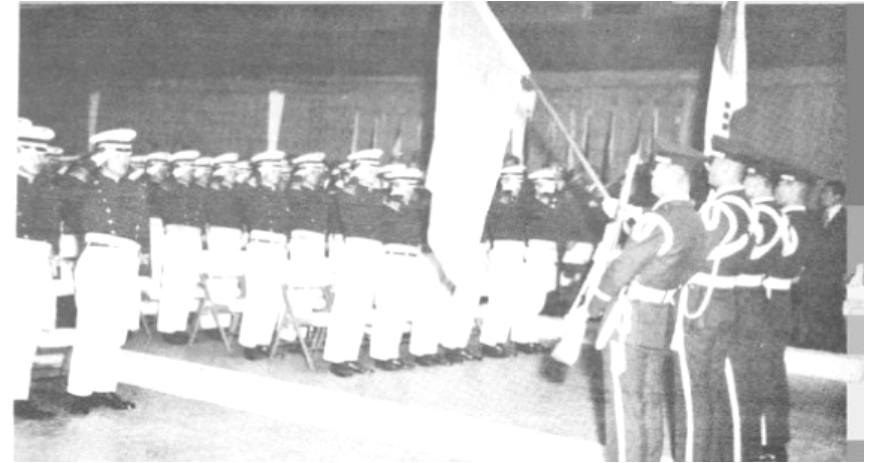
『모르겠어. 정말모르겠어』

창밖엔 눈이 쌓이고 있었다. 먼지에 끼울은 창틀 위에 눈발이 날리워서 스칸디나비아 북극의 별장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어두운 비애의 그림자가 우리 셋을 사로잡고 있었다. 술을 마실수록 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만 또렷 또렷 해졌다. 도무지 나는 취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시도했던, 장상사를 찾아내 소위 인간적인 대화로 그를 자수케 하리라던 결심이 이토록허무맹랑한 것인가 느껴졌고 나의 그런 대화가 나 자신을 미화시키고, 미담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던가 하는 회의에 쌓여 묵묵히 술만 들었다. 그래. 우리들은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이인 것이다. 말하는 자식이나 말을 듣는 자식이나 우리들의 대화는 순수성 저편에서 거짓말과 위장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내가 그에게 자수를 권할 수 있는가. 그럴 용기가 내게 있는가. 또한 그럴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인간이 인간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그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거짓과 거짓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例)에 불과한 것이다. 신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오직 우리 밖에 없다는 사실, 나에겐 오직 나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나와 남 사이엔 두터운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은밀하고 부드러운 감언이설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인가.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가치척도에 의한 최선의 행위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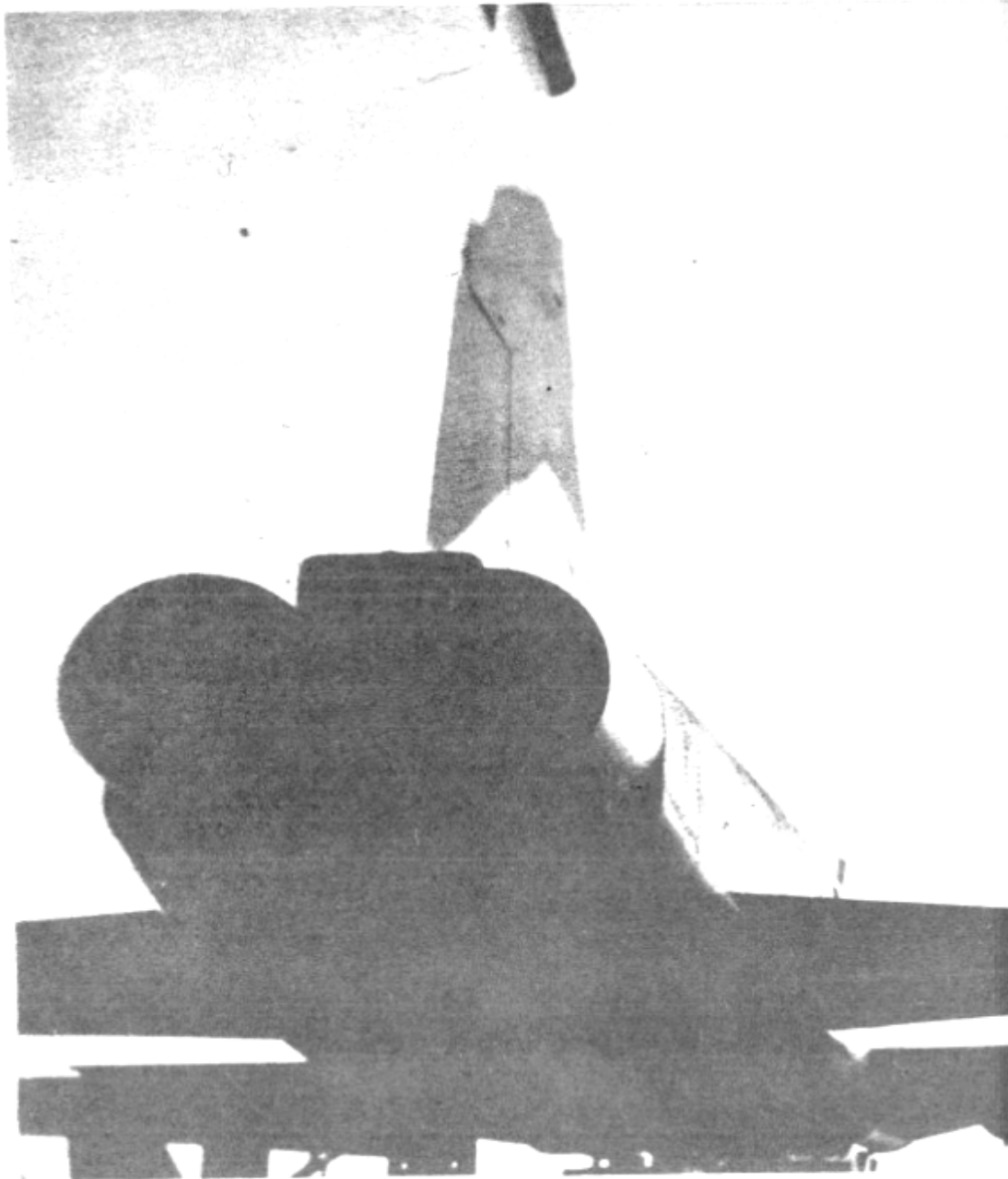
이윽고 우리는 밖으로 나섰다. 눈은 함박눈으로 변하고 나는 영후를 그 자신에게 맡겨버리기로 혼자서 마음먹고 있었다.



(경) 공 사 제 20기 졸업식 (축)

공군사관학교 제 20기 졸업식이 3월 31일, 박 정희 대통령각하 내외분과 3부 요인, 유 재흥 국방부장관, 「마이켈리스」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각군 수뇌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성무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서 소위로 임관된 〇〇〇명의 새 보라매들에게 박대통령각하는 유시를 통해 『우리 조종사들은 전투기 1대면 적 비행기 5대는 거뜰히 때려부술 수 있는 기술과 훈련을 연마, 1당 5의 필승의 신념을 갖고 싸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 예 공 군 되 자



정 예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